

# 귀아후나

## 연차 대회 말씀

닐 엘 앤더슨 장로가  
십이사도로 부름받다



2008년 4월에 십이사도 정원회로 지지되었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오른쪽)가 제179차 연차 대회에서 십이사도 정원회로 새롭게 지지된 닐 엘 앤더슨 장로를 환영하고 있다.



**십이사도 정위원회**

(아래 좌측부터)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엘 톰 페리 장로, 러셀 엠 벨스 장로, 말린 에이치 우스 장로,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위 좌측부터)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레이버드 에이 페드나 장로, 쿠엔틴 엘 쿡 장로,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닐 엘 앤더슨 장로



**철십인 회장단**

(아래 좌측부터) 로널드 에이 레스번드 장로,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 윌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  
(위 좌측부터)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 제이 이 켈슨 장로, 도널드 엘 홀스트룸 장로

# 리아호나

2 제179차 연차 대회 요약

## 토요일 오전 모임

- 4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7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앞날을 예비하여  
부양하는 자가 됨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11 존경과 경건  
마거릿 에스 리퍼스
- 14 제시된 정원회의 원리  
마이클 에이 나이더
- 17 역경의 시기에 힘을 찾음!  
앨런 에프 페커 장로
- 19 성약의 권능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 23 역경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토요일 오후 모임

- 27 교회 역원 지지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29 2008년도 교회 감사부 보고서  
로버트 더블류 캔트웰
- 30 2008년도 통계 보고서  
브룩 피 헤일즈
- 31 과거에서 교훈을 배우  
엠 러셀 벨라드 장로
- 34 우리 아버지의 계획-모든 자녀들에게  
충분한 계획  
쿠엔틴 엘 쿡 장로
- 38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케빈 더블류 피어슨 장로
- 41 역경 속의 신앙  
라파엘 이 피노 장로
- 43 성전 예배: 어렵고 힘든 시기에 힘과  
권능의 근원이 됨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 46 주기도문에서 배우는 교훈  
러셀 엠 넬슨 장로

## 신권 모임

- 49 청남들에게 주는 권고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 53 여러분에게 걸려 온 전화입니다  
리차드 시 애즐리 감독
- 56 신권의 책임들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

59 우리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63 “부상자 발생!”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67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일요일 오전 모임

- 75 제자의 길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78 내게 오라  
닐 엘 앤더슨 장로
- 81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
- 83 주님은 항상 너를 지키시리  
바바라 톰슨
- 86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 89 기뻐하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일요일 오후 모임

- 93 비이기적인 봉사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 97 이름과 지위를 영예롭게 유지하고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101 성스러운 가정, 성스러운 성전  
케리 이 스티븐슨 장로
- 104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은사  
호세 에이 테제이라 장로
- 106 주님의 종, 선지자들  
에프 마이클 왓슨 장로
- 109 “영혼들을 내게 데려오라”  
엘 톰 페리 장로
- 112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청년 총회

- 114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앤 엠 님
- 117 유덕한 삶-한 번에 한 걸음씩  
메리 앤 쿡
- 120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자  
일레인 에스 돌튼
- 123 용기를 가지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72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역원
- 128 그들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 130 연차 대회에서 인용된 일화 색인
- 131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 131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 132 교회 소식



## 제179차 연차 대회 요약

### 2009년 4월 4일 토요일 오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개회 기도: 찰스 디디에이 장로. 폐회기도: 윌리엄 더블류 팜리 장로. 음악 제공: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와 에드가 톱슨; 오르간 반주: 앤드류 언스위스와 클레이 크리스찬슨: “동트니 날이 밝는다”, 찬송가, 4장; “전진하세 주 예수 믿으니”, 찬송가, 55장; “애통하는 이스라엘”, 찬송가, 10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찬송가, 32장; “Consider the Lilies”, 로저 호프만, 리온 편곡, 잭맨 출판; “승리한 나의 구속주”, 찬송가, 75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 2009년 4월 4일 토요일 오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디에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 폐회 기도: 더글러스 엘 콜리스터 장로. 음악 제공: 솔트레이크 지역 종교교육원 연합 합창단; 지휘: 스테판 피 쉐크와 리차드 티 데커,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와 린다 마가렛츠: “Come, Thou Glorious Day of Promise”, 영문 찬송가, 50장;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 찬송가, 14장, 캐이슨 편곡, 잭맨 출판;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 찬송가, 149장; “헤어지며 찬송 하나 더 하세”, 찬송가, 82장, 윌버그 편곡, 데저렛 북 출판

### 2009년 4월 4일 토요일 저녁 신권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개회 기도: 브루스 디 포터 장로. 폐회기도: 셸리 디 크리스텐슨 장로. 음악 제공: 브리검 영 대학교-아이다호 신권 합창단; 지휘: 캐빈 브라우어와 랜달 캠프; 오르간 반주: 리차드 엘리엇: “Sing Praise to Him”, 영문 찬송가, 70장, 캠프 편곡, 미출판; “사랑 충만한 하늘 아버지여”, 찬송가, 83장; “높은 산 언덕 위”, 찬송가, 2장;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찬송가, 146장, 캠프 편곡, 미출판.

### 2009년 4월 5일 일요일 오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개회 기도: 대릴 에이치 간 장로. 폐회 기도: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 음악 제공: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클레이 크리스찬슨과 리차드 엘리엇: “전지

전능하신 주님께”, 찬송가, 56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가, 80장; “마음에 햇빛 있으면”, 찬송가, 159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이스라엘의 구주”, 찬송가, 27장; “This Is My Beloved Son,” 영문 어린이 노래책, 76쪽, 칼돈 편곡, 미출판;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찬송가, 6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 2009년 4월 5일 일요일 오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스펜서 브이 존스 장로. 폐회 기도: 로버트 시 옥스 장로. 음악 제공: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와 에드가 톱슨; 오르간 반주: 린다 마가렛츠와 보니 굿리프: “소리 모아 노래해”, 찬송가, 5장, 엘리엇 편곡, 미출판; “오 높은 영광 보좌”, 찬송가, 139장, 게이트 편곡, 잭맨 출판; “위대하신 여호와여”, 찬송가, 43장;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찬송가, 74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 2009년 3월 28일 토요일 저녁 청년 총회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일레인 에스 돌튼. 개회 기도: 엘리자베스 비번. 폐회 기도: 뮤즈나 부카리. 음악 제공: 이스트 밀크릭, 코튼우드, 올림푸스 스테이크 청년 합창단; 지휘: 메릴리 웹; 오르간 반주: 린다 마가렛츠: “As Zion's Youth in Latter Days”, 영문 찬송가, 256장, 캐이슨 편곡, 잭맨 출판; “아들 보내셨네”, 어린이 노래책, 20~21쪽, 드포드 편곡, 드포드 뮤직 출판(플러트 연주: 레이첼

마일스; 오보에 연주: 엘리자베스 퀴글리); “거룩함도 더욱”, 찬송가, 131장, 고츠 편곡, 미출판(첼로 연주: 줄리아 마샬); “의와 진리 지키기에”, 찬송가, 141장, 웹 데스크트 편곡.

### 연차 대회 녹화 자료

연차 대회 모임들의 녹화 자료들이 [www.lds.org](http://www.lds.org) 에서 여러 언어로 이용 가능합니다. 녹화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대회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배부센터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 대회 말씀 인터넷 게재

인터넷 상에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대회 말씀을 접하시려면 [www.lds.org](http://www.lds.org)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Gospel Library와 General Conference를 클릭한 후 해당 언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가정 복음 교육 및 방문 교육 메시지

가정 복음 교육 및 방문 교육 메시지는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요사항에 가장 잘 맞는 대회 말씀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표지

앞 표지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먼드  
뒤 표지 사진 촬영: 크리스티나 스미스

### 대회 사진들

연차 대회 장면들을 담은 사진 촬영:  
솔트레이크시티: 크레이그 다이먼드, 웰던 시 앤더슨, 존 루크, 매튜 라이어, 크리스티나 스미스, 레스 닐슨, 스코트 데이비스, 린지 브릭스, 로드 보암, 알파 스무트, 코디 벨, 마크 웨인버그, 디나 밴 캄프, 미셸 샌드버그;  
아르헨티나: 제이비어 코로나티; 브라질: 로레나이 아레마 포체토; 피지: 탈랏 메무드; 멕시코: 쉘렘 카스타네다, 카를로스 이스라엘 구티에레즈; 폴란드: 베브 로비슨; 루마니아: 코디 홈즈; 러시아: 바실리 그라체프 칼라모바.



2009년 5월호, 제46권, 제5호  
리아호나 04285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임

제일화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스펜서 제이 콘디

고문: 게리 제이 코울런, 케네스 존슨, 요시히코 기무찌, 더블류 더글라스 섬웨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엠 프리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윌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아담 시 울슨

공동 편집인: 라이언 커

보조 편집인: 수잔 배렛

편집 스태프: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트, 라렌 포터 콘트,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멜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제이 오데커크, 주디스 엠 팔러, 조슈아 제이 파키, 채드 이 패리스, 켄 핀보로우, 리처드 엠 홀나, 톰 엘 설, 재닛 토마스, 폴 멘덴버그, 줄리 위델

선임 비서: 로렐 듀셔

관리 미술 책임자: 엠 기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킷트 밴 캠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엘리 알 아로요, 콜레트 네베키 오온, 허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렛,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킴 핀스타마커, 캐슬린 허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비, 스킷트 엠 웨이, 지니 제인 넬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권: 제 515호, 제46권, 제5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9년 5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 동 환

편집인: 박 송 호

번역 책임자: 조 현 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의대/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권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잡지)란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루트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체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라어, 이탈리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갈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타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09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May 2009 Vol. 33 No. 5.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ag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 연사들 (가나다 순)

게리 이 스티븐슨, 101  
닐 엘 앤더슨, 78  
달린 에이치 옥스, 93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97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19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27, 59, 75  
라파엘 이 피노, 41  
러셀 엠 넬슨, 46  
로버트 디 헤일즈, 7  
리처드 시 에즐리, 53  
리처드 지 스코트, 43  
마거릿 에스 리퍼스, 11  
마이클 에이 나이더, 14  
메리 앤 쿡, 117  
바바라 톰슨, 83  
보이드 케이 패커, 49  
스티븐 이 스노우, 81  
앤 엠 딘, 114  
앨런 에프 패커, 17  
에프 마이클 왓슨, 106  
엘 톰 페리, 109  
엠 러셀 벨라드, 31  
일레인 에스 돌튼, 120  
제프리 알 홀런드, 86  
케빈 더블류 피어슨, 38  
쿠엔틴 엘 쿡, 34  
클라우디아 알 엠 코스타, 56  
토마스 에스 몬슨, 4, 67, 89, 112, 123  
헨리 비 아이어링, 22, 63  
호세 에이 테제이라, 104

### 주제 색인

가르침, 11  
가정, 101  
가정의 밤, 56  
가족, 83, 101  
간중, 17, 31, 78  
개인 발전, 114  
개척자, 78  
검약하는 생활, 7  
겸손, 23, 46  
경건, 11  
경건 공부, 67  
경험, 31  
계시, 17  
교리, 34  
급식, 46  
기도, 46, 67, 112  
기쁨, 89  
깨끗함, 120  
덕, 117, 120, 123  
모범, 11, 114, 117  
배움, 31  
변화, 81  
보호, 97  
봉사, 23, 53, 63, 83, 93  
불굴의 의지, 89  
빛, 7  
산만함, 59  
선교 사업, 4, 109  
선지자, 81, 104, 106  
선택 의지, 104  
성신, 17, 19, 104  
성약, 19, 97  
성전, 4, 43, 97, 101, 112  
속죄, 34, 86, 117  
순중, 19, 38, 106

신권 정원회, 14, 53  
신권 축복, 67  
신권, 56, 63  
신앙, 19, 38, 41, 49, 81, 83  
아론 신권, 14, 49  
약속, 59  
역경, 19, 23, 41, 89  
역사, 31  
연차 대회, 112  
영구 교육 기금, 4  
영원한 가족, 43  
예수 그리스도, 46, 75, 78, 86  
외로움, 86  
외설물, 112  
우기, 123  
우선 순위, 59  
의심, 38  
이기심, 93  
인내, 75  
제자됨, 75  
존경, 11, 34  
준비, 43, 120  
중독, 7  
지혜의 말씀, 49  
직업, 53  
책임, 49, 56, 109  
청녀, 114  
통찰력, 81  
판단, 34, 123  
평안, 41  
형제애, 53, 63  
활동화, 14, 63  
회원 선교 사업, 109  
희망, 75, 81, 89  
희생, 93

#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교회가 매우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주님의 사업은 거침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위해 오늘 아침에 그분의 이름을 호명하는 바입니다. 그분을 이 성스러운 부름에 지지하시는 모든 분들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앤더슨 장로님의 이름은 오늘 오후 교회 역원들이 호명될 때 포함될 것입니다.

앤더슨 장로님, 이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들과 함께 단상에 있는 장로님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대회의 일요일 오전 모임에 장로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고대하겠습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179차 연차 대회를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린 장로님이 함께 하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에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의 죽음에 조의를 표합니다. 장로님이 그리웁니다. 유족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합니다. 저는 장로님이 휘장 저편에서 이 위대한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워스린 장로님의 죽음으로 인해 십이사도 정원회에는 공석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금식과 기도 끝에 우리는 이 자리에 닐 린든 앤더슨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지지할 것을 제외하기

형제 자매 여러분, 6개월 전에 여러분을 만난 이후로 저는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 내외와 성전 재헌납을 위해 멕시코의 멕시코시티로 여행했습니다. 이 성전에는 수개월간의 대대적인 개보수가 시행되었습니다.

재헌납식 전날 저녁, 아즈텍 경기장에서 성대한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약 87,000명의 관객이 노천 경기장을 빼곡히 메웠고, 8,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80분간의 음악, 무용, 멕시코 역사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아이어링 회장님과 저는 멕시코의 전통 모포와 챙 넓은 모자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전통 의상을 입고서, 저는 9학년 때 스페인어



수업에서 처음 배운 “엘 란초 그란테”를 청중 앞에서 즉흥적으로 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음날 열린 두 차례의 헌납식에는 주님의 영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2주 전에 우리는 솔트레이크 계곡 남쪽 산맥 기슭에 자리잡은 웅장한 건축물인 유타 트레이퍼 성전을 열두 차례에 걸쳐 헌납했습니다. 회원과 비회원을 통틀어 약



685,000명이 일반 공개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스테이크 센터로 위성 중계된 모임들을 비롯한 헌납식에는 365,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성전이 헌납될 때 주님의 영이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머지 않아 유타 오쿠르 마운틴 성전이 헌납될 것이며, 수 개월 내지 수 년 내에 훨씬 더 많은 성전 헌납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성전 헌납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자신이 성취한 것을 재평가 해 보고 그보다 더 잘하고자 하는 진실된 소망을 갖도록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교회가 매우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주님의 사업은 거침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348개 선교부에 53,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구주의 명을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선교사들의 수고와 희생과, 이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가족들의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전도 이외의 분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선교사들이 계십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로 주님의 사업을 진척시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헌납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소중한 봉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01년에 마련된 영구교육기금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기금 발족 이래, 35,6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자신의 기술과 취업 기회를 진작시키기 위해 훈련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18,900명이 그 훈련을 마쳤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2.7년의 교육을 통해 그들의 수입은 서너 배 가량 높아집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에 큰 축복이 됩니다! 참으로 영감 받은 프로그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복음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와드와 지부 및 스테이크와 지방부에서의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봉사를 통해 주님께서는 지상에서 그분의 사업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한 기도들을 느낄 수 있으며, 제가 가장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기도들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틀 동안 전해질 메시지들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가르침 받고 영감 받으며 복음대로 생활하고 주님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새로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분들은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하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나누어줄 내용과 관련된 영감을 받으셨습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여러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고난으로, 낙담으로, 상실감으로 힘들어 하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필요사항을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주님의 영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에 이 위대한 대회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저의 기도입니다. 또한 교회의 회장으로서 앞서 가신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에 대한 정감 어린 기억을 덧붙입니다. 그분께서 휘장 저편에서 훌륭히 봉사하고 계심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28:19.

#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앞날을 예비하여 부양하는 자가 됨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앞날을 예비하여 생활할 때, 우리는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축복하는 구주의 모범을 따를 수 있습니다.



**살** 아계신 선지자에 의해 인도되는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은 대공황기에 어린 시절을 보내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종종 문슨 회장의 어머니는 그로 하여금 궁핍한 이웃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게 하였고, 노숙자들에게 허드렛일을 할 기회를 주고 그 대가로 손수 만든 음식을 주셨습니다. 후에, 문슨 회장이 젊은 감독이었을 때, 그는 제이 르우벤 클라크 회장님으로부터 “과부들에게

친절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십시오.”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토마스 에스 문슨, “A Provident Plan—A Precious Promise”, *Ensign*, 1986년 5월호, 62쪽) 문슨 회장은 84명의 미망인들을 보살피셨으며,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들을 돌보셨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세계 곳곳에 있는 회원과 이웃들에 대한 문슨 회장의 봉사는 그분의 봉사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범에 감사드립니다. 문슨 회장님,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문슨 회장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시대에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부모님과 증조부모님들이 경제적 역경을 통해 지극히 중요한 교훈들을 배우셨듯이, 우리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 배우는 것들도 우리와 앞으로 올 여러 세대에 걸친 우리 후손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선택의 자유가 줄어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과도한 부채와 음식, 약물, 외설물 등에 대한 중독으로 이끈 선택들, 그리고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그 밖의

행동이나 사고의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무절제한 행위들은 우리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족 관계의 근간을 흔들어 놓습니다. 물론 교육, 소박한 집, 또는 필수적인 자동차를 사기 위해 지게 되는 빚들은 가족 부양을 위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욕구와 중독적인 충동을 절제하지 못할 때 추가적인 빚을 지게 됩니다. 부채와 중독에 대한 희망적인 해결책은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켜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빛과 무절제한 우리 욕구의 순환고리를 끊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몇 분간, 그리고 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으로 채워지며 그분의 회복된 복음 교리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자초하게 되는 시련들을 포함하여 인생의 모든 시련들은 필멸의 삶에서 겪는 시험의 일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구주의 힘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우리에게 경험어 되고 유익어 될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22:7 참조)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각각의 유혹은 우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고린도전서 10:13 참조)

사탄이 우리들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유혹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성신의 속삭임에 순종한다면 사탄의 유혹을 인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혹에 굴복하기 전에,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마태복음 16:23)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은 얼마나 강하게 유혹



브라질, 상파울루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실하게 대응했느냐에 의해 평가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간구해야 하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힘을 구해야 합니다. 현세나 영적인 일 모두에서 이러한 신성한 도움을 얻는다면,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앞날을 예비하여 부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앞날을 예비하여 부양하는 자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앞날을 예비하여 부양하려면, 우리는 앞날을 예비하는 삶의 원리들, 즉 수입의 범위 내에서 기쁘게 생활함, 가진 것에 만족함, 과도한 빚을 피함, 부지런히 저축하여 굶은 날의 비상상태를 예비함 등의 원리들을 실행해야 합니다. 앞날을 예비하여 생활할 때, 우리는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축복하는 구주의 모범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앞날을 예비하여 부양하는 자가 되려면, "탐내지 말라"(출애굽기 20:17)는 가장 기본적인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세상은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웃이 가진 것을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지 못하면 불안해 하고, 창피해 하고, 자격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살 형편도 안 되고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사느라 빚을 집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가난해집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소중하고 값진 선택 의지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노예 상태로 만듭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데 사용할 수 있었을 돈을, 이제는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나마 남은 돈은 대개, 가장 기본적인 육체적 필요사항을 충족시킬 정도입니다. 겨우 끼니를 연명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의기소침해지고, 자긍심에 영향을 받으며, 가족, 친구, 이웃, 주님과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영적인 것들을 추구할 시간이나 열정, 혹은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부채와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중독을 피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검약하는 생활에 관한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삶에 주어진 다른 많은 교훈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 교훈들을 영원한 동반자인 제 아내에게서 배웠습니다.

저는 이 교훈들을 결혼 생활에서 각각 다른 두 시기에 배웠는데, 두 경우 모두 아내에게 특별한 선물을 사 주려고 할 때였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돈이 별로 없던 시절에 배웠습니다. 저는 공군으로 복무하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를 아내와 함께 보내지 못했습니다. 해외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옷 가게 쇼 윈도우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드레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것이 맘에 들면 사자고 제안했습니다. 메리가 가게 안에 있는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판매 점원이 나오더니 제 옆을 스쳐 지나 그 옷을 다시 가게 창가에 걸었습니다. 가게를 나오며, 아내에게 "어떻게 된 거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예쁜 옷이긴 하지만 우린 지금 그 옷을 살 형편이 안 돼요"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가장 아름다운 세 단어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인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장 잘 배려하는 네 단어가 "그것을 살 형편이 안 돼요"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 후 몇 년이 지나 재정적으로 좀 더 안정되었을 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 가까워 왔고, 수년 동안 행복한 시간들을 함께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저는 메리에게 근사한 외투를 사 주고 싶었습니다. 메리에게 제가 마음에 두고 있던 외투가 언제 보이냐고 묻자, 그녀는 다시 한번 제 마음과 생각을 꿰뚫는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그 옷을 어디서 입어야 할까요?”라고 물었습니다.(그 당시 아내는 워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서 궁핍한 가족들을 보살피는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 뒤 그녀는 저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바라보며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이 옷을 사려는 것이 저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당신을 위한 건가요?” 다시 말해 그녀는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 선물의 목적이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능력 있는 남편이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거나 세상에 믿음을 증명하려는 건가요?” 저는 그녀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제가 그녀와 가족보다는 제 자신을 더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우리는 검약하는 생활에 대해 진지하고 삶을 변화시킬 만한 대화를 나눴고, 우리가 가진 돈을 주택 담보 대출을 갚아 나가고 자녀들의 학자금에 보태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이 두 교훈에 검약하는 삶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사거나, 소비하거나, 세속적인 것들과 활동들을 즐길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 오면,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그것을 원하긴 하지만, 살 형편이 안 돼요!” 또는 “살 형편은 뭘지 모르지만, 필요하지도 않고 진정으로 원하지도 않아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훈들의 이면에는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와 대화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족 평의회에서 함께 의논하고



협력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여 부양하는 자가 되도록 서로를 도울 수 있으며 자녀들이 앞날을 준비하며 살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앞날을 준비하는 삶의 기반은 십일조의 법입니다. 이 율법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십일조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구를 넘어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도록 도와줍니다. 십일조는 위대하고도 공평한 율법입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가난한지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똑같이 해마다 우리 수익의 십분의 일을 내며(교리와 성약 119:4 참조), 우리 모두는 “쌍을 갖지 않도록”(말라기 3:10) 큰 축복들을 받습니다.

우리는 십일조와 더불어 금식 현금을 내는

데 있어서도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금식 현금은 최소한, 우리가 매달 금식한 연속 두 끼 식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두 끼의 식사를 거름으로써, 우리는 겸손과 기도를 통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며, 또한 온 세상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는 익명의 기부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앞날을 준비하여 부양하는 자가 되는 법을 배우도록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가족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가족 평의회 모임에서 가족의 수입, 저축 및 지출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가족이 가진 재원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 미리 계획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우리는 가족 평의회를 열고 콜로라도 강을 내려가는 “꿈의 휴가”를 보낼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듬 해에 우리 중 누구라도 무언가를 사고 싶어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정말로 지금 그것을 사고 싶은가, 아니면 나중에 꿈의 여행을 가고 싶은가?” 이것은 앞날을 예비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는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즉각적인 욕구들을 모두 다 충족시키지 않으므로써, 우리는 가족의 단합과 앞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좋은 추억이라는 더 바람직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자원에 영향을 미칠 무언가를 경험하거나 갖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자문할 수 있습니다. “이 유익이 일시적인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가치와 중요성을 가진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정직하게 답한다면 과도한 빛과 다른 중독적인 행위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빛과 중독적인 행위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중독이 인간의 타고난 욕구이며 절대 충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독이란 충족될 수 없는 욕구입니다. 중독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듯한 세상적인 소유나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목말라하는 것과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즉 그분의 사랑과 자긍심, 안전, 신뢰,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앞날을 예비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부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라모나이왕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당신을 알기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버리겠나이다”(엘마서 22:18)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 뒤 굳은 결심으로 그분께 나아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금식, 계명에 순종함, 신권 축복, 속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 삶에서 그분의 사랑과 권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신의 속삭임을 통하여 그분의 영적인 인도와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속죄를 통해서만 마음의 커다란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며(모사이야서 5:2, 엘마서 5:14 참조) 중독적인 행위에서 벗어나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사랑과 저를 통해 전해 드리는 구주의 사랑을 담아, 저는 여러분께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하여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위하여 돈을 쓰지 말며,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너희 수고를 들이지 말라. 내게 부지런히 귀 기울이며 내가 이른 말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에게로 나아가 멸망하지도 아니하며, 썩을 수도 없는 것을 배불리 취하라”(니파이후서 9:51)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는 오직 주님께로 돌아섬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중독에 대한 목마름은 오직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울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두려워 말라 … 이는 너희가 나의 것임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며”(교리와 성약 50:4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속죄를 통하여 모든 것을 극복하셨다는 저의 특별한 간증을 전해 드립니다. 우리도 저마다 그분께로 나아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앞날을 예비하여 부양하는 자가 됨으로써 세상적인 유혹을 극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

# “존경과 경건”

마거릿 에스 리퍼스  
본부 초등학교 제1보좌

우리는 가정과 공과반에서 서로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을 키워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는 베드로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는 지극히 다정한 대화가 나옵니다. 구주께서는 세 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구주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신시켜 드릴 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sup>1</sup>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생수”<sup>2</sup>와 “생명의 떡”<sup>3</sup>으로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들의 영성을 키우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날 부모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그들에게 심어 주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우리는 집에서나 선교 모임에서, 혹은 교회에서나 공과 시간에

가르칩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간증과 영을 통하여 진정으로 그분의 양들을 먹이고 살찌우려면 우리 가정과 공과반에서 서로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 저는 부모와 교사, 지도자들에게 자녀들과 청소년들을 강화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의 영을 불러오는 존경과 경건함의 표준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며 격려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존경을 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경건해질 수 있으며 우리가 보이는 경건의 행동들이 더욱 진실해진다는 사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올바른 행동의 표준과 존엄, 예절은 모든 방면에 걸쳐, 온갖 종류의 대중매체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지도자로서, 서로에게 존경을 표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은 청소년과 자녀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중매체뿐만 아니라 우리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야말로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는 존경의 본이 되고 있는가? 스포츠 경기 때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내 자녀가 학교 선생님과 감독 혹은 또래 친구들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을 때, 나는 양쪽의 의견을 다 듣는가? 나는 내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자산도 존중하는가? 종교와 생활 방식, 혹은 정치에 관해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는가?

부모와 지도자들이 본이 되고 서로를 존경하도록 가르칠 때,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에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토록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우리는 차이점보다는 우리가 공통으로 지닌 것들, 즉 하나님의 가족을 결속시켜주는 마음의 자질들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은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것들은 겸손과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경건이란 사랑이 깃든 심오한 존경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sup>4</sup> 그리고 엘 톰 페리 장로님은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존경에서 나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sup>5</sup> 초등학교 아이들은 *어린이 노래책*에서 다음 가사를 부를 때 이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경건은 조용히 앉아서  
맘에 하나님 생각하는 것  
주 축복을 생각할 때 오는 느낌  
경건은 사랑이지요.<sup>6</sup>

하지만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처음부터 경건하게 행동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부모와 지도자들이 모범과 훈련을 통해 가르쳐야 하는 자질입니다. 하지만 경건함이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사랑에 기초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엄하게 가르치는 것은 경건이 아니라 반감을 낳습니다. 그렇기에 일찍 시작하고 적절한 기대치를 두십시오. 걸음마를 하는 아기도 팔짱을 끼고 기도할 준비를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심, 그리고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경건에 대한 첫 수업을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수양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가르침과 자기 수양의 과정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계속 진행됩니다. 따라서 아이는 기도하는 동안, 그리고 성찬식이 집행되는 동안 경건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는 모임 중에 부모 옆에 앉습니다. 후에, 그 아이는 금식을 하고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터넷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순결의 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일련의 자기 수양의 과정을 통해 자라납니다. 우리 각자의 능력과 이해력도 커집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자녀와 청소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며 가르치고 격려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수양은 자아 존중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확인하며 간증하기 위한 영을 불러오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년 전에 연차 대회에서 “경건은 계시를 불러온다.”라는 제목으로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sup>7</sup> 그 말씀은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제가 배운 것은 위안을 주고 인도하며 가르치고 간증하는 영을 불러오게 하는 경건한 장소를 우리 마음과 가정, 모임에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라는 사실을 영이 우리 각자에게 증거할 때, 그러한 계시야말로 사랑과 깊은 존경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경건함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지도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히, 그리고 적절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기도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할 때, 우리는 경건의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존경심을 가지고 경전을 다루며 확신을 가지고 그 안의 교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총관리 역원뿐만 아니라 지역 신권 지도자와 보조 조직 지도자에게도 적절한 존경을 표할 때 경건함은 더욱 커집니다. 제 스테이크 회장과 저는 30년 지기 친구라서 언제나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대중 앞에서나 교회 모임에서는 분명 신권 지도자의 부름을 가지고 봉사하시기 때문에 저는 의식적으로 그분을 포터 회장이라고 부르려고 노력합니다. 자녀들과 청소년들에게 우리 지도자들을 회장님, 감독님,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가르칠 때 존경과 경건함은 커집니다. 그것은 또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며 신성한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부모와 지도자로서, 우리는 교회 모임에서 경건한 행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당은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지만 일요일에는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치유할 성악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 모입니다. 우리는 교리를 배우고 간증을 강화하기 위해 옵니다. 선교사들은 구도자를 데리고 옵니다. 경건한 태도를 취할 때에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음악, 간증, 기도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친절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친목을 도모하는 일을 마치고 개회 기도가 아닌 전주 음악을 들으면서 성찬식을 시작한다면 경건함이 더해질 것입니다. 우는 아이를 예배당에서 데리고 나가 아기가 잠잠해지거나 조용해질 때까지 모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을 때 경건함이 더해집니다. 경건함은 휴대전화와 블랙베리폰의 전원을 끄는 것을 포함합니다. 교회 모임 중 문자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읽는 것은 경건하지 않음 뿐만 아니라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임에 참석하고 연사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함께 시온의 찬송가를 부름으로써 경건함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주일 학교,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교사들은 존경심과 경건함을 가르치고 그 본이 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가집니다. 제가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과에 참석한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종종, 가장 산만하고 문제 있는 아이가 여러분의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합니다.

경건이 무엇이며 왜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구주의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행동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정의한 뒤 그런 행동을 권할 뿐만



아니라 기대하면서 사랑으로 대하고 일관적인 태도를 취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공과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가르칠 수 있게 스스로를 준비시키십시오. 경건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잘 준비된 공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 적절한 기대치를 갖지 못하는 부모님들과 이야기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은 발전할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 와드의 자원을 이용하십시오. 종종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경건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 와드에 경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와드 평의회에 제기하여 와드 지도자들이 모든 면에서 존경과 경건을 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게 하십시오.<sup>8</sup>

몇 년 전에, 패커 회장님은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주신 다음의 약속은 분명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즉시 나타나는 기적적인 변화를 볼 수 없더라도, 주님께서 살아 계심이 확실한 것처럼, 조용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회원들의 생활과 교회에서 영적인 권세가 증가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시길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혼란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와 가족들이 지닌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sup>9</sup>

저는 선지자의 약속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구주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이 더욱 증가하여 그분들을 향한 우리의 깊은 사랑을 나타내고 그분들의 양을 먹이려는 노력이 향상되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요한복음 21:15~17.
2. 요한복음 4:10~14 참조.
3. 요한복음 6:48.
4. 데이비드 오 맥케이, Conference Report, 1967년 4월, 86쪽.
5. 엘 톱 페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나”, *리아호나*, 1991년 1월호, 70쪽.
6. “경건은 사랑이지요”, *어린이 노래책*, 12쪽.
7. 보이드 케이 패커, “계시는 경건을 통하여 옴”, *리아호나*, 1992년 1월호, 21~23쪽 참조.
8.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참조*.
9. *리아호나*, 1992년 1월호, 21~23쪽.

# 계시된 정원회의 원리

마이클 에이 나이다

이번 대회에서 해임된 본부 청남 회장단 제2보좌

우리의 가족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구하는 일을 돕기 위해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신앙과 확신과 덕을 품고 전진합시다.



**저**는 다음과 같은 선지자 니파이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성신의 권능으로 말할 때에는 성신의 권능이 그것을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 전함이라.”<sup>1</sup> 성신의 권능이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교회의 신권 소유자들을 대표해서, 최근에 교회 지도자들과 본부 청녀 회장단이 덕을 중점적인 청녀 가치관으로 추가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청녀들이 청녀 주제를 암송하는 것을 들으며, 유덕한 사람이 되겠다는 저의 소망과 결의는 강화되었습니다. 성신권을 소유한 자들로서,

자매들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 역시 덕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 38편에서 우리 각자에게 덕스러워질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 형제를 자신과 같이 여기고 내 앞에서 덕과 거룩함을 실천할지이다.”<sup>2</sup>

저는 오늘 하나님의 정원회의 원리와 아론 신권과 관련하여 계시된 후기 선지자들의 영감받은 지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에서 18세 연령의 청남들과 그들이 속한 정원회의 회장단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경전의 말씀들을 상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부모님과 다른 신권 지도자들도 정원회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강화시키고 예비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것, 다시 말해 학습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 로즈메리의 모범을 통해 헌신적인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처럼, 제 아내도 규칙적으로 경전 및 기타 양서들을 공부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계명, 성공적인 결혼 원리, 훌륭한 부모가 되는 법,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법에 관해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때때로 아내는 “당신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밑줄을 쳐 놔요.”라고 말하며 미소를 띤 채 제게 책을 건넵니다. 제가 결혼 생활에 대해 알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는 듯이 아내가 결혼에 관한 책에 밑줄을 그어 제게 건네줄 때면, 저는 그저 웃으며 “고맙구료”라고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계시된 신권과 정원회의 원리를 배우는 성실한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로부터 오는 영감 받은 지침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정원회의 장점과 축복들을 극대화하고 청남과 그들의 가족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정원회의 임무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고, 청남들을 준비시키고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수와 나태함을 없애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또한 계시된 정원회의 원리를 배우는 학생이 됩시다.

문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시급합니다. 우리의 임무와 기회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영의 분별력을 얻으려면 신권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숙제를 해야 합니다.”<sup>3</sup>

스티븐 엘 리차즈 회장님은 정원회가 학급이자, 친교 단체이자, 봉사단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정원회는 청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는 학급이자, 서로를 강화하고 격려하고 고양하고 우정을 쌓는 친교 단체이자, 정원회 회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봉사단입니다.<sup>4</sup>

교리와 성약은 계시된 정원회의 원리들을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하고도 풍부한 원천입니다. 예를 들어, 107편 85절은 집사 정원회 회장이 정원회 회원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집사의 직분을 관장하는 회장의 의무는 열두 집사를 감리하며, 그들과 함께 평의회에 앉으며, 성약에 따라 주어진 대로 그들의 의무를 그들에게 가르치며, 서로 교화되느니라.”<sup>5</sup>



교회 지도자들은 영에 의해 주어지는 영감 받은 질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그분의 뜻을 배우라고 가르쳤으며, 우리도 영이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느꼈습니다.<sup>6</sup>

저는 정원회 회장단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 보고 영의 영감을 통해 다른 질문들을 찾아볼 것을 권고합니다. 아론 신권 정원회 회장은 정원회를 감리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가? 그의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가 정원회 회원들과 함께 평의회에 참석해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는 언제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 성구들에 언급되어 있는 성약들은 무엇인가? 정원회 고문과 감독단 일원은 회장이 그의 의무를 수행하고 회장단의 신권 열쇠를 사용하는 데 각각 어떤 도움을 주는가?

형제 여러분, 이러한 성구들과 지침서들을 공부할 때, 다른 질문들도 떠오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정원회는 주님께서 경전을 통해 설명하신 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가? 계시된 정원회의 원리들을 우리 정원회에 적절하게 시행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회장단이 도움과 인도를 간구할 때, 성신과 감독단, 고문, 정원회가 도움

것입니다. 또한 영감으로 쓰여진 교회 지침서를 정기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전 세계의 수많은 정원회 회장들과 여러 신권 지도자들은 아론 신권 정원회 회장단과 정원회가 와드나 지부에서 봉사할 때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sup>7</sup> 그렇게 되면 청소년 정원회 회장단이 더 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고, 고문들은 지원과 지도자 훈련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sup>8</sup> 우리가 정원회의 의무에 초점을 맞추수록 더 나은 준비와 지도력의 기회를 위한 정기적인 정원회 회장단 모임의 빈도가 증가합니다. 정원회 지도자들은 전체 신권 개회 순서 후에 연령별 가르침과 정원회의 증강된 지도력의 기회를 위해 개개의 아론 신권 정원회가 따로 모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정원회 합반은 임시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아론 신권 정원회의 임무를 돕기 위해, 강인한 신앙의 기도, 금식, 경전 연구 및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정원회 지도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리와의 같은 자료들, 다양한 활동, 스카우트 등이 주님과 총관리役員들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스카우트 활동은 미국, 캐나다 및 신권 지도자들이 승인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시행됩니다.<sup>9</sup> 회장단은 정원회 회원 개개인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고, 형제애와 지속적인 활동과 선교 사업과 재미를 향상시키기 위해, 신권과 영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고 개개인들이 정원회 및 정원회 활동에 동참하게 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론 신권 정원회의 사용을 위해 제공된 도구들을 살펴보면, 정원회가 부모들을 도와 그들의 아들들을 영적인 면 및 성품, 행실, 개인적인 삶과 같은 다른 모든 측면에서 강화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원회의 원리 및 도구들이 신앙을 행사하는 가운데 계획과 지혜를 통해 사용된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성공적인 청소년 지도력의 풍성한 모범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사 정원회의 회장인 매트 앤더슨을 만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멕시코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매트가 교사 정원회 회장으로 성별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와드에서 교회에 참석하는 유일한 교사 정원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어린 회장인 매트



앤더슨은 유능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가정과 집사 정원회에서 닦은 신앙과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는 정원회 회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 자신이 지닌 회장단의 열쇠를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와드 서기에게 정원회 회원 명단을 달라고 하고, 스페인어를 연습한 후,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오마르라는 한 소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i Omar: Tu, Iglesia, Hoy!” 즉, “오마르! 너, 교회, 오늘!”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메시지였습니다!

기적은 오마르가 그날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 그의 어머니와 누이도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 후, 우리의 어린 정원회 회장인 매트 앤더슨은 감독님에게

명단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두 소년을 방문하고 싶으니 자신을 차로 데려다 주고 통역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가진 회장단의 열쇠와 천사의 성역과 하늘의 권능이 어우러졌습니다. 그 결과 이 두 소년도 교회에 와서 새로운 교사 정원회 회장단을 구성했습니다. 다른 소년들과 그들의 가족들도 복음과 신권의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린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구주의 손에 들린 강력한 도구이며, 그분은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축복이 주어지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감독 여러분, 아론 신권 정원회 및 청년반 회장단의 힘과 능력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이 중대한 사업에서 주님은 그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들은 다른 청소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오직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무를 주십시오! 그들에게 지도력과 교리와 성약 13편에 약속되어 있는 천사의 성역을 행할 기회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아론 신권을 지닌 지도자로서, 그리스도의 삶과 속죄를 배우는 학생이 됩시다. 아론 신권 정원회의 계시된 원리를 배우는 학생이 됩시다. 문슨 회장님의 권고에 따라 속제를 함으로써 우리의 임무와 기회를 이해하고 영을 지니기에 합당해집시다. 또한 정원회 회장인 매트 앤더슨처럼 가족들과 우리의 손이 미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구하는 일을 돕기 위해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신앙과 확신과 덕을 품고 전진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사업에서 아론 신권의 임무는 성스럽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니파이후서 33:1.
2. 교리와 성약 38:24.
3. 토마스 에스 문슨, “Back to Basics”, 지역 대표 세미나, 1981년 4월 3일, 2쪽 참조.
4. 스티븐 엘 리차즈, Conference Report, 1938년 10월, 118쪽에서 발췌; 또한 엘 톰 페리, “정원회란 무엇입니까?”, *리야호나*, 2004년 11월호, 23~26쪽;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신권 정원회”, *성도의 빛*, 1999년 1월호, 47~49쪽; 로버트 엘 백맨, “Revitalizing Aaronic Priesthood Quorums”, *Ensign*, 1982년 11월호, 84~85쪽 참조.
5. 교리와 성약 107:85; 또한 86~89절 참조.
6. 헨리 비 아이어링,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주님의 힘으로 전진함”, *리야호나*, 2005년 3월호, 14~19쪽; 닐 에이 맥스웰, “Jesus, the Perfect Mentor”, *Ensign*, 2001년 2월호, 8~17쪽;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믿음으로 구하교”, *리야호나*, 2008년 5월호, 94~97쪽 참조.
7. *Ensign*, 1982년 11월호, 38~41쪽; *Ensign*, 1973년 7월호, 84~85쪽 참조.
8. 에즈라 테프트 벤슨, “To the Youth of the Noble Birthright”, *Ensign*, 1986년 5월호, 43~46쪽; “아론 신권”, *교회 지침서, 제2권: 신권 및 보조조직 지도자*(1998년), 2장, 175~192쪽; 또한 주 7번 참조.
9. 토마스 에스 문슨, “Run, Boy, Run!”, *Ensign*, 1982년 11월호, 19~21쪽; *Scouting Handbook*(1997년); 또한 주 8번 참조.

# 역경의 시기에 힘을 찾음!

앨런 에프 패커 장로  
칠십인 정원회

다가오는 시대에서는 개인적인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새**로운 부름을 받으신 앤더슨 장로님께 우리의 사랑과 축복과 지지를 전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현재의 상황들은 전 세계의 사람들과 가족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지금이 특히 청소년들에게 삶을 영위하기에 훌륭한 시기임을 알고 있습니다. 제 자녀와 손자 손녀들은 역경과 좌절, 극복해야 할 난관에 직면해 있지만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구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힘쓸 시기이기도 합니다.

비바람은 모두에게 몰아칩니다.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사람들은 폭풍우를 견뎌 냅니다.<sup>1</sup>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개인적으로 완전히 개심하고 영감을 어떻게 받게 알게 됨으로써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됨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에서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자립해야 합니다.<sup>2</sup> 이 자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영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자 구주라는 사실, 그리고 성신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속박인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시작됩니다.<sup>3</sup>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신의 속박임을 인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교시절 저는 미식 축구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저는 후방 중간 수비수로 활약했습니다. 감독님은 우리 팀을 잘 훈련시키셨고 우리에게 기본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술들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습득할 때까지 연마했습니다. 한 강팀과의 경기에서, 저는 수년 동안 제게 도움이 되었던 한 가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비를 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제가 수비해야 할 상대편

선수를 알고 있었고, 경기가 진행되자 그는 제가 수비를 맡은 구역의 우측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수들과 팬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저는 감독님한테 배운 대로 행동했고 그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일단 그 선수가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공을 가지고 있었으며 공의 일부가 제 손에 닿았습니다. 저는 공을 잡아 당겼으나 상대편 선수는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공을 잡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동안 시끄러운 함성 가운데서 “패커, 태클해!”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든 저는 그를 태클해서 땅에 넘어뜨렸습니다.

저는 시끄러운 함성 가운데서 제가 그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연습하는 동안 감독님의 음성에 익숙해졌고 그 음성을 신뢰하도록 배웠습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배운 것이 효과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신의 속박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르침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일 때까지 그 가르침들을 실천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 속박임들은 우리 간증의 기초가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간증은 역경의 시기에 우리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켜 줄 것입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간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간증은 영원한 중요성을 가진 어떠한 사실들에 대해 성신을 통해 알게 된 개인적인 증거이며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sup>4</sup> 옥스 장로님은 간증을 이렇게 표현하신 적도 있습니다. “간증은 알고 느끼는 것이며, 개종은 행하고 변하는 것입니다.”<sup>5</sup>

진정으로 개종하고 신성한 영감을 받는 법을 배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소망을 지녀야 합니다.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든 생명에 이르는 것이든, 그들의 원대로 주심을 내가 알아라.”<sup>6</sup>

다음으로 엘마는 우리에게 이 말을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리라. 이제 만일 너희가 자리를 내주어 씨앗 하나가 너희 마음에 심어졌다면, 보라 그것이 참된 씨앗, 곧 좋은 씨앗이라면, 너희가 너희의 믿지 않음으로 그것을 내어 버려, 주의 영을 물리치지 아니할진대, 보라, 그것은 너희 가슴 속에서 부풀기 시작하리니, 이 부푸는 움직임은 너희가 느낄 때에, 너희가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기를—이것은 좋은 씨앗임에, 곧 그 말씀은 선함에 틀림없도다. 이는 이것이 내 영혼을 크게 하기 시작함이라. 참으로 이것은 나의 이해력을 밝혀 주기 시작하니, 참으로 이것은 내게 기쁨을 주기 시작하는도다 하리라.”<sup>7</sup>

그 다음 단계는 연구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간증을 넓히고 심화시키는 명상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를 내게 물어야 하나니.”<sup>8</sup>

우리는 어떻게 응답이 영감을 통해 오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응답은 우리 가슴과 마음에 생각과 느낌의 형태로 다가옵니다.<sup>9</sup> 때때로 응답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응답이 “세미한 소리”로 온다고 가르쳤습니다.<sup>10</sup> 주님은 “만일 그것이

옳으면, 내가 네 가슴을 네 속에서 뜨겁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것이 옳은 줄 느끼게 되리라.”<sup>11</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우리 가슴으로 느껴지는 생각과 느낌에 집중함으로써 응답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 생각과 느낌들이 성신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계시의 영의 첫 번째 암시에 유의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수한 예지가 여러분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홀연히 여러 생각을 떠오르도록 해 줄 수 있으며, 그러한 현상을 주목함으로써 그러한 일이 같은 날 혹은 오래지 않아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내 보이신 일들은 실현될 것이며,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계시의 원리 안에서 성장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sup>12</sup>

이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가 간증을 얻는 데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극적인 일로 간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간증을 얻기 위해 조셉 스미스의 시현과 같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한다면, 대개 기도 후에 조용하고도 확신을 주는 느낌과 생각의 형태로 오는 응답을 다른 일을 하느라 놓칠 위험이 커집니다. 이렇게 오는 응답들 역시 확신을 주고 강력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응답을 받고 영감이 어떻게 오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각자 스스로 배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리에 대한 간증을 구할 때 영감의 창이 열립니다. 기도는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냥 의문만 던지는 것만으로도<sup>13</sup> 그 창문은 열릴 것입니다. 경전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sup>14</sup>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 또한 그 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할인지 알리라.”<sup>15</sup>

장차, 개인적인 증거가 오고 우리는 우리가 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신의 권능으로 …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기 때문에 다른 세상적인 것들에서 멀어질 것입니다.<sup>16</sup> 이것은 옳은 것이며<sup>17</sup>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sup>18</sup> 우리는 역경의 시기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자신감을 갖고 행동하도록 힘과 위안과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sup>19</sup>

이 간증은 지도자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와 여자, 청소년, 어린이에게까지 적용됩니다. 다가오는 시대에서는 개인적인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청소년이었을 때, 저는 신권 의무를 다함으로써 제 간증이 자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저는 알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저는 공부했고 명상했으며 응답을 구했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제사였던 시절, 어느 날 성찬대 앞에 앉아 있을 때 저는 기도의 응답을 느꼈고 알았습니다.

지금은 삶을 영위하기에 위대한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의 날이고 우리의 시대입니다! 찬송가 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아]!  
사소한 일을 제쳐 두고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왕중의 왕을 섬기세.”<sup>20</sup>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영의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이자 구주이시며, 우리는 성신을 통해 신성한 인도를 받을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감을 받을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영감을 받을 때 그 음성을 인식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7:24~27 참조.
2. 교리와 성약 78:14 참조.
3. 교리와 성약 8:2~3 참조.
4.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간증”,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26~29쪽.
5.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케네스 존슨 장로가 “Coming to Know for Ourselves”에서 인용, *Ensign*, 2008년 7월호, 29쪽.
6. 엘머서 29:4.
7. 엘머서 32:28.
8. 교리와 성약 9:8.
9. 교리와 성약 8:2~3 참조.
10. 열왕기상 19:12.
11. 교리와 성약 9:8.
12. History of the Church, 3:381.
13.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To Learn and to Teach More Effectively”, *브리검 영 대학교 2007~2008년 연설(2008년)*, 7쪽.
14. 누가 복음 11:9, 또한 마태복음 7:7, 제3니파이 14:7, 교리와 성약 88:63~65 참조.
15. 요한복음 7:17.
16. 모로나이서 10:5.
17. 제3니파이 18:20 참조.
18. 교리와 성약 88:64 참조.
19. 엘머서 48:15~16 참조.
20. “Rise Up, O Men of God”, *영문 찬송가*, 323장.

# 성약의 권능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고난의 시기에 여러분의 성약이 최우선이 되고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되신 닐 엘 앤더슨 장로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분은 그 자리를 채우기에 합당합니다.

2007년 8월 15일, 페루에 닥친 거대한 지진으로 피스코와 친차에 있는 연안 도시들이 거의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교회의 다른 많은 지도자 및 회원들처럼, 친차 발콘시도 지부의 웬체슬라오 콘드 회장은 가족이 파손된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지진 발생 사흘 뒤, 칠십인 정원회의 마커스 비 내쉬 장로가 교회의 구호 노력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친차에 방문하여 콘드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발생한 손실과 피해자 원조에 대한 진척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콘드 회장의 아내인 파멜라가 그들의 어린 자녀 중 한 명을

안고 다가왔습니다. 내쉬 장로가 콘드 자매에게 아이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모두들 무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집은 어머니는 질문에 그녀는 간단히 “사라졌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살림살이는요?” 하고 그가 묻자, 콘드 자매는 “모든 것이 집 속에 파묻혔죠.”라고 답했습니다. 내쉬 장로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웃고 계시군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네, 저는 기도를 드렸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인봉 받았고, 이렇게 훌륭한 교회도 있고, 주님도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신앙과 영적인 힘을 보여주는 마스한 사례는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전 세계의 성도들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위대한 힘의 단적인 예이며, 삶에 대한 그러한 태도는 우리의 앞날에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에 맞설 수 있고, 비극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모범과 자애로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끊임없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으로 중요한 일들을 성취할 수 있고, 외해되는 도덕성과 격렬한 무신론에 대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방어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도덕적이고 영적인 힘의 근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근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맺은 성약을 통해서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협약이며, 그 협약의 조건은 하나님이 주십니다.(경전 안내서, “성약” 참조) 이 신성한 협약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결의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성결하게 하고 높이 들어올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성스러운 의식인 신권 의식들을 통해 성약을 맺음으로써 우리의 결의를 나타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겠다는 우리의 기꺼운 마음을 보이게 되는 기본적인 성약은 침례 의식을 통해 확인됩니다. 그 의식은 개별적으로, 이름을 호명하며 행해집니다. 이 의식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성약의 백성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해의 왕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 밖의 성스러운 의식들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지어진 성전에서 행해집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맺은 성약에 충실하면 우리는 해의 왕국뿐만 아니라 하늘 왕국에서 가장 높은 영광인 승영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거룩한 가능성들을 얻게 됩니다.(교리와 성약 132:20 참조)

경전은 종종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복음의 원리와 계명은 각 경륜의 시대마다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원한 성약의 기본 요소입니다.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그 계명 [또는 다른

말로 성약은 이것이라, 너희 땅의 모든 끝이여,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여 성신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 없이 서도록 하라”(제3니파이 27:20)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이 고난 속에서도 미소 짓게 하고, 역경을 승리로 이끌게 하며, “홀륭한 대업에 열심히 노력하여 … 많은 의를 이룩”(교리와 성약 58:27)하게 하는 힘을 부여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 은사와 축복으로 강화됨

첫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원리와 계명에 순종하며 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성약을 통해 약속하신 축복들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러한 축복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동적으로 받게 될 자원보다는 능동적으로 행해야 할 자원들을 공급해 줍니다.<sup>1</sup> 예를 들어, 우리의 육신을 돌보는 것에 관한 지혜의 말씀에서 주님의 계명은 제일 먼저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참으로 감추인 보화”(교리와 성약 89:19)로 우리를 축복해 줍니다. 더 나아가, 이 계명은 더 건강한 삶과 파괴적인 중독으로부터의 자유로 인도해 줍니다. 순종은 우리의 삶에 대한 더 큰 통제력과, 자유로이 움직이고 일하고 창조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물론, 세월과 사고와 질병이 불가피하게 우리를 쇠약하게 만들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복음의 율법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이러한 어려움을 상대하는 우리의 능력을 증대시켜 줍니다.

성약의 길에서, 우리는 지속적인 은사와 도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으며”(고린도전서 13:8, 모로나이서 7:46) 사랑은 사랑을 낳고 자애는 자애를 낳고 덕은 덕을 낳으며 결의는 충성심을 낳고 봉사는 기쁨을 낳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성약의 백성의 일원입니다. 니파이가 설명했듯이 “만일 사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진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양육하시며 그들을 강하게 하실!”(니파이전서 17:3) 것입니다.<sup>2</sup>

### 증대된 신앙으로 강화됨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성약의 삶이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순종하는 이들의 화평이 실망이나 재앙으로 말미암아 방해받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로움이 모든 손실과 고통을 막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읊을 때를 떠올려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약이 우리에게 힘을 제공해 주는 두 번째 방법을 알려줍니다. 성약은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모든 일을 감내하며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곧 신앙을 낳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기꺼운 마음도 어느 정도의 신앙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맺은 성약을 지키려 할 때 그 신앙은 증대됩니다. 첫째, 약속된 순종의 열매는 우리의 신앙을 확인시키는 증거가 됩니다. 둘째, 성신은

하나님의 기쁨을 전해 주며 우리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과 도움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무슨 일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공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침착하게 삶에 맞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별적으로 우리의 이름이 호명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이노소서 1:6, 이터서 3:12 참조)

이 경륜의 시대의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성약의 길을 고수하는 것이 우리가 시련의 시기에 필요로 하는 안도감을 제공해준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고대의 성도들이 모든 역경과 박해를 견뎌 내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재산을 버리고 소유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참혹한 형태의 죽음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에 있는 그들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그들에게 있는 줄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다.(고린도후서 5:1, *Lectures on Faith*, [1985년], 67쪽)

그들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할 때, 우리의 길이 옳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성신의 증거를 얻을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Lectures on Faith*, 69~71쪽 참조) 그 지식과 더불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역경을 우리의 유익으로 바꾸어 주시리라는 확신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무한히 커져 갑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러한 신앙으로 “크고 넓은 건물”에서 “부끄러워하[라]고”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견뎌 내고, (니파이전서 8:26~27 참조) 베드로와 옛 사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사도행전 5:41) 굳건히 섰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 가운데에 … 참으로, 나 주가 명하게 될 모든 희생으로 자신의 성약을 기꺼이 지키려 하는 자-그들 모두는 내게 받아들여지느니라. 이는 나 주가 그들로 맑은 시냇가, 좋은 땅에 심겨져 많은 귀한 열매를 생산하는 심히 열매가 풍성한 나무같이 결실을 맺게 하려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97:8~9)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성약을 맺은 자에게는 시련에 맞설 수 있는 신앙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련을 통해 더 큰 신앙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에] 가시”(고린도후서 12:7)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대에 강함이라”(고린도후서 12:8~10).<sup>3</sup>

### “경건의 능력”으로 강화됨

우리는 첫 번째로, 권능을 부여하는 축복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분과의 성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부여하시는 신앙의 은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약의 힘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마지막 한 가지는 신성한 권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성약의 결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영향력 즉, “경건의 능력”(교리와 성약 84:20)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권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선택의지를 행사하고 그것을 받겠다고 선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식들에 참여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더해진 빛과 영적인 힘에 동반되는 추가적 책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의식, 특히 성전에서 행하는 의식을 통해, 우리는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게 됩니다.<sup>4</sup> 이 “경건의 능력”(교리와 성약 84:20)은 개인적으로, 성신의 영향력을 통해서 옵니다. 성신의 은사는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침례, 즉 성령의 침례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거두어 가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에서 기인한 은혜의 사자입니다.(니파이후서 31:17 참조) 그것은 아담이 받은 “속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모세서 6:65) 은사입니다. 고대의 사도들은 성신의 도움으로 모든 일을 견뎌 냈고 신권 열쇠를 통해 복음을 그 시대의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약을 맺을 때, 성신은 우리의 보혜사이자 안내자이자 동반자가 됩니다. 성신의 열매는 “불멸의 영광의 평화로운 것들, 만물에 대한 진리, 만물에게 생명을 주어 만물을 살리게 하는 것, 만물을 알고 지혜, 자비, 진리, 정의, 심판에 따라 모든 권능을 지니는 것”입니다.(모세서 6:61)

성신의 몇 가지 은사들 중에는 간증, 신앙, 지식, 지혜, 분별, 계시, 기적, 병고침, 자애가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46: 13~26 참조)

여러분이 가르치거나 간증할 때 성신이 여러분의 말을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이 적의가 가득한 상황에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해야 할 말을 알려주고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100:5)라는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는 것은 바로 성신입니다.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다음 단계의 과제를 극복하도록 계시해 주는 것은 바로 성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느끼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성신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여러분의 성약의 정당성과 효능을 확인시키고 여러분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봉하는 것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서 작용하는 성신입니다.<sup>5</sup>

거룩한 성약은 강한 기독교인들을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신권 의식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그것들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약으로 맺은 약속들을 충실하게 지키십시오. 고난의 시기에 여러분의 성약이 최우선이 되고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노력하고 마음을 기울일 때 여러분을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시간과 방법대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며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아들의 이름으로 그분과 성약을 맺을 수 있도록 의식을 집행하는 신권의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경외할 때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실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여 넘치도록”(누가복음 6:38)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성신을 통해 여러분을 경건의 능력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항상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빈곤과  
불안과 고통에서 구해 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성약을 통하여, 여러분이 우리의 주님이자  
구속주이신 그분의 손에 든 도구가 되기를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그분의 모든  
창조물들의 행복을 계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이 계획하신 행복에 이르게 하는 본래의  
속성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분의 율법과 의식의  
수여자가 될 사람들에게 주어질 가장 큰 유익과  
영광에 이르지 않을 의식은 제정하지 않으셨으며,  
그러한 계명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지도  
않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교회사, 5:135)
2. 어떤 이들은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계명에 대한  
순종에서 오직 희생과 제약만을 보지만, 성약의  
삶에 자신을 자유롭게 기꺼이 바치는 사람들은 더  
큰 자유와 성취를 발견한다. 우리가 진실로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적은 계명이 아니라 더  
많은 계명을 추구한다. 우리가 배우고 살아가는  
각각의 새로운 율법이나 계명은 우리가 더 높은  
곳에 오르게 해주는 사다리의 계단이나 발판  
하나와도 같습니다. 복을 생활이야말로 훌륭한  
삶이다.
3. 사도 야고보도 그와 같은 교훈을 가르쳤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많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야고보서  
1:2~4, 조셉 스미스 역 성경)
4. 선지자 조셉이 커틀랜드 성전을 헌납할 때 드린  
기도에서 간청했을 때 다음의 기도가 계시의 예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 “또 기록하신 아버지여,  
우리는 당신께 비옵나니,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관능으로 무장하여 이 집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이 그들 위에 있게 하시며, 당신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있게 하시며, 당신의 천사들이  
그들을 돌보게 하시고.”(교회와 성약 109:22)
5. 앞서 언급한 커틀랜드 성전 헌납 기도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간청했다. “그리고 기록하신  
아버지여, 허락하사 무릇 이 집에서 예배드릴  
모든 자가 ... 그들이 당신 안에서 성장하며,  
성신의 충만함을 받 ... 계 하시옵소서.”(교회와  
성약 109:14~15) “성신의 충만함”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생 곧 해외 왕국의 영광의  
약속이니라. 이 영광은 장자의 교회의 것이니,  
참으로 하나님 곧 만유 가운데 가장 기록하신  
이의 것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것이라”(교회와 성약 88:4~5)라고  
묘사하신 것을 포함한다.

# 역경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단련하고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  
기회는 훌륭하고 성스러운  
특권입니다. 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 다르지만 적어도 한 가지  
공통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역경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꽤 오랫동안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안이  
비통에게 길을 내주고, 건강한 시절은 끝이  
오며, 역경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 인간사의  
필연입니다. 특히 삶이 한동안 순탄하게  
지속되고 있을 때, 고통이 찾아오거나 물질적  
안정을 잃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고 종종  
분노마저 일게 됩니다.

분노는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공평하지 않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양호한 건강과 안전하고 평온한  
느낌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듯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질 때,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용감한 사람조차도, 신체적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자신을 돌봐주던  
의료진들에게 울며 소리쳤습니다. “항상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 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라는 질문에 대한 아픔은 악전고투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 경우에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특히  
고통 받는 사람들이 비난 받을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될 경우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 후에 그 비통함은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재성에 대한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그러한 의심이 전쟁이나 기근의 시기에  
한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한 의심은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관심하거나 잔인하다고  
원망하며 그분으로부터 멀어질 때까지 자라고  
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느낌들은 신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앙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 살아 계시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심을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는 역경과 고난의 기회는 그분들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멸의 삶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은사, 즉 영생을 받도록 준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그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끝없는 후손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그들이 시험을 통해 영원히 영생을 누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후손들을 양육할 만한 신뢰를 그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그 은사와 신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대단히 어렵긴 하지만 의로운 선택을 함으로써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필멸의 삶에서 어려움과 시험이라는 경험을 헤쳐나감으로써 매우 큰 신뢰를 받을 준비가 됩니다. 그 교육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시험을 경험함으로써만 오게 됩니다.

이 교육에서 우리는 불행과 행복, 질병과 건강, 죄에서 오는 슬픔과 용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는 구주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만 오게 되며, 그분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어렵듯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역경 중에 구주께서 약속하신 위안을

기다려야 할 때,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고 도와야 하는지를 경험을 통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물론경은 그분의 위안의 권능에 대해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권능에 대한 신앙은 우리가 기도하고, 일하고,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 인내심을 줄 것입니다. 그분은 간단히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었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이를 배우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엘마서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가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그가 사망을 짊어지시리니, 이는 그의 백성을 결박하는 사망의 줄을 푸시려 함이요,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함이니라. 이제 영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따라 고난을 받으심은 자기 백성의 죄를 지심으로, 그의 구원의 능력을 좇아 그들의 범법을 지워버리려 하기 위함이니, 이제 보라,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증거니라.”<sup>1</sup>

여러분이 역경에서 여러분을 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친절의 참됨을 느낄 때에도, 그 역경은 여전히 여러분의 용기와 견디는 능력을

시험할지 모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도 감옥에서 고뇌에 차 울부짖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또 당신께서 숨으신 곳을 가리는 장막은 어디 있나이까? 어느 때까지 당신의 손이 멈추어 계시며, 당신의 눈, 참으로 당신의 순결한 눈으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종들이 당하고 있는 부당한 처사를 영원한 하늘에서 바라보시며 그들의 외침이 당신의 귀를 파고들게 하시겠나이까?”<sup>2</sup>

다음과 같은 주님의 답변은 저에게 도움이 되었고 어두운 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이, 네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역경과 네 고난은 잠시 뿐이리니, 그리고 나서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요, 너는 너의 모든 원수를 이기리라. 네 친구들은 네 곁에서 있나니, 그들은 따뜻한 마음과 정다운 손으로 또다시 너를 환호하며 맞이하리라. 너는 아직 욕과 같지는 아니하니, 네 친구들은 욕의 친구들이 그에게 한 것같이 너를 대적하여 논쟁을 벌이지 아니하며, 네게 범법을 지우지도 아니하느니라.”<sup>3</sup>

저는 우리가 참으로 영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간증으로부터 신앙과 용기가 생기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충실한 제자들을 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역경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영생에 합당하게 되는 제자들은 역경 중에도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최근의 경제 위기로 직장을 잃은 한 젊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와 똑같은 기술을 가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필사적으로 직장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의연한 자신감을 보고 저는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가족을 부양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도움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 자신의 삶을 돌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어려운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해주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엘마서를 읽으면서 그러한 고찰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주님께서 역경을 통해 사람이 복음을 찾도록 준비시키셨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겪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었던 자에게 엘마가 행한 기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엘마에게 그 사람들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거절당했다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이제 엘마가 이를 듣고, 몸을 돌이켜,

자기 얼굴을 바로 그에게로 향하고, 큰 기쁨으로 바라보았으니, 이는 그들의 고난이 진실로 그들을 겸손하게 한 것과 또 그들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음이라. 그리하여 그가 다른 무리에게 더 말하지 아니하고, 그 손을 내밀고, 자기가 바라보는 바 진실로 뉘우치는 자들에게 외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너희는 마음이 겸손하도다, 만일 그렇다면 너희가 복이 있도다.”<sup>4</sup>

이 경전 구절은 더 번영하는 시기에 도 역경에 대한 준비를 갖추었던 사람들에게 대한 칭찬의 말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스스로 겸손하게 되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 같은 자는 복이 있으리니 참으로 자기의 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어찌할 수 없이 겸손하게 되는 자들보다 훨씬 더 복되리라.”<sup>5</sup>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나눴던 그 젊은이는 살아 계신 선지자들이 경고해 왔던 역경에 대비하여 식량을 비축하고 약간의 돈을 저축하는 그 이상의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까운 미래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임을 알았기에 그 도움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직장을 잃은 바로 그날, 저는 그의 아내를 만나 많이 걱정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활기를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막 감독실에서 십일조 접견을 마치고 나오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온전한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아직 말하기엔 조금 이르지만, 그들의 모습이 자신 있어 보였으므로 저는 그들이 “결국엔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극이 그들의 신앙을 감아먹지는 못했습니다. 신앙을 시험했고, 단지 신앙을 강하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평안이 폭풍 가운데 이미 주어졌습니다. 다른 기적들이 분명히 따라올 것입니다.

항상 주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강하게 하고 순결케 만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위안을 마련하십니다. 종종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특히 힘들어 보일 수도 있는 어떤 일을 하라는 영감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시험 중 하나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와 사별하는 것입니다. 헝클리 회장님은 헝클리 자매님이 그분 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았을 때, 그 아픔을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죽음으로 헤어진 사람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분은 과부의 고통을 보셨으며 지상에서의 경험을 통해 과부들의 필요사항을 아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 중에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아들을 잃게 된 홀로된 자신의 어머니를 보살펴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부인을 잃은 남편들의 필요사항과 남편과 사별한 아내들의 필요사항을 느끼십니다.

우리 대부분은 관심이 필요한 과부들을 알고 있습니다. 한 나이든 과부가 영감을 받아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다른 과부를 위로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위로가 필요했던 과부가 오히려 다른 이를 위로하기 위해 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서로를 격려하라는 영감을 주심으로써 두 과부를 돕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님은 두 과부 모두에게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의 종들의 가르침과 간증에 반응했던, 앨마서 34장에 나오는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개종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가난한 백성들을 보내어 그들의 능력 밖의 일이자 그들도 여전히 필요로 했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자신들에게 허가하시기를 바랐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종을 통해, 주님은 가난한 개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어려운 임무와 엄격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만일 궁핍한 자와, 헐벗은 자를 물리치며, 병들어 고난당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너희가 가진 것이 있을 때, 곤궁에 처한 자들에게 너희의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이러한 일 중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의 기도는 헛되고, 너희에게 무익하며, 너희는 신앙을 부인하는 위선자와 같음이라.”<sup>6</sup>

이것은 자기 자신조차 큰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버거운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혼 초에 바로 그러한 일을 하라는 영감을 받았던 한 젊은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와 그 아내의 얼마 안 되는 생활비가 거의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보다 더 가난한 다른 부부를 보게 되었고, 그는 자신들도 재정적으로 부족했지만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아내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평안이라는 약속된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후에 소망했던 것보다 더 많은 번영의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 즉 조금 가졌거나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찾아 돕는 그들의 행동은 결코 그치지 않았습니다.

잘 견디면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나이와 질병은 우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도 큰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딸들이 시집가기 전에 우리의 감독으로 봉사했던 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딸들은 산에서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그가 단순한 간증을 나누었을 때 받은 느낌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는 감독으로서 제 딸들을 사랑했고, 그들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감독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다른 주에서 감독으로 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 보았던 그 이전 와드의 회원들도 제 딸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를 표하고 신권 축복을 해주기 위해 가끔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건강이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고통받았던 모든 질병을 기억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속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 방문할 때마다 그는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제가 항상 위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등과 다리 문제로 걷기 위해서는 지팡이를 짚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에 왔고, 항상 문 옆에 앉아 미소로 일찍 도착하는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집의 뒷문을 열었을 때 우리집 차도로 올라오던 그를 보고 느꼈던 경이로움과 존경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시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도록 쓰레기통을 길거리 지정된 장소에 내놓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그것들을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손으로 쓰레기 수거가 끝난 우리집 쓰레기 통을 끌고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손에는 중심을 잡기 위해 지팡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훨씬 더 도움이 필요한 때조차도 저를 도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미소를 지으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결국 간호사와 의사의 간호를 받아야만 할 때가 되었을 때 저는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통 중에도 미소 지으며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아들과 저는 침대에 누워 여러 튜브와 병들에 연결되어 있는 그에게 신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하나님이 인생에서 그에게 시키신 모든 일을 끝마치고 모든 시험을 통과할 힘과 시간을 갖게 되리라는 약속이 담긴 축복을 인봉했습니다. 제가 침대 곁을 떠나려 발걸음을 떼었을 때, 그는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잡은 손의 힘과 “그렇게 하겠네.”라고 말한 그의 또렷한 목소리에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곧 그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는 그의 완전한 심판관이시며 우리의 심판관이신 구주를 보게 될 영광스러운 곳으로 갔습니다. 그의 장례식에서 말씀하던 중에 바울의 다음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바울도 제 이웃이자 친구가 간 그곳에 자신이 갈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기가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토요일 오후 모임  
2009년 4월 4일

# 교회 역원 지지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sup>7</sup>

저는 제 친구가 자신의 시험을 통과했으며 기쁨에 찬 얼굴로 그의 심판관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단련하고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셨습니다. 구주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분의 속죄는 우리가 그분이 주신 계명과 우리가 맺은 성스러운 성약을 지킬 때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일어설 힘을 주실 수 있고,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몬슨 회장은 주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모든 신권의 열쇠를 지니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참된 교회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고, 서로를 고양시키며, 우리의 인생 동안 그분께서 만나게 하신 고통받는 친구들을 위로함으로써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알마서 7:11~13.
2. 교리와 성약 121:1~2.
3. 교리와 성약 121:7~10.
4. 알마서 32:6~8.
5. 알마서 32:15.
6. 알마서 34:28.
7. 디모데후서 4:5~8.



**형** 제 자매 여러분, 토마스 스펜서 몬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일회장단 제1보좌로, 디이터 프레드릭 우흐트도르프를 제일회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보이드 케이 패커를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으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제일회장단의 보좌들과 십이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닐 엘 앤더슨 장로를 칠십인 회장단에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2009년 5월 1일부로 다음의 지역  
칠십인들을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구텐베르그 지 아모림, 윌포드 더블류  
앤더슨, 코이치 아오야기, 호세 이 보자, 지  
린 브랭클리, 존 제이 칩먼, 최윤환, 클레이튼  
엠 크리스티슨, 에네스토 에이 다 실바,  
제임스 던롭, 데이비드 더블류 이가, 이 리  
양체, 에드가르도 이 페르난도, 루이즈 시  
프란차, 조셉 티 히컨, 마이클 에이치 홈스,  
피타 에프 호포아테, 토루 호타, 윌리엄 케이  
잭슨, 빈 키쿠치, 미구엘 아이 리, 이용환,  
알프레도 헬리튼 데 레모스, 제임스 비  
마르티노, 라몬트 더블류 문, 켄트 에이치  
머독, 브렌트 에이치 닐슨, 알렉산더 아  
누네즈, 러셀 티 오스구토프, 에딜슨 디 폴라  
파렐라, 페드로 제이 펜하, 에를 에스 피펜,  
닐 이 피츠, 게리 엘 포카, 데일 지 렌런트,  
로널드 에이 스톤, 진 테판, 알렌 피 영.

그분들이 보여 준 훌륭한 봉사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에이 로저 메릴 형제, 다니엘 케이 저드  
형제, 윌리엄 디 오스월드 형제를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에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한 찰스 더블류 달퀴스트 형제, 딘 알  
버게스 형제, 마이클 에이 나이더 형제를 본부  
청남 회장단에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한 모든 본부 주일학교 및 본부 청남  
위원회의 일원들도 해임됩니다.

이 형제님들이 보여 준 헌신적인 봉사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를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의 일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새로운 일원으로  
머빈 비 아놀드, 최윤환, 브렌트 에이치 닐슨,  
데일 지 렌런트, 마이클 티 링우드, 조셉  
더블류 시타티.



**멕시코, 옥사카, 주치탄**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새로운 일원으로  
윌포드 더블류 앤더슨, 코이치 아오야기,  
브루스 에이 칼슨, 브래들리 디 포스터,  
제임스 비 마르티노, 켄트 에프 리차즈,  
그레고리 에이 슈바이처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지역 칠십인으로 마누엘 엠  
아구스티넨, 빅터 에이 아스쿠나비에타, 주안 시  
아빌라, 배덕수, 데니스 시 브림홀, 토마스 엠  
체링턴, 새뮤얼 더블류 클락, 칼 비 쿡, 케빈  
알 던컨, 로돌포 시 프랑코, 게렛 더블류 공,  
마우로 주눗, 래리 에스 카처, 본 지 킷치,  
카츠미 쿠수메, 저먼 라보리엘, 제이  
크리스토퍼 랜싱, 데이비드 이 르수에르,  
파울로 시 로우레이로, 스티븐 제이 런던,  
드미트리 마첸코, 에이브러햄 마르티네즈,  
휴고 이 마르티네즈, 프리마디 에이 멘사,  
크리스토퍼 비 문데이, 히로후미 나카츠카,  
오희근, 치카오 오이시, 알레한드로 에스  
파타니아, 레나토 엠 페틀라, 마르코스 에이  
프리토, 조나단 시 로버츠, 제이 크레이그  
로우, 만프레드 슛츠, 월터 시 셸던, 티  
마라마 타라티, 워렌 지 테이트, 헤스본 오  
우시, 잭 디 와드, 랜디 더블류 윌킨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새로운 본부 주일학교 회장으로 러셀  
트렌트 오스구토프, 제1보좌로 데이비드 메릴  
맥쿱키, 제2보좌로 매튜 오텐슨 리차드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새로운 본부 청남 회장으로 데이비드  
리roi이 백을, 제1보좌로 래리 마이너 김슨을,  
제2보좌로 에이드리언 오초아 키타나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역시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그 외 현재 구성되어 있는 총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그리고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문슨 회장님, 제가 지켜본 바, 컨퍼런스  
센터에서는 모든 지지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와 신앙,  
그리고 헌신과 기도에 감사 드립니다.

칠십인으로 부름 받으신 홀스트롬 장로님과  
새로운 본부 주일학교 및 청남 회장단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까지  
올라오는 길이 꽤 멀군요.

오늘 아침 이 경륜의 시대에 97번째  
사도로 부름 받으신 앤더슨 장로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도의 부름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올라오는 모습을 본 칠십인 정원회  
일원들은 경전에서 십이사도가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불려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바로 그분들입니다.(교리와 성약 107:38  
참조)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

# 2008년도 교회 감사부 보고서

보고자: 로버트 더블류 캔트웰  
교회 감사부 관리 책임자

수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일회장단

**준** 경하는 제일회장단께, 교리와  
성약 120편에 나오는 계시에  
규정된 대로 십일조 지출  
평의회가 교회의 자금 지출을 승인합니다. 이  
평의회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고 감리 감독단으로 구성됩니다. 이

평의회는 교회 부서 및 그 운영을 위한 예산을  
승인합니다. 교회 부서는 교회 정책과 절차에  
따라 승인된 예산에 맞게끔 기금을  
지출합니다.

교회 감사부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 및  
교회의 자산 보호에서 관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록과 시스템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교회의  
모든 다른 부서와 운영 기구들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공인 회계사, 공인 내부 감사자, 공인  
정보 시스템 감사자, 그리고 그 외 자격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집행한 감사 자료에 근거해  
2008년 동안의 현금 영수, 지출 및 교회  
자산이 모든 물질적인 면에서 적합한 회계  
업무와 승인된 예산 그리고 교회 정책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기록되었음을 밝힙니다.

삼가 제출합니다.

교회 감사부

로버트 더블류 캔트웰

관리 책임자 ■



# 2008년도 통계 보고서

보고자: 브룩 피 헤일즈  
제일회장단 비서

**형** 제 자매 여러분, 제일회장단은  
2008년 12월 31일부로 교회의  
성장과 활동에 대한 다음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교회 단위 조직 수

스테이크 .....	2,818
선교부 .....	348
지방부 .....	622
와드 및 지부 .....	28,109

## 교회 회원수

교회 회원 총수 .....	13,508,509
증가된 기록상의 자녀 .....	123,502
침례 받은 개종자 .....	265,593

## 선교사

전임 선교사 수 .....	52,494
----------------	--------

## 성전

2008년에 헌납된 성전 .....	4
---------------------	---

(아이다호 렉스버그, 브라질 쿠리치바, 파나마 파나마시티, 아이다호 트윈 폴스) 2008년에 재헌납된 성전 .....	1
(멕시코 멕시코 시티) 12월 31일 현재 운영중인 성전 수 .....	128

## 작년 4월 이후 작고한 교회의 저명 인사들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위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엘 에번즈 장로의  
미망인 앨리스 톨리 에번즈 자매, 명예 총관리  
역원이었던 제이 토마스 파이언스 장로, 전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더글라스 에이치  
스미스 장로, 전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제이 벨라드 위시번 장로의 부인이었던 해리엇  
바버라 위시번 자매, 전 교회 교과 과정부  
책임자이자 *Encyclopedia of Mormonism*의  
총 편집인이었던 대니얼 에이치 루들로우  
형제. ■



# 과거에서 교훈을 배움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운다면 순종과 신앙, 영의 증거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자신의 간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우면서도 때로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는 손자 한 명에게 연차 대회에서 할 말씀이 적힌 텍스트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텍스트는 문자를 보낸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 착각을 한 손자는 혼란스러워 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연차 대회 말씀을 문자로 보낸다고요? 전 할아버지가 연차 대회에서 직접 말씀하는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문자로 보내기가 더 쉬울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손자 아이와 제 다른 손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메시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이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래 전에 제가 사업을 했을 때, 저는 부친의 권고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영의 속삭임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값비싼 교훈을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부친과 자동차 사업을 하고 있었고, 포드 자동차는 새로 출시한 신차를 판매할 판매 영업자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포드 임원들은 굉장한 인기를 끌 차종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신차 시연에 제 부친과 저를 초대했습니다. 차들을 보고 난 후에, 업계에서 35년간의 경험을 쌓은 부친께서는 저에게 그 차의 판매 영업자가 되는 것에 부정적이셨습니다. 하지만 포드 영업 담당자는 매우 설득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에셀이란 차종의 첫 번째이자 사실상 마지막 판매 영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셀이란 차종을 모른다면, 할아버지께 여쭙어 보십시오. 그분들이 말해 줄 것입니다. 에셀은 엄청난 실패작이었다고 말입니다.

이 경험에는 여러분 모두를 위한 강력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귀 기울이고 배우려 할 때,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몇몇의 가르침들은 여러분들을 앞서 간 분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걷고 있는 곳을 걸었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응한다면, 그분들은 여러분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선택을 하도록 이끌 것이며 여러분을 파멸시킬 수 있는 선택들을 피해 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서 간 부모님들과 다른 분들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은 그분들의 삶에서 여러분이 힘써 따라야 할 신앙과 결의, 근면, 헌신, 희생의 모범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고찰하고 배우는 것은 항상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전문직종은 연수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 기간은 열정을 가진 사원들이 노련한 베테랑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수년간의 경험과 축적된 지혜를 배우는 기간입니다. 프로 스포츠에서 흔히 신인 선수는 벤치에 앉아 경험이 많은 선배 선수들을 보며 배웁니다. 새로운 선교사들은 선임 동반자와 함께 일하도록 지명되어 선임자의 경험을 통해 주님께 효과적으로 봉사하는 올바른 방법을 배웁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의 식견만으로 과감히 결정해야 하거나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 그저 스스로 최선을 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신 기술에 대해서는 제 세대 사람들 중에서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현대 기술에 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는 우리보다 그것에 대해 잘 아는 누군가를 찾아야만 하는데, 그것은 대개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에게 부탁하게 됨을 뜻합니다.

어린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자 간증은, 여러분의 영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경전에서,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과 간증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나 현재에나 이러한 말씀이 주로 연로한 분들을 통해서 온다고 해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분들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더욱 가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말씀들은 오랜 세월 동안 독실한 삶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운 분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조지 산타야나가 한 유명한 이 말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자들은 그것을 반복할 운명에 처한다”(Familiar Quotations, 존 바트레트 편집, 15판, [1980], 730쪽) 실제로 이 인용문은 여러 형태로 전해지고 있으며, 그 중 다른 하나는 이렇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 밖에 없다.” 정확한 문구가 어떻든 간에, 그 이면의 뜻은 의미심장합니다. 과거로부터 배워야 할 위대한 교훈들이 있으며, 여러분은 과거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을 되풀이 함으로써 영적인 힘을 고갈시키지 않도록 그것들을 배워야만 합니다.

후기 성도가 아니라도, 심지어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역사의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번이고 우리는 의로움 뒤에 악이 뒤따르는 순환을

보게 됩니다. 그와 유사하게 물몬경에 나오는 대륙의 고대 문명들 역시 정확히 같은 패턴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움은 번영을 낳고, 번영은 물질적 안락을 낳고, 물질적 안락은 탐욕을 낳고, 탐욕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사악함과 도덕적 붕괴를 낳아, 마침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큰 재앙으로 인해 겸손해지고, 회개하며, 변화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신약의 기간 동안에도, 동일한 역사적 방식이 여전히 반복됩니다. 이 때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사도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왜해가 너무도 컸기에 그 시간을 대배도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그 기간은 암흑기로 일컬어지는 수세기 동안의 영적인 침체와 무지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저는 역사적으로 여러 번 발생되어 온 이러한 배도와 영적인 암흑기에 대해 분명히 해 두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그들 모두가 복음의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영적인 빛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등을 돌리시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자녀들이 집단적으로 그분에게 등을 돌릴 때 영적인 어둠이 초래됩니다. 영적인 어둠은 개인과 지역 사회 및 국가와 문명 전체의 잘못된 선택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사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거듭 증명되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이 패턴이 주는 위대한 교훈은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이 우리 자신들과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사랑에 찬 하나님의 열망은 매 경륜의 시대마다 살아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 복음 진리가 지상에 회복된다는 놀라운 사실에 명백히 나타납니다. 1800년대 초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복음을 회복하신 것은 가장 최근의 실례에 불과합니다. 이와 유사한 회복의 사건들이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 이전 시대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된 이래로 179년간이란 시간은 모든 면에서 특별했습니다. 유사 이래로 과학과 기술에서 그토록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시기는 결코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학의 진보는 전 세계로의 복음 성장 및 확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물질주의와 방종과 도덕의 퇴락을 가져오는 데에도 일조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취향이나 공중 예절을 구분 짓는 경계 자체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개념 자체를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관념들로 요동치는 시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못매를 맞고 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불신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악한 선택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을 경고하려 할 때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며, 그들의 가장 성스러운 의식들과 소중한 가치들은 공개적으로 조소를 받습니다.

젊은 나이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반복, 즉 의로움이 번영을 낳고, 번영이 물질적 안락을 낳고, 물질적 안락이 탐욕을 낳고, 탐욕이 교만을 낳고, 교만이 사악함과 도덕적 붕괴를 낳는 반복이, 구약과 신약과 물론경에서 거듭 보였던 것과 같은 패턴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교훈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여러분이 내릴 개인적인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 의지에 따라,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무시하고 이전 세대가 경험했던 아픈 실수들과 비극적인 함정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잘못된 선택에 따른 파괴적인 결말을 직접 겪을 것인가는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결정해야만 합니다.

힐라맨의 아들들, 모로나이, 조셉 스미스, 굳건한 개척자들과 같은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들의 고귀한 모범을 따르고 그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계속해서 충실하다면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더 나아지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저는 여러분이 현명하여 과거에서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니파이나 야곱처럼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레이맨이나 레뮤엘처럼 지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앨마서 41:10) 것을 깨닫고자 가인이나 개다이엔톤의 길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을 양육하기에 적절한 곳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역사회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의 교훈을 배운다면 암흑에 빠져 실족할 위험을 겪지 않고도 담대하게 빛 가운데 걸어들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여러분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은 그분들로부터 배우며, 그런 뒤 스스로의 경험과 기회를 통해 더욱 의로운 세대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운다면 순종과 신앙, 영의 증거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러시아, 모스크바

자신의 간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와 문화의 측면에서만 이러한 과거의 교훈들을 배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의미와 메시지가 새겨지지 않는 한, 책에 인쇄되어 있는 이름과 날짜, 일어난 사건의 순서 등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간증이라는 자양분과 신앙이라는 물을 공급받을 때, 과거의 교훈들은 여러분 가슴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자신의 한 부분으로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여 그것은 늘 그렇듯이 다시 여러분 자신의 개인 신앙과 간증으로 돌아옵니다. 젊은 나이의 형제 자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차이를 만드는 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은 과거의 실수들이 반복되는 것을 피하고 영성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성신의 속삭임에 마음을 열고 그것을 잘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과거의 교훈을 이해할 것이며 그것들은 간증의 힘을 통해 여러분 영혼 속에서 불타오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간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간증을 갖게 해 주는 최신 기술이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구글 탐색을 통해 간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신앙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생생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간증을 얻는 방법은 오래 전부터 항상 그래왔던 것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 과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소망과 연구와 기도와 순종과 봉사를 통해 옵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와 현재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들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 손자들과 세상 어느 곳에 있던 교회의 모든 청소년들이 과거로부터 위대하고 영원한 교훈을 배우으로써 미래에 기쁨과 행복과 화평을 찾을 수 있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우리 아버지의 계획-모든 자녀들에게 충분한 계획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의 여정이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우리의 목적지는 진실로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이** 필멸의 삶에 힘든 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진실로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sup>1</sup>

오늘 오후,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걸림돌”에 대해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아버지의 계획이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얼마나

충분한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미국과 전 세계에서 우리 신앙과 믿음에 대한 논의가 비약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교회 역사 전반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1863년,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는 뉴욕행 아마존호 여객선에 올라 탔습니다. 그의 목적은 미국 서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주하는 후기 성도 개종자들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개종자들이 이주한 상태였으며, 많은 사람들, 특히 영국 대중 매체가 개종자들과 그들의 믿음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가 비우호적이었습니다.

디킨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간증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배에 올라탔다. 매우 놀랍게도, 그들은 그렇지가 않았다.”<sup>2</sup>

개종자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관찰한 디킨스는 그들에게 감명받았고, 대부분이 노동자였던 이 개종자들에 대해 “그들의 위치에서, 그들은 영국에서 선택된 사람들이자 영국의 꽃이다.”<sup>3</sup>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바라보는 정반대의 두 가지 평판이 존재해 왔습니다. 의로운



회원들과 그들의 삶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호의적으로 비추어졌습니다. 후기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알거나, 가까이에서 지켜볼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150여 년 전, 찰스 디킨스가 보고했던 것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양시켜 주는 회복된 교리 덕분에, 회원들은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교회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가르침대로 생활할 때 우리는 호의적으로 비추어집니다. 회원들이 이러한 가르침대로 생활하지 않을 때, 그것은 오히려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sup>4</sup>

의로운 회원들에 대한 호의적인 평판과는 달리, 우리 교회에 대한 설명과 교리가 자주 그릇되고, 불공정하고, 신랄하게

다뤄졌습니다. 일반적인 기독교 자체에 대한 일부 표현도 매우 신랄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sup>5</sup>

우리 교리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놀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음성을 높여 하나님을 저주하고...”<sup>6</sup> “사람들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내게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런던의 버스에 붙여진 광고는 종교에 대한 양극화된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부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무신양자들은 런던의 빨간 이중 버스에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라는 대형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이에 맞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분명 존재하신다.”라는 말과 삶을 고양시키는 메시지를 광고에 실었습니다.<sup>8</sup>

무신론자들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기적과 구주의 동정설과 부활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합니다. 그들은 이 사건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낸 것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회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자에 의해 하늘의 계획이 진행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이 없습니다.<sup>9</sup>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종교에 개방적인 훌륭한 사람들이 그릇된 교리로 인해 낙담하거나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교리에 대해, 매우 훌륭한 일부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참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늘이 닫혀 있고, 더 이상의 계시나 경전,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이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널리 알려진 이러한 믿음이 경전에 입각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걸림돌입니다.<sup>10</sup>

한 최신 베스트셀러에서, 저자는 그의 추론을 유추하기 위해 유럽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모든 백조가 흰색이라고 믿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호주에서 다른 색의 백조가 발견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저자는 예상치 못했지만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설명하는 데 이러한 유추를 적용했습니다.<sup>11</sup> 이 유추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경류의 시대에 계시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 진지하게 알아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한 개종자는 이 사실이 그가 교회를 알아볼 당시에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동안, 저는 선지자와 사도들이 다시는 이 지상에 없을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조셉 스미스를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게는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했을 때, 그는 “복음이 이 지상에 회복되었고 조셉 스미스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간증을 갖게 되었”<sup>12</sup>이라고 말했습니다.

종교에 개방적인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문제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올바른 교리와, 대부분의 인류가 영원한 지옥에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는 그릇된 교리를 융화시키는 데 혼란을 겪습니다.

이 문제는 저의 고조 할아버지인 피냐스 월콧 쿵도 겪었습니다. 그는 1820년에 코네티컷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지에, 그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주님을 섬기겠다는 성약을 그분과 맺을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많은 교회에 참석했고, 한 교회로부터는 “주님을 증거하고 … 교회에 가입하고 … 기독교인이 되리”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 어디에 가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교회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한 교리가 그에게 특별히 중요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인류라는 가족의 관대한 구원을 바라는 나를 비난했다. 하지만 나는 주님께서 일부는 구원받고 대다수는 영원한 저주를 받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sup>13</sup> 이런 교리 때문에 그는 개신교에서 제명되었습니다. 1844년, 후기 성도 교회 선교사들이 참된 구원의 교리를 가르쳤을 때, 그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피냐스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주님의 사랑에 찬 자비와 그분의 행복의 계획에 대한

믿음은 그 이후에 자신들의 교회의 가르침이 불분명했던 시기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에 의해 공유되었습니다.

성공회의 지도자이자 정통파 학자이며 그리스도의 생애의 저자이기도 한 프레드릭 파라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의 강연에서 지옥에 대한 개신교의 일반적인 가르침은 그릇된 것이라고 말하며 애석해했습니다. 그는 무한한 고통과 영원한 저주를 포함한 지옥의 정의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영어로 옮기면서 생긴 킹제임스판 성경의 오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란 표현은 영문 번역에 나오는 지옥과 저주의 정의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sup>14</sup>

테니스 경은 그의 시 ‘인 메모리엄’에서 마음에서 우리나라를 정서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일말의 선이 악의 마지막 목적지가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쓴 후, 글을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을 마치시면,  
더 이상 아무것도 목적 없이 방향하지 않고,  
그 어떤 생명도 파괴되거나  
쓰레기처럼 공허 속에 버려지지 않으리라*<sup>5</sup>

조셉 스미스가 계시를 받고 교회를 조직했을 당시, 대다수의 교회들은 구주의 속죄가 인간들 대부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일반적인 통념은 소수만이 구원을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끔찍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끝없는 고통의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sup>16</sup> 선지자 조셉에게 계시된 위대한 교리를 통해 구원의 계획이 이 생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듣지 못한 사람들과 책임질 수 있는 연령 이전에 사망한 아이들 및 이해력이 없는 자를 비롯한 온 인류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sup>17</sup>

죽음을 맞았을 때, 의로운 영은 낙원이라 불리는 일시적인 상태에 거하게 됩니다. 알마

이제는 “낙원은 의로운 영이 모든 곤경과 모든 염려와 슬픔에서 놓여 쉬[는] … 안식의 상태, 평화의 상태”<sup>18</sup>라고 가르칩니다. 의롭지 않은 영들은 때때로 지옥이라 일컬어지는 영옥에 거하게 됩니다.<sup>19</sup> 영옥은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의 … 분노”가 부활의 때까지 거하게 될 참담하고 어두운 곳이라 묘사되어 있습니다.<sup>20</sup>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모든 영들은 태어날 때부터 궁극적으로 부활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영혼과 육신은 재결합하여 이 지상에서의 상태를 초월하는 영광의 왕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sup>21</sup> 예외는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한 자들에게 적용됩니다.<sup>22</sup> 부활의 때에, 영옥 또는 지옥은 간혀있던 영들을 내어 놓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그리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그리고 세상을 성결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모든 불의한 것에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려고”<sup>23</sup>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sup>24</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더 간결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sup>25</sup>

무엇보다도 구주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첫번째 시현에서 현존하는 교회들에 대해 말씀하시며 조셉에게 “그 중 어디에도 가입해서는 안 [되는데] … 이는 그들이 모두 그르기 때문”<sup>26</sup> 이라고 가르치신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 후, 구주께서는 구원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교리와 같은 구원의 원리들이 담긴 그분의 참된 교리를 회복하실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sup>27</sup>

우리의 교리는 다른 기독교인들과는 현저하게 다르지만, 우리는 다른 교회들에 대한 비판을 삼갔습니다. 그들은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인류를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가 그들의 회원들에게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Washington Post*지의 기자가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우리 교회의 한 모임에 방문했습니다. 그 기자는 한 신회원과 인터뷰하며 그의 개종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는] … 시내버스에서 뛰어내려서 [후기 성도 교회] 건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 그는 [예배당] 안에서 들은 것, 특히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내용을 그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 것을 보고, 곧바로 좋은 느낌을 갖게 되었다.”<sup>28</sup> 이것은 교회가 조직된 이래로 교회에 개종한 수많은 사람들의 느낌을 대변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우리들과 다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생활하시길 호소하는 바입니다. 다른 신앙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과 서로 정중한 예의와 상호 존경을 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sup>29</sup>

또한 우리 교회 회원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충실하고 활동적인가에 관계 없이 그들 모두에게 사랑과 친절을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주께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sup>30</sup> 이 말씀은 특히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해당됩니다. 우리의 의무는 사랑하고 가르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모든 사람을 위해 … 거저 주셨”지만 “그의 백성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을 설득하여 회개하게 하라[고]”<sup>31</sup>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의 소망은 구원과 불멸뿐만 아니라 해의 왕국에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할 때에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sup>32</sup> 구주께서는 “이는 만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그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 나로 인해 영화롭게 될

것임이라.”<sup>33</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킨스가 아마존호에 타서 만난 초기 유럽 개종자들은 많은 걸림돌들을 극복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계시가 전해지고 선지자와 사도들이 다시 지상에 거한다는 간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송고한 운명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어야 했던 험한 여정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사실 솔트레이크 계곡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목적지는 해의 왕국에서의 승영이 뒤따르게 될 낙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와 지금의 후기 성도들이 신앙과 기대를 가지고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의 마지막 절을 부르는 이유입니다.

*“행복한 날 여행이 끝나는  
그날이 오리니  
슬픈 일과 고난은 없으며  
기쁘게 살리라”*<sup>34</sup>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한 포용적이고 사랑이 충만한, “산자와 죽은 자를 구원하고 저주받은 자들을 구하고 회개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는”<sup>35</sup>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우리의 목적지는 진실로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형언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에 대한 저의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 주

1. 요한복음 16:33.
2. 찰스 디킨스, “Uncommercial Traveller”, *All the Year Round*(1863년 7월 4일) 449쪽; 또한 데이비드 엠 더블류 피콕, *The Pick and Flower of England*(2001년), 2쪽 참조.
3. *All the Year Round*(1863년 7월 4일), 446쪽.
4. 엘머서 4:10 참조.

#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케빈 더블류 피어슨 장로  
찰십인 정원희

신앙의 집에서는 두려워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신앙으로 살기를 선택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복음의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는 동안 성신이 함께 하시길 겸손히 바랍니다. 제 생애 동안 참된 신앙과 충실함의 위대한 모범을 볼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와 사랑을 표합니다. 훌륭한 부모님과 가족, 신권 지도자들과 사랑하는 선교사들, 훌륭한 자녀들과 제 사랑스러운 영원한 동반자에게 제 가슴 깊은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으로서 더 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와 소망을 느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 삶에서 지금보다 더 절실히 신앙을 필요로 했던 시기가 없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 의

교리를 이해하도록”(교리와 성약 68:25)가르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복음 원리로서의 신앙을 인식하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사물 또는 사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Bible Dictionary, “Faith”, 669쪽)입니다. 참된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행위와 권능의 원리(Bible Dictionary, 670)입니다.” 그것은 단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필요로 합니다. 신앙은 성신을 통해 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은사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성한 속성과 온전한 품성, 그분의 가르침, 속죄, 부활, 그리고 신권 권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원리들에 순종함으로써, 그분과 그분의 성임 받은 종들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두터워지고, 그분이 약속하신 축복들에 대한 확신이 커지게 됩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줄 수 있는 인생의 토대도 없습니다. 불확실하고 어려운 시기에, 신앙은 참으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영적인 은사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 훈계, 운동, 예술, 물질적인 재산을 주더라도, 만일 우리가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준 것은 거의 없는 셈입니다.

5. 폴 존슨, “Militant Atheism and God,” *Forbes Magazine*, (2007년 10월 8일자), 27쪽; 존 그레이, “Faith in Reason: Secular Fantasies of a Godless Age,” *Harper’s Magazine*, (2008년 1월호), 86쪽.
6. 교리와 성약 45:32.
7. 교리와 성약 45:29.
8. 윌리엄 리 아담스, “Christians and Atheists Battle in London Bus Wars”, 2009년 2월 8일, [www.time.com](http://www.time.com).
9. 누가복음 18:8 참조.
10. 일부 사람들은 요한 계시록 22:18을 잘못 인용했으나, 이 구절은 성경 전체가 아닌 요한 계시록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다. 또한 신명기 4:2 참조.
11.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The Black Swan: The Impact of the Highly Improbable*(2007), xvii~xxviii 참조.
12. 케리 지 엘리, 2008년 5월 16일, 콜로라도 덴버 북 선교부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의 대화.
13. 뉴엘 쿡 맥밀란 편집, *The Life and History of Phineas Wolcott Cook*, (1980) 19~20쪽.
14. 프레드릭 더블류 파라, *Eternal Hope*, 1892년, xxxvi~lii쪽 참조. 이 주제에 관한 더 많은 토론을 보려면, 웰리스 가다드의 “God’s Plan—Kinder Than We Dare to Expect,” *Meridian Magazine*, (2006년) 참조.
15. *Poems of Tennyson*, 옥스포드 대학교 출판부(1907년), 387~388쪽.
16. 프레드릭 더블류 파라, *Eternal Hope*, (1892년) xxii쪽 참조.
17. 교리와 성약 29:46~50; 137:7~10 참조.
18. 앨마서 40:12.
19. 니파이후서 9:10~14; 교리와 성약 76:84~86 참조.
20. 앨마서 40:14.
21. 교리와 성약 76:89 참조.
22. 이사야서 14:12~15; 누가복음 10:18; 요한 계시록 12:7~9; 교리와 성약 76:32~37 참조.
23. 교리와 성약 76:41; 또한 고린도전서 15:22 참조.
24. 요한복음 14:1~2.
25. 모세서 1:39.
26. 조셉스미스-역사 1:19; 또한 20절 참조.
27. 니파이후서 31:2~21 참조; 또한 히브리서 6:1~2; 요한일서 9~10장; 제3니파이 11:30~40 참조.
28. Mary Jordan, “The New Face of Global Mormonism”, *워싱턴 포스트지*, 2007년 11월 19일자, A01쪽.
29. 고든 비 힝클리, “This is the Work of the Master”, *Ensign*, 1995년 5월호, 71쪽.
30. 누가복음 6:37 참조.
31. 니파이후서 26:27
32. 교리와 성약 93:1 참조.
33. 교경 93:20.
34.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찬송가, 16장.
35. 올슨 에프 휘트니, *Saturday Night Thoughts*(1921년), 323쪽.

“신앙은 신앙을 가진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음으로써 타올 수 있습니다.”(경전 안내서, 신앙, 161~163쪽; 또한 로마서 10:14~17 참조)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자녀들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확신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고 느끼고 있습니까? “강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에 의해 발전됩니다!”(경전 안내서, 161쪽)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신앙이란 개인적인 의로움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이다. 그것은 의로움이 존재할 때에는 언제나 주어지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 신앙도 더 많이 부여된다.”(*Mormon Doctrine*, 2차 개정판, [1966년], 264쪽) 더 큰 신앙을 원한다면, 더 많이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건성으로, 또는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필수적인 영적인 은사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비록 작고 간단한 일들일지라도 정확하게 순종하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소망은 우리가 신성한 진리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 발전하는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인 광합성과도 같습니다. 성신의 영향력이 모든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빛에 작용할 때, 광합성의 화학적 반응에 상응하는 영적인 결과물로서 가슴이 뛰고, 마음이 변화되며, 알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신앙의 작은 입자들이 분자와 같이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면 소망도 커지게 되고, 참된 원리에 따라 생활하려는 단순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순종의 패턴이 발전할수록, 그 순종과 결부되어 있는 구체적인 축복들이 현실화되고 믿음은 더 분명해집니다. 소망과 희망과 믿음도 신앙의 한 형태들이지만, 권능의 원리인 신앙은 일관된 순종의 행위와 태도를 통해 옵니다. 개인적인 의로움은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이며,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거대한 영적인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마음과 힘과 생각과 능력을 집중할 때 발전하는 그런 단계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훌륭한 선교사의 눈에서, 용감하고 덕스러운 청년의 눈에서, 의로운 부모들과 조부모들의 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젊거나 나이 들었거나에 상관 없이, 모든 나라와 문화에서, 모든 언어에서, 삶의 모든 환경과 지위를 막론하고 목격됩니다. 이것이 선지자 앨마가 이야기한 “신앙의 눈”(앨마서 5:15~26 참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면한 암흑의 안개가 심히 클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참된 원리를 단단히 붙잡고 꾸준하게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단계의 신앙은

대단히 강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음이 꼭 필요[합니다.] …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행하게 하시었나니, 그런즉 사람은 이편이나 저편에 의해 이끌리지 않고서는 스스로 행할 수 없었습니다.”(니파이후서 2:11, 16)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보다 의심과 불신앙을 선택하도록 이끌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의 산에서 초자연적인 영적 경험을 하고 돌아오셨을 때, 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한 절박한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간청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붙잡히 여기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브라질, 상파울루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만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마가복음 9:23~24)

신앙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내쫓습니다. 단순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파괴적인 불신앙의 근원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신앙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겨자씨로 신앙을 비교한 구주의 가르침은 이것의 실재성을 잘 보여줍니다.(마태복음 13:31~32)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가진 의심과 불신앙의 양 만큼을 뺀 나머지가 우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자문할 수 있습니다. “내게 남은 최종적인 신앙은 양수인가 음수인가?” 만일 여러분의 신앙이 의심과 불신앙을 초과한다면, 그 답은 양수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의심과 불신앙이 여러분을 조종하도록 놓아 둔다면 답은 음수가 될 것입니다.

물론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것을 거둡니다.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기에,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힘도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는 사탄의 직접적인 영향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개인적인 성향, 태도, 습관에서 기인합니다.

저는 이런 영향력들을 “여섯 가지 파괴적인 도전들(6D)” 이라고 부릅니다. 말씀 드리는 동안,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도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의심(Doubt)입니다. 의심은 복음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빛이나 성신의 영향력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은 두려움과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에서 올 수 있습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성한 정체성에 상반되는 것입니다.

의심은 낙담(Discouragement)으로 이깁니다. 낙담은 기대치에 못 미칠 때 옵니다. 만성적인 낙담은 기대치를 더 낮추며, 덜 노력하게 하고, 소망을 약화시키며, 점점 더 영을 느끼고 따르는 것을 힘들게 합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2004년], 10쪽 참조) 낙담과 절망은 희망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낙담은 산만함(Distracton), 즉 집중력이 부족한 상태로 이깁니다. 산만함은 신앙의 눈이 가져야 하는 바로 그 초점을 흐리게 합니다. 낙담과 산만함은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들 중 하나이며 또한 나쁜 습관들이기도 합니다.

산만함은 태만(Lack of Diligence)으로 이끄는데, 이것은 변함없이 참되고 충실하게 남으려는 결심을 반감시키고 어려움과 실망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을 약화시킵니다. 실망이란 감정은 삶에서 필연적인 부분이지만, 실망이 꼭 의심, 낙담, 산만함, 또는 태만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된다면, 궁극적으로 불순종(Disobedience)에 도달하게 되고, 불순종은 신앙의 토대를 붕괴시킵니다. 때때로 불순종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믿기를 거부하는 불신앙(Disbelief)을 낳습니다.

경전에서는 불신앙(Disbelief)을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로 선택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감각은 무뎠고 성신의 느낌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이 여섯 가지 파괴적인 도전들(6D)-의심, 낙담, 산만함, 태만, 불순종, 불신앙-은 모두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파괴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피하고 극복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더 큰 영적인 힘을 필요로 합니다. 구주의 약속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게 합당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리라.”(모로나이사 7:33)

저는 겸손하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살아 계시며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몬슨 회장님을 통해 그분의 교회를 직접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살아 계시기에 희망은 항상 우리 앞에서 밝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신앙의 집에서는 두려워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신앙으로 살기를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역경 속의 신앙

라파엘 이 피노 장로  
칠십인 정원회

복음에 따라 산다는 것은 ...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역경에 맞서고 이를 견디어 낼 준비를 갖추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몇 년 전 어느 아침, 저는 그 당시 감독단에서 제 보좌 중 한 명으로 봉사하고 있었던 오마르 알바레스 형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세 살 된 딸이 끔찍한 사고로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있었던 사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베네수엘라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해변 근처에 있는 작은 강에서 놀게 해 달라며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차에서 물건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분 후에, 우리는 아이들이 해변에서 너무 멀어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물가로 불러모으려고 다가갔을 때, 세 살 난 딸이 함께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아이를 찾아

해냈으며 마침내 다른 아이들이 있던 근처에서 물 위에 동등 떠 있는 딸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재빨리 아이를 물에서 끌어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딸을 구하려 했으나, 손쓸 겨를도 없이 결국 우리 막내 딸은 익사했습니다.

“우리는 막내 딸을 잃어버린 고통과 비통으로 가득 찬 채 견디기 힘든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감정은 곧 거의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혼동과 불안 중에 우리 자녀들이 성약 안에서 태어났으며, 그 성약으로 인해 우리 딸아이는 영원히 우리에게 속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속해 있으며 그분의 거룩한 성전 의식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순간 우리는 주님께 충실하며 끝까지 견디고자 더욱더 굳건히 결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딸아이를 다시 만나기 위해 성전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고자 원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딸아이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하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는 않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학습 과정, 2007], 176쪽)

이 충실한 가족은 우리의 삶에 역경이 닥쳤을 때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알바레스 가족이 힘든 시련을 겪은 몇 년 후에, 저는 또 다른 충실한 가족 하나가 어떻게 큰 역경을 헤쳐 나가는지 목격하였습니다. 끔찍한 교통 사고로 쿠에로 가족 중 몇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에이브러햄 쿠에로 형제는 그 사고로 부모님과 두 명의 누이들, 그리고 처남과 조카딸을 잃었습니다. 쿠에로 형제는 훌륭한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충실함을 보이며,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고 있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음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형제들에게 이같이 말했으며, 수년 전에 김볼 회장님이 가르치셨던 바, 즉 ‘사망이 비극이 아니라 죄가 바로 비극이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류 킴볼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학습 과정, 2006], 18쪽)라는 것,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 형제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욕의 말씀이 제 영혼을 가득 채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기 1:21)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한복음 11:25)

이 사건은 한 가족으로서 겪었던 가장 영적인 경험들 중의 하나였는데, 바로 그렇게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훌륭한 가족들이 견디어 낸 두 가지 경험들 모두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 복음의 빛이 가득 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복음의 빛이 주는 평화와 위안으로 마음이 충만해지고 모든 일이 잘되리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옥사카, 주치탄

이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구주께서 겻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신 고통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저는 구주의 고통과 속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겻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 역경을 겪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에서 조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여-내가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이다. 나는 마셨고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나의 준비를 마쳤느니라.”(교리와 성약 19:18~19)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인생의 폭풍우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으며, 가장 힘들었던 한 시기에 고뇌하며 호소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또 당신께서 숨으신 곳을 가리는 장막은 어디 있나이까?”(교리와 성약 121:1)

선지자가 목소리를 드높여 간구하자, 주님의 위안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내 아들이, 네 영혼에 평안이 있을지이다. 네 역경과 네 고난은 잠시뿐이리니, “그러고 나서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요, 너는 너의 모든 원수를

이기리라.”(교리와 성약 121:7~8)

히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영원토록 그 어느 것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에 중심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그 어떤 성공을 거두더라도 절대 옳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Clyde J. Williams 편집, [1997년], 40쪽)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내가 그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유하리니

“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이니라.”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에 비유되리니

“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그 집이 무너졌으니 그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제3니파이 14:24~27)

이 양쪽 집 모두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다는 점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복음에 따라 산다는 것이 영원히 역경을 겪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역경에 맞서고 이를 견디어 낼 준비를 갖추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자 구속주이심을 엄숙히 간증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을 통해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구주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위안을 분명히 찾게 될 것입니다.(빌립보서 4:7 참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성전 예배: 어렵고 힘든 시기에 힘과 권능의 근원이 됨”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가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지키고 의롭게 생활한다면 ... 걱정하거나 의기소침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은 주께서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거룩한 성전을 가까이에 둘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 시대에 살도록 축복 받았습니다. 신중하게 계획하고 약간만 희생하면 교회 회원들 대부분은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을 위한 성전 의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맺는

성약에 따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돌려 말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회원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성전에 가기 위해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가까운 곳에 지어져서 가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데도 정기적으로 성전을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안을 한 가지 드립니다. 성전이 쉽게 갈 수 있는 근처에 있으면 오히려 사소한 일들로 인해 성전에 가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성전 의식에 언제 참여할 수 있고 또 언제 참여할 것인지, 여러분의 여건을 감안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계획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성전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도 성전에 참석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하여 긴 여행을 하는 분들만큼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14년 전, 저는 최소 매주 한 번씩 성전에 참여하여 의식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을

하게 되는 때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후에 빠진 만큼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 결심을 지키는 동안에 저의 삶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성전의 모든 종류의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운영 중인 성전에서 제공하는 의식에 더 자주 참석하겠다는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시도록 권고 드립니다. 그 어떤 것이 성전 의식에 참석하고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 어떤 활동이 부부가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부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주겠습니까?

이제 성전 의식의 참여를 통해 어떻게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지에 대해 몇 가지 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성전 의식과 관련된 교리,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십시오.<sup>1</sup>
- 성전 의식에 참여하는 동안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간단한 실천 하나가 성전 의식의 지고한 본질을 좀 더 잘 이해하게 해 줄 것입니다.
- 성전 의식을 통해 오는, 그 어디에도 비할 바 없는 축복들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러한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을 매일매일 사십시오.
- 성전에 정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하십시오.
- 성전 경내에서 서두르지 않도록 여유 있게 가십시오.
- 돌아가면서 각기 다른 의식들에 참여하여 성전의 모든 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 주님의 집에 들어갈 때 시계를 벗어 놓고 가십시오.
- 생각과 마음의 문을 열고 의식의 때



부분들을 주의하여 들어보십시오.

- 여러분이 대리 의식을 수행해 드리고 있는 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따금 그분이 그 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의식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당하거나 또는 합당하게 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 산 자를 위한 의식을 한 번 받은 것만으로는 장엄한 인봉 의식을 별로 많이 이해하거나 기억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주 대리 의식을 받을 때 산 자를 위한 의식에서 들은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되기 전에는 인봉 의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의식을 대신해 주고 있는 사람과 휘장 저편에 계시는 분 모두 합당해야 하고 그 인봉이 영원하기를 원해야 가능해집니다.
- 여러분이 배우자와 함께 성전 인봉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이 성구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의 영광 안에는 세 하늘 곧 세 등급이

있느니라. 가장 높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사람이 신권의 이 반채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을 의미함에 들어가야 하느니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것을 얻을 수 없느니라.

“그가 다른 곳에는 들어갈 수 있으려니와, 그것이 그의 왕국의 끝이니, 그는 증식할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131:1~4)

가끔 성전 헌납식 때 합창단의 노래를 듣다 보면 마음과 생각이 고양되는 매우 장엄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면 많은 분들이 거꾸로 뒤집은 원뿔 모양으로 성전에서 출발하여 위로 무한히 확장하여 올라가는 모습이 머릿속에 몇 번이고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것은 그 성소에서 자신을 위해 대리 의식이 수행되기를 기다리던 무수한 영들이 영원한 진보를 할 수 없도록 자신들을 묶은 사슬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여러분이 대리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조상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FamilySearch 프로그램 덕분에 이전보다 더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상들을 찾고 그분들이 자격을 갖추실 수 있게 하고 주님의 집으로 와서 조상들이 바라는 의식들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전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제 아내 지닌의 조상 한 분과 관련된 경험담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할머니의 성함은 사라 드아르몬 피 리치입니다. 그분의 기록을 보면 성전이 우리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31세 때 브리검 영으로부터 나부 성전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 성전을 포기하고 떠나야 하기 전에 가능한 의식들이 모두 그곳에서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많은 축복들을 받았다. 그 축복들은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과 위안을 얻게 해 주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키질 수 있게 해 주었다. 우리가 가야 할 이 알지 못하는 여정에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탱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앙과, 주의 영의 영향력과 도움으로 인해 나부 성전에서 얻은 지식이 아니었다면, 그 여행은 무모한 여행이

되었으리라. 궁핍했던 때에는, 이대로 가면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이 있었다. 그분을 신뢰했고, 우리가 바로 그분의 복음을 받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슬픔보다는 구원의 날에 누릴 기쁨이 느껴졌다.”

이제 성전이 저에게 갖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의 일부보다 다소 민감할 수 있기에 제가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년 전, 주님께서 제 아내를 휘장 저편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아내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지만,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에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바라시는지 여쭙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유쾌하지 않은 일들을 겪을 때, 불평하기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기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갖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째인 딸 아이는 우리의 삶에서 늘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몇 년 후 리차드라고 이름 지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몇 년 후에 또 딸이 태어났지만 몇 분 만에 하늘로 갔습니다.

제 아들 리차드는 심장에 문제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완치되지 않으면,<sup>2</sup> 3년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 일이라 현재 사용되는 그러한 심장 질환 치료법이 당시에는 알려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필요한 수술을 해 보기로 동의해 준 의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수술은 심장이 뛰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딸 아이가 태어났다 사망한 지 6주 만에 그 수술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나자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은 튼튼한 몸에 잘 달리고 걷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주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0분쯤 후에 그 의사 선생님이 창백해진 얼굴로 오셔서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숨졌습니다.” 그 수술에 따르는 충격이 그 어린 아이가 견디기에는 너무 컸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성약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훗날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어요. 이제 정말로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여덟 살 이전에 숨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해의 왕국으로 갔어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곱 자녀 모두가 세세 영원토록 우리에게 인봉되었다는 점에 큰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련은 저희 부부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생활하고 성전 의식을 받은 한 그 밖에 다른 것은 주님의 손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뿐 그 마지막 결과는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는데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두고 절대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14년 전, 주께서는 제 아내가 지상에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시고 아내를 휘장 저편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물론 아내를 쳐다보며 대화를 나눌 수 없어서 힘든 때가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저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들에 휘장을 통해 아내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지키고 그러한 성약이 약속하는 축복들을 계속 받기 위해 의롭게 생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거나 의기소침해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또 휘장 저편에서 아내와 함께 있을 그 자녀들과 함께 살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맺은 성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필멸의 생뿐만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도 인봉의 권세가 다시 한 번 이 지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다음 세상에서도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의식들을 포함해서 그분의 복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저는 그분과 그분의 속죄의 증인입니다. 그분의 속죄로 인해 성전에서 수행되는 모든 의식들이 유효하게 되고 영원히 존속하게 됩니다.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간증을 드립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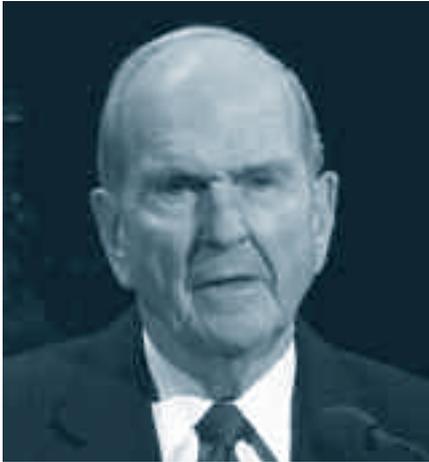
## 주

1. 교리와 성약 88, 109, 131, 132편은 시작하기에 적절한 편임.
2. Sarah DeArmon Pea Rich, “자서전, 1885~1893년”, 교회 역사 도서관, 66쪽; 철자, 구두법, 대문자 사용을 표준화시켰음.)

# 주기도문에서 배우는 교훈

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의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더불어 저도 닐 엘 앤더슨 장로님께 사랑과 존경을 전합니다. 그분이 거룩한 사도직에 부름 받은 것은 주님의 선지자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몬슨 회장님은 생애 동안 주님의 뜻을 경청하는 능력을 닦아 오셨습니다. 구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듯이, 선지자께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몬슨 회장님, 그러한 힘을 키우시고 사용하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앤더슨 장로님을 축하하고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우리의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기도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주기도문으로 시작할 것이며 그분이 드린 다른 기도에서 여러 교훈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sup>1</sup>

제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동안 교훈을 얻기 위해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sup>2</sup>

주기도문은 신약 성경에 두 번, 그리고 물몬경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sup>3</sup> 그것은 또한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도 포함되어 있으며,<sup>4</sup> 다음과 같은 두 문구를 통해 뜻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1.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잘못을 사하여 주시옵고”<sup>5</sup>
2. 우리를 시험에 들게 버려두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sup>6</sup>

용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주님이 하신 다른 말씀으로 보충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허물을 서로 용서한 만큼, 그와 같이 나 주도 너희를 용서하노라.”<sup>7</sup> 바꾸어 말하면, 사람이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sup>8</sup> 유혹에 대한 설명에도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유혹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sup>9</sup>

주기도문의 네 가지 형태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모두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느껴야 하는 존경과 경배하는 태도를 반영합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표현의 개념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요청에는 영적인 양육에 대한 필요성 또한 포함됩니다.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예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sup>10</sup> 성찬의 상징물을 합당하게 취할 때 우리는 그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sup>11</sup> 그것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마칠 때, “아멘.”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과 영광을 인정합니다. 우리도 기도를 아멘으로 끝냅니다. 언어에 따라 여러 가지로 발음되지만 그 의미는 같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혹은 “진실로” 등을 의미합니다.<sup>12</sup> 아멘을 덧붙이는 것으로 설교나 기도를 엄숙히 확인합니다.<sup>13</sup> 동의하는 사람들은 각자 소리가 들리도록 아멘이라고 덧붙여야 하는데,<sup>14</sup> 그것은 “나도 그 말에 엄숙하게 동의한다”는 뜻입니다.<sup>15</sup>

주님은 기도를 소개하기에 앞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중언부언”을 피하고<sup>16</sup>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sup>17</sup>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기도문은 따라야 할 기도의



모형을 제시하는 것일 뿐 외우고 반복해서 암송해야 할 문장은 아닙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가 꾸준히 악을 물리치고 의롭게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 중재 기도

주님이 드린 다른 기도들 또한 교훈적입니다. 특히 그분의 중재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 기도가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주님이 그의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를 인용하는 동안 세상의 구주께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sup>18</sup>

주님의 이 기도에서 우리는 그분이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중재자요 변호인으로서의 책임을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sup>19</sup>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뎌야 할 책임을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sup>20</sup>

중재 기도는 예수께서 고대 미 대륙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드렸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채웠던 그 기쁨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느니라.”<sup>21</sup> 그런 다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신앙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제 보라, 나의 기쁨이 충만하도다”<sup>22</sup>

예수께서는 단합에 대한 간구를 포함시키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옵는 것은 ... 그들로 나를 믿게 하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같이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sup>23</sup> 우리도 단합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이웃간의 상호 이해와 존경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염려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sup>24</sup> 야고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sup>25</sup>

### 다른 기도들로부터 배우는 교훈들

주님은 기도에 관해 다른 교훈들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항상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여야 하느니라.”<sup>26</sup>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또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항상 나의 이름으로 너희 가족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라.”<sup>27</sup>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 그 가르침은 적용됩니다.<sup>28</sup>

또 다른 주기도문은 세 개의 연속되는 구절에서 반복되는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여, 내가 택한 이 사람들에게 성신을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비옵나니 저들의 말을 믿을 모든 자에게 성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이 나를 믿는 고로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성신을 주셨사오며,”<sup>29</sup>

성신의 동반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우리도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모든 개종자와 우리의 자녀들이 성신의 은사를 지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 성신은 우리 삶에서 영원히 절대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sup>30</sup>

### 우리의 기도를 강화함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은 “의인의 노래는 내게 기도가 되나니, 그들의 머리 위에 축복으로 응답하리라.”<sup>31</sup>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또한 금식을 통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sup>32</sup>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이제부터 기도하며 금식하기를 계속할지니라.”<sup>33</sup>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금식할 때 지혜로워지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기도와 [금식]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굶어 죽을 때까지 기도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며, 그것은 지혜로운 일도 아닙니다. … 주님은 신앙을 갖고 짧은 말로 드리는 단순한 기도를 들으시며, 24시간을 넘지 않는 금식이라 하더라도 수천 마디의 말과 한 달이나 계속되는 금식에 대한 응답만큼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 주님은 지나치게 많고 불필요한 기도보다는 더 큰 기쁨과 만족감으로 드리는 충분한 기도를 받아들이실 것입니다.”<sup>34</sup>

“지나치게 많고 불필요하다”는 개념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길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 모임에서의 폐회기도는 각 메시지를 요약하는 것이거나 예정에 없는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기도는 원하는 만큼 길게 할 수 있지만, 공공 기도는 주님의 영이 우리를 함께하도록 해 달라는 짧은 간구이거나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를 간단히 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른 방법으로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단어”<sup>35</sup>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특별한 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장과 언어에 대한 세상의 기준은 점점 더 가벼워지는 반면,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사용하는 격식을 갖춘 품위있고 적절한 언어를 고수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sup>36</sup> 기도할 때, 우리는 *You, Your, and Yours* 대신에 존경을 담은 대명사인 *Thee, Thou, Thy, and Thine*을 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이 손을 잡고 너를 인도할 것이요, 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게 주리라.”<sup>37</sup>

기도는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sup>38</sup> 그 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때 열립니다.<sup>39</sup>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언제든 원할 때 합니다. 엘마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유익하도록 지도하시리라. 참으로 네가 밤에 누울 때 주께로 [눕고] … 네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네 마음이 가득 차게 하라. 이렇게 하면 마지막 날에 네가 들리움을 받으리라.”<sup>40</sup>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으로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고<sup>41</sup> 상기시키셨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를 드려야 하며 그 외에도 매일 드리는 개인 기도와 음식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sup>42</sup>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가족 기도와 개인기도를 드릴 때 그분에 대한 신앙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를 드립시다.”<sup>43</sup> 그러므로 우리는 현세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께서 주기도문에서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sup>44</sup>라고 해야 합니다.

피로써 우리를 속량하신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요 우리의 모범입니다.<sup>45</sup> 지상의 성역을 마칠 때 그분은 사랑하는 아들로서 그분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sup>46</sup> 그 중요한 순간에 구주께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여 …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sup>47</sup>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의] 왕국이 땅 위에 나아가게 하며, 그 주민이 … 후일을 대비하게 하[고] … 인자가 자기 영광의 광채를 입고 하늘에 내려와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을 맞이하”<sup>48</sup>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이 소중한 교훈들을 열심히 적용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주

1. “기도에 관한 특집”으로 출판된 성도의 벗 1976년 9월호. 기도에 관해 연구하는 진지한 학생은 그 기사를 연구함으로써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2. 마태복음 6:9~13.
3. 마태복음 6:9~13; 누가복음 11:2~4; 제3니파이 13:9~13 참조.
4.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조성 마태 6:9~15 참조.
5.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조성 마태 6:13 참조.
6.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조성 마태 6:14.
7. 교리와 성약 82:1.
8. 마태복음 18:23~35; 교리와 성약 64:10.
9. 마태복음 26:41.
10. 요한복음 6:35; 또한 요한복음 6:48, 51 참조.
11. 모로나이서 4:3; 5:2; 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
12.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아멘은 “참으로” “정말로” “진실로” 혹은 “그렇게 되기를” 등을 의미한다.
13. 요한계시록 1:18; 22:20~21 참조. 그것은 또한 동의를 확인할 때 사용된다.(열왕기상 1:36 참조)
14. 고린도전서 14:16 참조.
15. 시편 106:48; 요한계시록 5:13~14; 19:4; 교리와 성약 88:135 참조.
16. 마태복음 6:7; 제3니파이 13:7.
17. 마태복음 6:9; 제3니파이 13:9.
18. 요한복음 17:1, 4, 8~9.
19. 디모테전서 2:5; 요한1서 2:1; 교리와 성약



# 청남들에게 주는 권고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복음에 관한 확실한 사실들, 즉 진리는, 여러분이 일단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 내도록 해 줄 것입니다.



- 29:5; 45:3; 110:4 참조.
- 20. 교리와 성약 14:7 참조.
- 21. 제3니파이 17:17.
- 22. 제3니파이 17:20.
- 23. 제3니파이 19:23.
- 24. 마태복음 5:44; 엘마서 34:27; 제3니파이 18:21 참조.
- 25. 야고보서 5:16.
- 26. 제3니파이 18:19.
- 27. 제3니파이 18:21.
- 28. 니파이후서 32:9; 33:12; 제3니파이 18:23, 30; 19:6~7; 20:31; 28:30 참조.
- 29. 제3니파이 19:20~22.
- 30. 요한복음 10:27~28(교리와 성약 84:43~47과 비교); 니파이후서 31:17~20; 엘마서 5:28 참조. 우리는 중재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 알도록 돕는 영의 동반을 구할 수 있다.(로마서 8:26 참조)
- 31. 교리와 성약 25:12.
- 32. 사도행전 14:23; 고린도전서 7:5; 음나아서 1:26; 엘마서 5:46; 6:6; 17:3; 17:9; 28:6; 45:1; 제3니파이 27:1; 제4니파이 1:12; 모로나아서 6:5 참조.
- 33. 교리와 성약 88:76.
- 34. 조셉 에프 스미스, Conference Report, 1912년 10월 133~134쪽.
- 35.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조성 시편 17:1 참조.
- 36. 스펜서 더블류 김볼, Faith Precedes the Miracle, 1972년, 201쪽; 스티븐 엘 리차즈, Conference Report, 1951년 10월, 175쪽; 브루스 알 맥콩기, “주님께서 기도를 제정하신 이유,” 성도의 빛, 1976년 9월호, 7쪽; 엘 톰 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성도의 빛, 1984년 1월호 14쪽; 달린 에이치 옥스, “기도의 언어,” 성도의 빛, 1993년 7월호, 15~18쪽. 그 언어에 대해 돈 이 노튼 이세가 설명한 자세한 내용이 “The Language of Formal Prayer,”라는 제목으로 Ensign, 1976년 1월호, 44~47쪽에 실려 있다.
- 37. 교리와 성약 112:10. 또한 시편 24:3~4; 마태복음 6:12; 힐라맨서 3:35; 교리와 성약 64:8~10 참조.
- 38. 요한계시록 3:20; 제3니파이 18:20, 교리와 성약 88:64 참조.
- 39. 제3니파이 18:20; 교리와 성약 88:64 참조.
- 40. 엘마서 37:37. 또한 빌립보서 4:6; 엘마서 34:18~27; 교리와 성약 10:5; 93:49 참조.
- 41. 제3니파이 20:1.
- 42. 성도의 빛, 1976년 1월호 11쪽.
- 43. 토마스 에스 몬슨, “왕 같은 제사장,”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61쪽.
- 44. 마태복음 26:42; 야곱서 7:14; 이더서 12:29; 교리와 성약 109:44; 모세서 4:2 참조.
- 45. 제3니파이 27:13~15 및 제3니파이 27:21~22 참조.
- 46. 모사이야서 15:7 참조.
- 47. 마태복음 26:39, 또한 모세서 4:2 참조. 여기에는 시작부터 우리 구주의 겸손한 태도가 나온다.
- 48. 교리와 성약 65:5.

**젊**은이들은 과거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말하고, 노인들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 말합니다. 저는 노인이지만 아론 신권 소유자들인 청남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아론 신권은 천사에 의해 회복되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13편 머리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임은 자신을 요한, 즉 신약전서에서 침례 요한으로 불리우는 바로 그라고 알리는 한 천사의 손으로 행해졌다. 천사는 설명하기를 자기는 멜기세덱 신권이라 일컬어지는 더 높은 신권의 열쇠를 지닌 고대의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지시 아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때가 이르면 조셉과 올리버에게 멜기세덱 신권이 부여되리라는 약속이 주어졌다.”<sup>1</sup>

또 107편 2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소신권 곧 아론 신권의 권능과 권세는 성약과 계명에 따라 천사의 성역의 열쇠를 지니며, 외형적 의식 곧 복음의 조문과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침례를 집행하는 것이니라.”<sup>2</sup>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권의 직분에 성임되었으며, 왕과 장관,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떠한 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낮추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는 한 소유하고 있지 않고 소유할 수도 없는 신성한 권세를 부여 받았습니다.

경전에는 젊은이들이 봉사하는 내용에 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와 함께 장막에서 봉사했습니다.<sup>3</sup> 다윗은 골리앗과 맞섰을 때 어렸습니.<sup>4</sup> 모몬은 열 살 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sup>5</sup> 조셉 스미스는 열네 살에 첫 번째 시험을 보았습니다.<sup>6</sup>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박식한 자들을 성전에서 가르치셨을 때, 그분은 열두 살이었습니다.<sup>7</sup>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sup>8</sup>

제가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을 때, 제일회장단 제1보좌셨던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회장님께서 교사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제 가슴에 새겨졌으며 그 후로 제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클라크 회장님은 청소년들이 “영적인 것에 굶주려 있고, 복음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크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길, “청소년들은 직접적이고 순수한 상태의 복음을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관해 알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들에 대한 간증을 얻기 원합니다. 그들은 이제 의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탐구하는 자들,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클라크 회장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숙련된 이 청소년들의 뒤로 슬그머니 다가가 그들의 귀에 종교에 관해 콧속말로 속삭일 필요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을 만나서, 그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은 이 진리를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점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sup>9</sup>

그 이후로 저는 성인들을 가르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청소년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신권은 여러분이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적인 권세이며 권능입니다.

제가 다섯 살 때 저는 몹시 아팠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때 저는 소아마비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가 살던 작은 마을의 그 의사는 소아마비란 질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 거실 석탄 난로 옆에 놓인, 제1차 세계 대전 때 사용되었던 간이 군용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걷는 법을 배우기 위해 장관 위를 미끄러지듯이 기어 다니고 의자를 붙잡고 올라가 겨우 앉을 수 있었던 때가 선명히 기억납니다. 저는 소아마비에 걸린 다른 아이들보다는 운이 좋았습니다. 한 친구는 평생 목발과 철제 보조기로 걸어야만 했으니까요.

학교에 들어가자 곧 제 근육들이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제가 결코 운동선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는 저와 비슷한 열등감 콤플렉스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를 찾았던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는데, 그것도 그리 큰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의사는 정밀 검사를 한 뒤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열등감 콤플렉스를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란 사람 자체가 열등한 존재군요!”

그나마 이 이야기를 제게 힘을 줄 위안으로 삼고서,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으며 육체적인 약함을 다른 방법으로 보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축복사의 축복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 축복사님은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분이셨지만, 그분은 축복사들이 정말로 예언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제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 지상 생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으며 필멸의 육신으로 사는 삶에 수반되는 시험들에 기꺼이 맞서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문제로 제 영이 제한 받는 일은 없을 것이며, 영이 활동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충분한 체력과 건강한 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자신의 몸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에서 피하도록 권고 받은 차, 커피, 술, 담배, 또는 습관성,



중독성, 유해성을 지닌 물질 등 여러분의 육신에 해를 끼치는 것은 어떠한 것도 복용하지 마십시오.

교리와 성약 89편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서 위대한 약속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릇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하기를 기억하는 모든 성도는 그들의 배꼽에 건강과 그들의 뼈에 골수를 얻을 것이요,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참으로 감추인 보화도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는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멸하는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에게 한 것같이 그들을 지나칠 것이요,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리라.”<sup>10</sup>

주위에 여러분보다 더 완벽한 몸을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키나 체중, 그리고 외모나 피부색 혹은 인종 등에 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탓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전세에서 모두 하늘 부모의 영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출생할 때 여러분은 지상 생활을 경험하기 위해 살과 피와 뼈로 된 육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준비를 하는 동안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물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리!”<sup>11</sup>

여러분의 성별은 전세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남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본성의 남성적인 부분을 소중히 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여성과 소녀들에 대해 존중하고 보호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결코 다른 사람이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신체를 만지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지지 마십시오.

의약품과 마약의 치명적인 독을 피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를 경계하십시오. 이것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들은 여러분을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이야기하십시오. 감독님께 이야기하십시오. 그분들은 여러분을 돕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문신으로 몸을 꾸미거나 보석을 부착하기 위해 피어싱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들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걱정하게 하는 친구와 어울리지 마십시오.

루시퍼와 그의 천사의 군대의 영향력은 어느 곳이나 존재합니다. 그들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이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의 영을 혼란케 하는 모든 욕구를 거절하십시오.<sup>12</sup>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육신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을 다스릴 권능이 있습니다.”<sup>13</sup> 리하이는 모든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다고”<sup>14</sup> 가르쳤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의 기도의 힘은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제가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sup>15</sup>를 받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은 씻겨졌으며, 제 생애에서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는 아니지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한때 너무 일찍 침례를 받았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집행하는 성찬 의식이 사실상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고 그와 관련된 축복을



피지, 수바

새롭게 해 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시에서 말해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제가 “저의 죄 사함을 항상 간직”<sup>16</sup>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나 잘못을 저질렀다면, 속죄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진지한 회개를 할 때, 그 힘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작은 잘못들을 가볍게 행구어 씻어낼 수 있으며, 심각한 정죄일 경우 물에 담가 조금 문지름으로써 역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침례와 확인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부여된 성신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합니다.

저는 제2차 세계 대전이 온 세상을 뒤덮었을 때 아론 신권을 소유한 제사였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전투를 위해 전선으로 배치되었을 때 장로에 성임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영국 격전지에서 B-24 폭격기를 조종하던 형 레온을 뒤 따르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군 조종사 훈련에 자원했습니다.

1점 차이로 필기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사관이 몇 개의 2점짜리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만약 2점짜리 문제 두 개를 반씩만 맞추면 저는 합격이었습니다.

시험 중 일부는 객관식이었습니다. 한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에틸렌 글리콜은 어디에 사용되는가? 만약 제가 부친의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자동차의

부동액으로 사용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스로 합격했습니다.

저는 신체 검사에 대해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평범한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청남 여러분, 여러분은 학교 교육에 대해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적인 정보를 배우기 위해 너무 몰두한 나머지 실용적인 것들을 배울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집에서든, 요리하는 부엌에서든, 밭에서든, 여러분이 배우는 실용적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결코 학교 교육에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공부하고 항상 참석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다른 말로 하면 빛과 진리니라.”<sup>17</sup>

“이 생애에서 우리가 얻는 예지의 원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부활 때에 우리와 함께 일어나리라.”<sup>18</sup>

우리는 “위에 있는 일과 아래에 있는 일, 땅 속과 땅 위와 하늘에 있는 일들”<sup>19</sup>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고치는 일이든, 칠하는 일이든, 심지어 바느질하는 일까지 무엇이든 실용적인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유익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형이 영국에서 몰았던 것과 똑같은 폭격기를 타고 아시아로 복무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저의 사명은 일본에서 군인으로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은 아마도 전쟁이



폴란드, 와소

어떻게 끝날지 혹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주머니에 꼭 맞는 작은 군용 물문경을 받았습니니다. 저는 그것을 어디든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 불확실하던 것들이 분명해졌습니다.

복음에 관한 확실한 사실들, 즉 진리는, 여러분이 일단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 내도록 해 줄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4년이란 시간 동안 전쟁터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고,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확고한 간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세대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제의 침체로 인해 재미와 게임에만 몰두하고 비싼 장난감을 누리며 풍족하게 살던 삶은 느닷없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던 편안함과 오락의 세대는 일과 책임의 세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침체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릅니다.

실생활에서 여러분이 가족의 부양을 돕기 위해 부모님과 분담해야 하는 책임들은 이제 여러분이 지닌 신권 책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큰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수양을 쌓게 해 줄 것이며 이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 줄 것입니다. 이 시험들은 신권의 책임과 관련하여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몇몇은 먹는 대부분의 식량과 일부 의복을 가족이 자급자족하여 해결해야만 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집세를 해결하거나 여러분의 가족이 먹고 거처하는 상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하고 부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든 사회에서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은 우리의 첫 번째 부모인 이담과 이브가 받은 첫 번째 계명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sup>20</sup>

그 후에 다음과 같은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sup>21</sup>

책임감 있는 가족 구성원이 되십시오. 자신의 소유물, 의복, 재산 등을 잘 관리하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만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세상은 혼란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래는 여러분에게 시련과 고통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신앙과 정 반대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정오쯤 네 명의 손자들이 저를 보러 왔습니다. 세 명은 젊은 자매와 함께 왔는데 한 명은 곧 있을 결혼식에 관해 말하려 왔고 둘은 약혼을 발표하려 왔으며 혼자서 온 손자는 일본에서의 선교사 부름에 대해 이야기하려 왔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한 순결한 딸들을 성전으로 데려가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 받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네 명의 손자들은 엘마의 가르침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계획은 “위대한 행복의 계획”<sup>22</sup>이며 그 행복은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주

1. 교리와 성약 13: 머리글.
2. 교리와 성약 107:20.
3. 사무엘상 1:24~28 참조.
4. 사무엘상 17장 참조.
5. 물문서 1:2 참조.
6. 조셉 스미스-역사 1:7 참조.
7. 누가복음 2:41~52 참조.
8. 디모데전서 4:12.
9.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교회 교육의 진로* (유타 주 아스펜 그로브의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 지도자에게 전한 말씀, 1938년 8월 8일, 팸플릿, 2004년 3, 9쪽).
10. 교리와 성약 89:18~21.
11. 고린도전서 6:19.
12. 모로나이서 7:17 참조.
1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공과 교제, 2007년), 211쪽*
14. 니파이후서 2:5.
15. 신앙개조 제4조.
16. 모사이야서 4:12.
17. 교리와 성약 93:36.
18. 교리와 성약 130:18.
19. 교리와 성약 101:34.
20. 창세기 1:28, 아브라함서 4:28.
21. 출애굽기 20:12.
22. 엘마서 42:8.

# “여러분에게 걸려 온 전화입니다”

리차드 시 에즐리 감독  
감리 감독단 제1보좌

이제 회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신권 정원회가 모여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신** 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에 걸쳐 허리케인, 산불, 지진, 그리고 치명적인 쓰나미와 같은 많은 비상 사태와 자연 재해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재해와 기타 다른 많은 재해들이 일어났을 때 놀라운 방법으로 대처했습니다. 회원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신속히 모였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봉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축복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기뻐했습니다.

때때로 다른 교회의 회원들, 구호 기관, 정부, 대중매체 등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가 기꺼이 돕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도 신속히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이 단순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상황을 공감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이웃의 형제 자매들을 구조하기 위해 수백 혹은 수천 명을 모으는 일은 보통 감리 역원들이 지역 지도자들에게 거는 전화 몇 통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응할 수 있는 또 다른 난관과 어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걸려 온 전화입니다.** 이 난관은 자연 재해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 영향은 실재하며 전 세계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가운데 지난 수십 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지키는 자라는 근본적인 원리를 계속해서 지지합니다.

최근에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조금씩 다가오던 세계 경제의 먹구름이 이제 우리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닥친 이러한 경제적인

폭풍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전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의 관점에서 복지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직과 경제 한파로 인한 재정적 여파가 교회의 모든 스테이크와 와드에 미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족의 일원, 친척, 또는 아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향력을 조금씩은 다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형제 여러분, 인류가 처한 이런 난관에 대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신권 정원회보다 이를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조직이 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 감독, 장로 정원회 회장, 대제사 그룹 지도자 여러분, 이제 회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신권 정원회가 모여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걸려 온 전화라고 생각하십시오.** 바로 지금이 서로 지지하고, 고양시키고, 고난 중에 있을지 모르는 우리 정원회 가족들을 돌볼 시기입니다.

기회는 도처에 있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와 책임은 주님의 자원들을 모아 정렬하는 것입니다. 정원회 회원 중에는 구인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이력서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 또는 면접 준비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책이나 기술에 상관없이 서로의 짐을 덜어 주고자 하는 형제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몬슨 회장님은 에드 형제님에 대해 말씀하시곤 하는데, 에드 형제님은 기업의 이사직에서 은퇴하신 분으로 정원회 회원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사신 분입니다. 한번은 몬슨 회장님이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에드 형제님, 교회에서 부름이 무엇입니까?” 에드 형제님은 ‘저는 와드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 임무는 실직한 회원들이 직장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올해에만 열두 명의 실직한 형제들이 좋은 직장을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제 생애에서 이만큼 행복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드



형제님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우리는 애정을 담아 '작은 에드'라고 불렀지만, 그날 저녁 그가 눈빛을 반짝이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당당해 보였습니다. 에드 형제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사랑을 실천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문을 여는 법을 몰랐던 이들을 위해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sup>2</sup>

감독과 정원회 회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직한 이들의 고난과 걱정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유타 주 센터빌에 있는 필의 자동차 정비소는 신권 지도력과 정원회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필은 장로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정비사로 일했습니다. 불행히도 정비소가 재정난을 겪게 됨에 따라 필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그는 몹시 낙담했습니다.

필이 실직했다는 것을 들은 레온 올슨 감독과 장로 정원회 회장단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필이 직장을 구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필은 정원회의 형제였고 그는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들은 필이 개인 사업을 해도 될 만큼의 기술을 가졌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정원회 회원이 정비사로 사용하도록 그의 낡은 헛간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정원회 회원은 정비소에 필요한 도구들과 장비들을 구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원회의 나머지 회원들 모두는 최소한 그 낡은 헛간을 청소하는 일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에 대해 필과 이야기해 본 후에, 그들은 그 계획을 정원회 회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헛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롭게 단장한 후, 도구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필의 정비소는 성공적이었으며, 결국 더 좋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그의 정원회 형제들이 위기 시에 도움을 준 덕분이었습니다. 신권 정원회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변화를 일으켜야만 합니다.

많은 와드나 스테이크에는 감독과 정원회 지도자들을 도울 취업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러 지역에 취업 자원 센터들을 설립했습니다. 이 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여러분의 정원회, 와드, 스테이크에 있는 구직자들을 돕기 위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들과 고용주와의 긴밀한 유대는 경력 개발과 취업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데저렛 인터스트리 중고용품 매장은 경력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 복귀, 훈련 및 취업의 기회를 줍니다. 이용이 가능한 곳에서는 데저렛 인터스트리가 매우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감독 여러분, 이러한 노력에서 자매님들도 할 일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어머니들이 예산을 짜야 하고 기타 생활에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가정을 떠나 직장을 찾아야 하기도 합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특별한 사랑과 동정의 마음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궁핍한 사람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을 도울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기를 돌봐 주고 위로와 위안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생 주앙, 생 주앙

이제, 현재 실직 중인 분들께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업을 구하거나 경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정기적인 금식과 기도를 통해 지속적인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는 가운데 정원회 지도자, 감독, 전문가, 취업 자원 센터 직원들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때때로 정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리십시오. 그리고 감독과 정원회 지도자 여러분, 신권의 형제애를 통해 형제들이 진정한 정원회, 형제애, 그리고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일어나 도와주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당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충분한 전문 기술, 지식, 힘, 관심이 모든 신권 정원회 내에 있으며, 이 자원들을 적절하게 운영한다면 어려움에 처한 정원회 회원들을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이러한 힘과 재능들을 발휘해 궁핍한 회원이 그와 자신의 가족을 지속적으로 부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신권 정원회가 가진 의무입니다.”<sup>3</sup>

1856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브리검 영 회장은 마틴 손수레 부대와 윌리 손수레 부대의 여행 시기가 늦어져 그들이 미국 서부의 광야에서 혹한의 날씨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연단에 서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손수레를 끌며 광야에 있습니다. ...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 우리가 가서 그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

그것이 바로 저의 종교입니다. 그들을 구하라는 것은 제가 지니고 있는 성신을 통해 온 지시입니다. ...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원리들을 실행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신앙, 종교, 그리고 믿음에 대한 간증이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 여러분을 결코 구원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가서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십시오!”<sup>4</sup>

브리검 영 회장의 행하라는 요청의 결과로서, 노새가 끄는 수레, 그 수레를 모는 사람들, 그리고 밀가루와 다른 물품들이 광야에서 발이 묶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즉시 보내졌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걸려 온 전화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걸려 온 전화입니다. 브리검 영 회장님께서 손수레 부대를 위해 하신 것처럼, 우리 백성들을 이 경제적 고난에서 건져내기 위해 오늘 걸려 온 전화에 즉시 응답 할 수 있는 경각심을 갖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로버트 디 헤일즈, “A Gospel Vision of Welfare: Faith in Action,” 복지 및 자립의 기본 원리 중에서(2009년 책자), 1쪽.
2. 토마스 에스 몬슨, “To the Rescue,” 리아호나, 20001년 7월호, 59쪽.
3. 고든 비 힝클리, “Welfare Responsibilities of the Priesthood Quorums,” Ensign, 1977년 11월호, 85~86쪽.
4. 브리검 영, Deseret News, 1856년 10월 15일자, 252쪽.

# 신권의 책임들

클라우드 알 엠 코스타  
칠십인 회장단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앤** 더슨 장로님, 칠십인을 대표해서, 우리는 장로님을 사랑하며, 우리 마음과 믿음으로 장로님을

지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의 당당한 군대'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신성한 특권입니다. 전 세계 여러 곳에 모여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저는 겸손해짐을 느낍니다.

2003년 6월 21일에 열린 전세계 지도자 훈련모임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신권 지도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책임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책임, 즉 첫째, 가족에 대한 책임, 둘째, 고용주에 대한 책임, 셋째, 주님의 사업에 대한 책임, 넷째,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sup>2</sup>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이 네 가지

분야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가족에 대한 책임은 게을리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sup>3</sup>

가족 기도, 가족 경전 읽기, 가정의 밤 등을 인도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우리가 가진 책임입니다. 이와 같은 가족 활동들을 우선 순위에 두고 지킴으로써 우리는 가족의 영적인 토대를 세우고 강화해야 합니다. 힝클리 회장은, “그 어떤 것도 [이와 같은] 가족 활동을 방해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을 성스럽게 여기십시오.”<sup>4</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의 밤에 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가정의 밤을 위해 신성하게 지키십시오.”<sup>5</sup>

부모들처럼, 우리 자녀들도 삶의 모든 측면에서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회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친구들과 사이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 상당수가 그들이 가진 복음과 표준이 비주류로 여겨지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들은 종종 운동, 리허설이나 연습, 합창 등과 같은 행사를 월요일 저녁에 잡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밤을 할 수 있도록 월요일 저녁이 다른 활동들로 인해 지장을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가정의 밤보다 더 중요한 활동은 없습니다.

자녀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시간은 바로 가정의 밤과 그 외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들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가족 기도, 경전 읽기, 가정의 밤을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녀들이 구원과 승영의 의식들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sup>6</sup>

가정의 밤은 우리 자신과 가족 구성원 각자를 강화시킬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시간입니다. 가정의 밤 동안 가족 모두가 책임을 맡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 자녀는 지난 일요일에 배운 초등학교 공과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가정의 밤을 통해 제 가족들의 신앙과 간증은 강화되었습니다.

매일 가족이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가족 활동입니다. 아들이 일곱 살이었을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폭풍우가 치던 어느 날 밤, 아들이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제 아내는 아들을 불러 서둘러 샤워를 마치라고 하고는, 가족 기도를 해야 하니 양초에 불을 붙여 조심해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카펫에 초를 떨어뜨리면 화재가 나서 집이 다 타버릴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몇 분 후, 아들이 한 손에는 촛불을, 다른 한 팔에는 경전을 가지고 힘겹게 내려왔습니다. 아내는 아이에게 경전은 왜 들고 오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엄마, 집에 불이 나도 제 경전은 타면 안 되잖아요!” 였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사랑하라는 부모의 권고가 그 아이의 가슴 속에 영원히 자리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용주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대하여,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정직하십시오. 고용되어 있는 근무 시간에는 교회 일을 하지 마십시오.”<sup>7</sup>

또한 직장은 우리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직장이 있기에 우리는 교회에서도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권 지도자들에게는 많은 책임과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방문하고, 접견하고, 가르치며, 봉사해야 할 기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회원들을 교화하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과 간증을 복돋아 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스러운 책임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정 복음 교사로서 방문하고 돌볼 가정들이 있으며, 회원들이 주님의 방법대로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도록 가르칠 기회가 있습니다. 신권 소유자들은 청소년들이 명예로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성전에서 결혼하도록 준비시킬 책임이 있습니다.<sup>8</sup>

에즈라 테프트 벤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신권 소유자들은 잘 조직된 가정 복음 교육을 통해 정원회의 회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돌봐야 합니다.”<sup>9</sup>

우리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각각의 교회 회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 복음 교육은 우리가 가진 중대한 책임들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로서, 또한 우리에게는 자녀들에게 합당한 모범이 됨으로써 그들이 이후에 자신의 가정에서 더 훌륭한 부모이자 지도자가 되도록

도울 성스러운 책임이 있습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의 말씀대로, “모든 신권 지도자들, 특히 아버지들에게, 여러분의 아들들을 준비시킬 것을 권고합니다. 영적, 그리고 현세적인 면 모두에서 그들을 준비시켜 그들이 주님의 종처럼 보이고 행동하게 하십시오.”<sup>10</sup>

신권을 받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영원한 성약을 맺습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운이며 축복입니까! ...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을 지도자로 바라보고 있으며, 여러분은 개인들의 삶에 좋게, 또는 나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들도 그 영향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sup>12</sup>

우리의 모범은 언제나 큰 영향력을 지닐

것입니다. 교회 회원으로 지낸 시간 동안, 저는 여러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의 모범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과 와드 전체에 훌륭한 모범이 되어 주었던 한 부부가 생각납니다. 그들은 1982년에 침례 받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감독이었습니다.

셀소와 아이린은 교회에서 꽤 먼 곳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오기 위해 40분을 걸어 다녔으며, 그러면서도 결코 모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환하게 웃는 얼굴로 모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셀소와 아이린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커스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마커스에게는 선천적인 지적 장애와 지체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극 정성으로 아들을 보살피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1999년에 찾아온 뇌출혈로 인해 셀소는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셀소는 계속해서 가족과 함께 충실히 교회에 나왔으며 정직한 십일조와 후한 금식 헌금을 냈습니다.



이제 제 아들 모로나이가 그들의 감독인데, 제 아들은 셀소와 아이린이 여전히 충실하게 봉사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와드의 부름에서뿐만 아니라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에서 의식 봉사자로도 충실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주 금요일, 새벽부터 밤까지 봉사합니다. 이 부부는 교회에서의 책임을 수행하면서 언제나 참으로 기꺼이 그들의 시간과 자원을 바칩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신권 소유자가 베푸는 대부분의 봉사는 소리 소문도 없이 조용히 끝납니다. 친절함 웃음과 따뜻한 악수와 진리에 대한 진실한 간증은 문자 그대로 삶을 고양시키고 인간의 속성을 변화시키며 소중한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sup>13</sup> 그것이 바로 셀소와 아이린이

행한 조용한 봉사입니다.

가족과 고용주와 교회 부름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고자 고려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모든 신권 소유자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지고 있는 책임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돕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sup>14</sup> 우리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부터 오는 권고는 우리가 받는 가장 귀중한 도움의 근원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 모든 개개인에게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이 권유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고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sup>15</sup>

그분의 사업을 행하며 우리의 뜻이 아닌 그분의 뜻을 따를 때, 멍에가 쉽고 짐이 가볍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그분의 교회에서 지니고 있는 모든 책임들에서 성공을 거두는데 필요한 만큼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신권을 소유한 형제로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오늘날 이 지상의 살아 계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보라 당당한 군대”, 찬송가, 169장 참조.
2. 고든 비 힝클리, Rejoicing in the Privilege to Serve,” 전세계 지도자 훈련모임, 2003년 6월 21일, 22쪽.
3. 전세계 지도자 훈련모임, 2003년 6월 21일, 22쪽.
4. 전세계 지도자 훈련모임, 2003년 6월 21일, 22쪽.
5. 전세계 지도자 훈련모임, 2003년 6월 21일, 23쪽.
6. 러셀 엠 넬슨, “여성을 존중해야 하는 우리의 성스러운 의무, 리야호나, 1999년 5월호, 45쪽.
7. 전세계 지도자 훈련모임, 2003년 6월 21일, 23쪽.
8. 제일회장단 서한, 1996년 9월 25일, “지도자 훈련 역점”
9. 에즈라 테프트 벤슨 “Strengthen Thy Stakes” *Tambuli*, 1991년 8월호, 6쪽.
10. 엠 러셀 벨라드, “봉사하기 위한 준비”, 성도의 빛, 1985년 5월호, 46쪽.
11. 엠 러셀 벨라드 장로, The Greater Priesthood: Giving a Lifetime of Service in the Kingdom, *Ensign*, 1992년 9월호, 72쪽 참조.
12. 토마스 에스 몬슨. “의로움의 모범”, 리야호나, 2008년 5월호, 65~66쪽. 또한 엔 엘턴 테너 “For They Loved the Praise of Men More Than the Praise of God”, *Ensign*, Nov. 1975, 74.”
13. 토마스 에스 몬슨, “배우고 행하고 되어야 할 사람이 됨”, 리야호나, 2008년 11월호 62쪽.
14. 전세계 지도자 훈련모임, 2003년 6월 21일, 23쪽.
15. 마태복음 11:29~30.

# 우리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우리는 우리의 성스러운 의무로부터 주의를 빼앗길 수 있어서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집중력을 상실할 수  
있어서도, 상실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는 몇 달  
전부터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생각해  
두었습니다. 그 동안, 저는 저의 메시지의  
실례가 될 만한 이야기를 찾아보았습니다.  
농업에 관한 이야기도 찾아보고, 동물에 관한  
이야기도 찾아보았습니다. 스코트 장로님을  
존경하여, 핵 공학에 관한 이야기도 찾아보고,  
문슨 회장님을 존경하여, 비둘기 기르는 것에  
관한 이야기도 찾아보았습니다.

결국은, 수년 동안 제 기억 속에 각인된 한

이야기가 떠올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농업, 동물, 핵 공학, 또는 비둘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짐작하셨겠지만, 그것은  
비행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전구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 전구 이야기, 또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시야를 상실하는 것

36년 전 12월의 어느 어두운 밤, 록히드  
1011 점보 제트기가 플로리다 주  
에버글레이즈에 추락하여 1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는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추락 사고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의문점은 모든 중요 부품과  
기체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32.19킬로미터 떨어진  
마이애미의 목적지에 쉽고 무사히 착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착륙시에, 승무원이 녹색 등  
하네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등은 앞 바퀴가 성공적으로  
펼쳐졌는지 여부를 표시해 줍니다. 조종사들은  
활주로 진입을 중지하고, 계속해서 칠흙 같은  
에버글레이즈 상공을 선회하며 문제를 찾는 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찾는 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비행기가 점차 아래에 있는 어두운 늪  
가까이로 하강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챘을 때에는 재난을 피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 조사원들은 원인을  
규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앞 바퀴는 정상적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기계적으로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빼고  
말입니다. 그것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  
하나였습니다. 20센트 밖에 안 하는 작은  
전구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고의 시초였던 것입니다.

물론, 제 기능을 못한 전구 자체가 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사고는 승무원이 그  
순간에 중요해 보이는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시야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을 무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경향은 비단 조종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모두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운전  
에 집중하는 운전자는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일에 집중하는 운전자보다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큼니다.

우리는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충실한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가르쳐주는 성신을 “영원한 동반자”로  
삼습니다. 오늘 제 음성을 듣고 있는 신권  
소유자분들 중 어느 분이라도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해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면,  
아주 잘할 수 있고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약점은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시키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잠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촉박한 마감 시간에 쫓겨 급히 일을 끝내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로 향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그 순간에만 중요한 덧없는 것들에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놓기 싫어 붙들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좋은 남편, 아버지, 아들, 신권 소유자가 되는 데 방해가 되는 어떤 변명들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 또는 여러분의 부름을 더 부지런하고 영화롭게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종종 그것들은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이라도 지나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조상을 찾거나 블로그를 만드는 일에 시간을 쏟느라 자녀와 손자 손녀들과의 소중한 뜻 깊은 시간을 간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땅의

잡초만을 뽑느라 며칠을 보내는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옥죄고 있는 영적 잡초는 보지 못하는 정원사도 그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교회 프로그램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시간과 주의를 지배하게 된다면, 그런 교회 프로그램들도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의 행위를 통해 증명합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선행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옛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sup>2</sup> 합니다.

사랑하는 신권 형제 여러분, 우리는 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권의 열쇠가 다시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기대와 준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벽, 하나님의 아들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sup>3</sup> 복천년 통치를 예고하는 그날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가족과 세상을 준비시키라고 맡기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신권을 부여 받았으며 하늘 왕의 대리인으로 행할 책임과 권능과 권리를 부여 받았습니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가장 중요하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영원한 가치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스러운 의무로부터 주의를 빼앗길 수 있어서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집중력을 상실할 수 있어서도, 상실해서도 안 됩니다

### 느헤미야

구약의 느헤미야는 중요한 일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전념하는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인으로서 바벨론 유수 중에 살았으며 왕의 잔을 나르는 자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에게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sup>4</sup>

왕은 이 말을 듣고서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읍을 재건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계획을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던 몇몇 통치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sup>5</sup> 심히 근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바웃[었습니다.]”<sup>6</sup>

두려움 없이, 느헤미야는 반대에 직면하면서도 주의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자원과 인력을 조직하여 성읍 재건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기”<sup>7</sup>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벽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반대가 극심해졌습니다. 느헤미야의 적들은 위협하고, 음모를 꾸미며,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위협은 매우 실질적이었으며, 느헤미야가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sup>8</sup> 했다고 고백할 정도로 강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위협과 전례 없는 침략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긴장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일꾼들이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sup>9</sup>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속 진행될수록, 느헤미야의 적들은 더욱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분쟁 해결을 구실로 그에게 네 번씩이나 안전한 성읍을 떠나 자신들과 만나자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의도가 자신을 해하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간청할 때마다 그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sup>10</sup>

이 얼마나 훌륭한 답변입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은 느헤미야의 분명하고 한결같은

마음가짐과 생각으로, 그리고 단호한 의지로 높아졌으며 놀랍게도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sup>11</sup>

느헤미야는 주님께서 그에게 바라셨던 일을 방해하는 것들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 우리는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와 비슷한 마음과 정신을 가진 충실한 많은 신권 소유자들에 의해 고무되고 영감을 받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며 여러분이 지닌 신권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의 순결한 마음과

확고부동한 결심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충실에 대해 축복하시며,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그분의 왕국을 이 지상에 세우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느헤미야 같지는 않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권 형제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의 백성처럼 “마음 들여 일”한다면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sup>12</sup>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합당한 신권 소유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대표자가 된다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개인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가정에서, 와드와 지부에서 어떤 일이 성취될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이 온 세상에서 어떻게 전진하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권을 지닌 모든 사람이 허리를 동이고 자신의 참된 잠재력에 따라 생활하고, 영혼 깊이를 참되고 충실한 신권 형제로 개심하며,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헌신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 보십시오.

주의가 분산되기는 쉽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든 간에,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 하나 또는 불친절한 사람들의 불손한 행동에 집중하기란 쉽습니다. 그러나 집중력을 잃게 하거나 우리의 표준, 즉 하나님의 표준을 낮추게 하려는 모든 유혹에 대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신권 조직으로서 갖게 될 힘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큰 어려움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느헤미야와 같은 신권 맹세와 성약을 지키는 충실한 형제들을 찾고 계십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흔들리지 않는 영혼들, 즉 반대와 유혹에 직면하면, 마음속으로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영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시련과 비극적인 고통에 직면할 때, 그들은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라고 답합니다.

조롱과 비난에 직면할 때, 그들은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소한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분이 행하라고 주신 일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안락의 유혹이나 역경의 빚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들 즉,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우리 각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것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일어나서 신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손을 뻗으시고 들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이 후기에 우리가 해야 할 위대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교리는 누군가가 고대 경전의 의미를 가장 잘 추측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하늘의 진리입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자신이 보았다고 말한 것을 보았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는 정말로 하늘을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그리고 천사들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그분을 찾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그분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기쁘게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에게 해야 할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에서 있습니다. 유혹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우리의 표준을 낮추지 않으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든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을 극복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용감하게 휘날리며 확고한 결심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신권에 합당하게 되기를, 그리고 인간에게, 우리의 머리를 들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않겠노라”라고 외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로마서 6:6
2. 조셉 스미스 역, 야고보서 1:27
3. 메살로니가전서 4:16
4. 느헤미야 2:3
5. 느헤미야 2:10
6. 느헤미야 4:1
7. 느헤미야 4:6
8. 느헤미야 6:9
9. 느헤미야 4:18
10. 느헤미야 6:3
11. 느헤미야 6:15 참조.
12. 고린도전서 13:11

# “부상자 발생!”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충실한 신권 봉사의 마음속에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존재합니다.



**하** 나님의 신권 소유자 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영광스럽고 축복된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제 바람은 여러분이 신권 봉사에서 용감하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주님의 군대의 일원이 되셨기에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은 평화의 시기가 아닙니다. 사탄이 전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항하여 그의 군대를 정렬하여 반기를 든 이래로 그래왔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의 자세한 부분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지상으로 추방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의 창조 이후로 분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 전쟁이 격심해짐을 봅니다. 경전에서는 전쟁이 더욱 맹렬해질 것이며 주님의 편에 선 영적

사상자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영화에 나오거나 소설에 묘사된 전쟁터의 광경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폭발의 굉음과 병사들의 외침 너머로 “부상자 발생!”이라는 절규가 들립니다.

그런 절규가 들리면, 충실한 동료 병사들은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다른 병사나 의무병은 위험을 무릅쓰고 부상당한 동료의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병사는 누군가 자신을 도우러 오리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누군가가 몸을 낮추고 달리거나 포박하면서 늦기 전에 그곳에 다가가 그를 보호하고 도울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짐한, 어렵고도 위험한 작전에 참가한 모든 병사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한 집단의 역사는 그 누구도 뒤에 남기고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한 충성스런 병사들의 일화들로 가득합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한 예가 있습니다! 1993년 10월 소말리아 전투 중에, 헬리콥터에 타고 있던 두 명의 미 육군 특수부대원들은 전투 중 근처에 다른 두 대의 헬기가 추락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높이에 떠 있던 그 두 특수부대원은 추락한 헬기 중 하나의 승무원들을 구조할 지상 병력이 없다는 교신을 들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적들이 추락 지점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보던 그 두 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가겠다고 자원했습니다.(교신에서 사용한 용어는 “투입하겠다” 였습니다) 그러나 그 요청은 상황이 너무나 위험하기에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번 더 요청했습니다. 역시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요청한 뒤에야 그들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개인 화기로만 무장한 채, 그들은 사격을 가하며 추락한 헬기와 부상당한 병사들 가까이로 다가갔고, 적들이 격추 지점으로 모여드는 가운데 총격이 집중되는 사이를 뚫고 전진했습니다. 격추된 잔해로부터 부상자들을 끌어내고는, 엄폐가 되지 않는 가장 위험한 지점에 자신들을 노출시킨 채 부상자들 주위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탄약이 고갈될 때까지 동료들을 보호하던 두 대원들은 결국 치명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그들이 없었으면 살리지 못했을 한 조종사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사망한 뒤, 무장한 적들 가운데로 뛰어든 그들의 용기를 치하하여 국가 최고 훈장인 명예 훈장이 주어졌습니다. 표창장에는 그들의 행위가 “군인의 의무를 넘어서는 것이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대원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부상당한 조종사들에게 간 것일까 의문을 갖습니다. 그들은 대가가 무엇이든, 부상을 당한 동료 병사들 곁에 가는 것은 서로간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비이기적인 봉사는 자신들이 동료들의 목숨과 행복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충실한 신권 봉사의 마음속에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동료들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위험에서 보호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상은 영감 받은 눈이 아니고서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독, 지부 회장, 그리고 선교부 회장들은 자신의 동료인 구주의 제자들 앞에



마주 앉아 있을 때 그런 상처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감동이었을 때, 신권을 소유한 한 청년의 얼굴과 자세를 보고 있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너무 분명하게 임해 거의 이런 음성이 귀에 들리는 듯 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저 형제를 빨리 만나보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하다.”

저는 결코 그런 느낌을 미루지 않는데, 왜냐하면 죄의 상처는 상처를 입는 사람에게도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때때로 상처를 입히면서도 그 영적 고통을 마비시키는 무엇인가를 주사기로 주입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서 곧 회개를 시작하지 않는 한, 그 상처는 더 심해지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영적 생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신권

소유자로서, 여러분은 “부상자 발생!”이라는 절규를 들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도움을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절친한 친구나 다른 지도자들 또는 부모들조차도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감을 통해 경고의 음성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생각하도록 유혹 받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도 느끼지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긴 하지만 그저 내 상상일지도 모르지. 내가 어떤 권리로 남을 판단해? 이건 내 책임이 아니잖아. 그가 도움을 청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자.”

권세를 가진 이스라엘의 판사만이 심각한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조사해 볼 권능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 필요한 치료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약에 따라 영적으로 부상 당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을 만큼 용감하고

담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두 가지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부상당한 친구를 돕기 위해 가야 할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까? 둘째, 어떻게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은 신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이 행한 일 또는 하지 않은 일로부터 오는 모든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일이든 간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하듯이 그 엄숙한 책임을 함께 짚어낸 신권 소유자들의 모범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경에서 야곱은 도움을 주기가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의 성스러운 책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 야곱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내가 지고 있는 바, 진지하게 나의 직분을 영화롭게 해야 할 책임을 좇아, 그리고 나의 옷을 너희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자, 오늘 성전 안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려 하노라.”<sup>2</sup>

여러분은 야곱은 선지자였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직분에는, 그것이 어떤 신권의 직분이든 간에, 여러분 주위에서 “쳐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라”<sup>3</sup>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 그분이 여기 계셨다면 하셨을 일을 최선을 다해 행하도록 성약한 주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기회와 책임이 전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여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여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sup>4</sup>

그로부터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만이 인간의 영혼을 허참게 다룰 것이다.”<sup>5</sup>라는 조셉 스미스의 참되고 날카로운 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믿었듯이, 도와줄 수 있었음에도 돕지 않아서 누군가 넘어져 화를 입었다면, 이는 곧 돕지 않은 자 자신의 슬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신권 소유자로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의 행복은 서로 결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여러분이 봉사하고 구조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도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 그리고 영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사람과 여러분이 맺고 있는 신권의 관계의 특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신권 봉사를 하면서 때때로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예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미숙한 후임 동반자인 경우부터 시작해 봅시다. 아론 신권 교사 직분의 청남이 경험 많은 동반자와 함께 한 젊은 가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에 앞서 그 가족의 필요사항을 느끼고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지를 알도록 힘과 영감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가능하면, 동반자와 함께, 방문할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은 개인적으로 그 가족들과 하나님께 가까워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동반자는 성취하려는 바가 같으며, 여러분은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든, 방문하는 동안 여러분은 열심히 그리고 겸손하게 지켜보고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리고 미숙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와 필요사항을 완전히 아십니다. 주님은 그 가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을 그 가족들에게로 보내셨음을 알기에, 여러분은 그들의 필요사항과 그들을 돕는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지를 알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은



방문하여 그들을 마주하고 있는 동안 올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교리와 성약에서 다음의 신권의 책무를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며, 소리를 내어서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면해라.”<sup>6</sup>

그리고 거기에 보다 더 큰 분별력을 요하는 추가적인 책무가 있습니다.

“교사의 의무는 교회를 항상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힘을 북돋아 주며,

“교회 안에 악행이 없도록, 서로 감정이 대립되는 일이 없도록, 거짓말하는 일, 험담하는 일이나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보살피며,

“교회 회원이 자주 함께 모이도록 보살피며, 또한 모든 회원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도록 보살피는 것이니라.”<sup>7</sup>

여러분과 여러분의 동반자는 그 가족들이 그 표준을 어느 정도로 지키고 있는지 그 세부적인 것까지 말해 주는 영감을 받는 일은 좀처럼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을 통해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잘 하고 있는 부분을 알게 되는 은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부분을 계속

격려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약속은, 방문한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영적인 치유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영감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삶에서 무언가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 말 속에는 분명 주님이 그들에게 달라지기를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동반자가 그 가족이 그러한 변화를 조금 서둘러서 시작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를 지켜봐 주십시오. 그가 말하도록 성신이 그를 인도하는 방법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동반자의 목소리에서 사랑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필요한 변화와 그를 통해 오게 되는 축복을 함께 결속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버지나 어머니라면, 동반자는 그 변화가 어떻게 자녀들을 행복으로 이끄는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 변화는 곧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안전하고 나은 곳으로 가는 길임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방문에서 여러분이 한 부분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표정과 태도를 통해 여러분이 그들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주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음을 그들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진리에 대한 간증을 담대하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하고 단순하며, 어찌면 짧은 여러분의 간증이 경험 많은 여러분 동반자의 간증보다도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보았습니다.

신권 방문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을 위해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도우려는 소망은 적어도 두 가지 축복을 가져옵니다. 첫째, 여러분이 방문한 사람들에게 대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구주께서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가서 그 도움을 주려는 여러분의 소망에 대해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심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그리고 행복으로 나아오도록 권면할 것이라 믿으셨기에,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나이를 조금 더 먹고, 십대 청소년의 시기를 맞으면, 신권 봉사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료 정원회 회원과 친해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농구나 축구도 하고, 청소년 활동과 봉사 계획에 함께 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몇몇과는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친구들이 행복해 하거나 시무룩한 때를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친구 모두 정원회에서 권세를 지닌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신권 동료인 그 친구에 대해 책임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계명을 여기기 시작하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털어놓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그에게 영적인 상처를 입힐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여러분을 신뢰하기에,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일 여러분이 그 친구를 위험한 길로부터 벗어나도록 할 수 있다면, 그의 참된 친구가 되어 주었다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일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 친구가 후회와 슬픔을 느끼게 될 때, 여러분은 그의 고통을 여러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그의 친구일 것입니다. 사실, 그 친구는 그가 그러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지, 그리고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 이후로도 수년 동안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를 격려하고, 속죄가 여전히 그에게 열려 있음을 말하며 청소년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행복한 상태로 돌아오도록 다시 권유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아버지, 즉 신권을 소유한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권 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슬픔을 벗어나 행복에 참여하도록 도우면서 배운 것들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려는 책임감으로 지낸 수년 동안의 시간은, 여러분이 청소년 시기에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갖게 될 여러분 자신의 가족을 더 잘 돕고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권의 권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이끄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생 동안,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신권 봉사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먹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음과 위험도 기꺼이

감수했던 모사이아의 아들들의 용기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비참함의 위기에 처한 낯선 자들의 영원한 행복이 그들의 손에 놓여 있다는 책임감에서 그들은 소망과 용기를 찾았습니다.<sup>8</sup>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광의 왕국을 떠나 낮은 곳으로 내려와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목숨을 바치라는 요청을 받으셨을 때 여호와께서 품으셨던 소망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아버지께 “나를 보내소서.”<sup>9</sup> 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으며 그분의 자녀들을 돌보도록 보내심을 받았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누구도 뒤에 홀로 남겨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몬슨 회장님은 모든 지상의 신권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 가능케 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도록 돕는 여러분의 책임에 하나님께서 영감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주

1. *The U.S. Army Leadership Field Manual*(2004년) 28~29 참조.
2. 야곱서 2:2.
3. 교리와 성약 81:5.
4. 전도서 4:9~10.
5. 교회사 3:295.
6. 교리와 성약 20:47.
7. 교리와 성약 20:53~55.
8. 모사이아서 28:1~8 참조.
9. 아브라함서 3:27 참조.



#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우리 각자는 힘써 자신의 의무를 배우고 난 후 자신의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그것을 행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비롯한 전 세계 각지에 함께 모이신 사랑하는 신권 형제 여러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 제게 부여된 이 책임 앞에서 겸허해짐을 느낍니다. 앞서 이미 전달된 여러 연사들의 말씀을 지지하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 진실한 사랑과 여러분의 신앙과 헌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형제 여러분, 신권 소유자로서의 우리의 책임은 교리와 성약에 기술된 바처럼 지극히 중대합니다. “대신권 곧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과 권세는 교회의 모든 영적 축복의 열쇠를 지니는 것이니...”<sup>1</sup> 더 나아가서 “소신권 곧 아론 신권의 권능과 권세는 성약과 계명에 따라 천사의 성역의 열쇠를 지니며, 외형적 의식 곧 복음의 조문과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침례를 집행하는 것이니라”<sup>2</sup>

훗날, 교회 제11대 회장으로 봉사했던 해롤드 비 리 회장은 1958년에 신권을 “악의 세력과 맞서는 주님의 군대”로 기술했습니다.<sup>3</sup>

존 테일러 회장은 “신권에 의해 명확하게 드러나는 힘이 참으로 하나님의 권능”<sup>4</sup>이라고 언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의해 주어진 이러한 감동적인 선언들은 하나님의 신권을 지닌 남자나 소년 하나 하나가 그 위대한 특권과 책임에 합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각자는 힘써 자신의 의무를 배우고 난 후 자신의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그것을 행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을 이곳 지상에서 성취시키는 방편이 됩니다. 이곳에서 그분들을 대표할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우리는 여러 난관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참으로 위협적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므로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신권을 합당하게 지닐 때, 우리는 당당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자신에게 부여된 신권 성임의 중요성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매주 일요일, 성찬을 집행하고 전달하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참여함으로써 모든 와드 회원의 삶에 지극히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사 정원회 서기로 봉사할 특권을 누렸습니다. 우리 정원회 회원들이 수행했던 많은 임무 지명들이 기억납니다. 성찬을 전달하고, 매달 금식 헌금을 거두고, 서로를 돌보던 기억들이 제 마음에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런데 가장 두려운 임무지명이 와드 대회의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일어났습니다. 감리하시던 스테이크 회장단 한 분이 와드 역원 중 한 분에게 뭔가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런 후 그 와드 역원이 일어나 느닷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와드의 어린 역원 중 한 명인 토마스 에스 몬슨 집사 정원회 서기에게 자신이 한 봉사에 관한 이야기와 간증을 나눌 것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은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sup>5</sup>

주님은 이전 세대의 신권 소유자들에게 이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앞서 나아 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 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sup>6</sup>

형제 여러분, 지금은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때입니다. 신권을 가진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필멸의 삶의 여정 동안 때로 위험에 처할지라도, 지키고 따르면 우리를 안전으로 이끌어줄 세가지 제안을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1. 부지런히 공부하십시오.
2.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3. 의롭게 생활하십시오.

이러한 제안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거듭 반복해서 가르쳐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인다면 적을 막아낼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것들을 무시한다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힘과 영향력을 갖도록 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첫째, 부지런히 공부하십시오. 신권을 가진 모든 형제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경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벼락치기 공부는 경전을 매일 읽고 삶에 적용시키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경전이 가르치는 교훈에 친숙해지십시오. 주님의 비유와 선지자의 훈계들이 주어진 배경과 상황을 배우십시오.

그분들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들을 공부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리하이와 그의 아들 니파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그것을 굳게 붙드는 것의 중요성을 각자 시현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에게 보여진 쇠막대에 대하여 니파이는 믿지 않는 형들인 레이맨과 레우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쇠막대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굳게 붙들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겠고, 유희이나 대적의 불화살도 그들을 이겨 눈멀게

하여 멸망으로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느니라.

“이리하여 나 니파이는 그들이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들을 권면하였나니, 참으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일에 항상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기억하도록 내 영혼의 힘을 다하여, 또 내가 지닌 능력을 다하여 그들을 권면하였느니라.”<sup>7</sup>

아론 신권을 가졌든 멜기세덱 신권을 가졌든 간에, 경전을 부지런히 공부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유희를 피하고 성신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힘이 커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둘째,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론 신권 형제 여러분, 멜기세덱 신권 형제 여러분, 성스러운 숲에서 선지자 조셉이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고 응답된 기도의 결과를 보십시오.

아담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드린 기도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참새 한 마리도 마음에 두시는 그분께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여러분의 간구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다음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sup>8</sup>

지금 제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크고 작은 난관과 도전에 맞서 힘겹게 투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 드립니다. 기도는 영적인 힘을 제공합니다. 기도는 평화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여권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가가는 방편입니다. 그분께 기도로 말하고 귀 기울여 응답을 들으십시오. 기적들은 기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데이지 오겐도 자매는 인구가 팔백만 명이 넘는 뉴욕 시에 살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오겐도 자매는 선교사들과 만나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그녀와 선교사들





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후, 2007년에 선교사들이 가르쳐 주었던 복음 원리들이 그녀의 마음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어느 날 데이지는 택시를 타려다, 좀 떨어진 곳에 선교사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이미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다시 한 번 선교사들을 자신에게로 데려다 주신다면 그들에게 문을 열어 줄 것이라고 그분께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신앙을 마음에 품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한편,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가르칠 사람을 찾고자 노력하던 두 젊은 선교사들이 어느 날 그 지역에서 앞서 봉사했던 선교사들의 전도 기록들을 면밀히 살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데이지 오겐도라는 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겐도 자매가 짧지만 열렬한 기도를 드렸던 바로 그날 오후에 그들이 그녀의 아파트로 찾아 가자, 그녀는 문을 열고

모든 선교사에게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릴 말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장로님들, 들어오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절한 두 기도가 응답되어, 다시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선교사 토론이 가르쳐졌고 데이지와 그의 아들 에디가 침례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안할 것은 **의롭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인 이사야는 신권 소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당부를 하셨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 여호와와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찌어다.”<sup>9</sup> 참으로 분명하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권 소유자들은 반드시 말을 잘하는 달변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어려운 학문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학위를 받아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수입으로 살아가야 하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므로,

그분의 종들이 우리 시대의 악을 피하고 유덕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을 의 가운데에서 지지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북쪽으로 약 140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캐나다, 알버타 주에 속한 캘거리라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은 캐나다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연중행사 중 하나이자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야외 로데오가 벌어지는, 유명한 캘거리 스탬피드의 개최지이기도 합니다. 열흘간 진행되는 이 행사에서는 로데오 경기, 여러 전시회, 농산물 전시, 역마차 경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축제 첫날에 벌어지는 스탬피드 퍼레이드는 축제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전통 중 하나입니다. 캘거리 중심가를 약 5킬로미터 정도 걸어가며 펼쳐지는 퍼레이드에는 35만 명 정도의 구경꾼이 모여들며, 많은 사람들이 카우보이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유타 주의 어느 큰 고등학교 고적대가 오디션을 통해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캘거리 스탬퍼드 퍼레이드에서 행진할 수 있는 참가 자격을 받았습니다.

고적대는 캘거리로 가서 퍼레이드에 참가하기 위해 수개월간 기금도 모으고, 이른 아침에 길거리 행진을 연습하며, 기타 여러 준비도 마쳤습니다. 심사를 통해 퍼레이드에 참가한 고적대 중 한 팀에게는 우승의 영예가 주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출발 날이 이르러, 들뜬 학생들과 인솔자들이 버스를 타고 캘거리로 향해 북쪽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들은 도중에 캐나다의 알버타 주 카드스톤에 정착하여 하룻밤을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지역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고적대 단원들이 출발에 앞서 먹을 수 있도록 간단한 점심 식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고적대의 일원이자 아론 신권의 제사 직분을 지닌 브래드는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아 점심을 남겨 두었다가 나중에 먹기로 했습니다.

브래드는 버스 뒤쪽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캘거리까지의 남은 여정을 위해 평소대로 자리에 앉으면서, 점심을 맨 뒷좌석 뒤에 있는 선반에다 두었습니다. 7월의 뜨거운 오후 햇살을 받으며, 점심은 버스 뒤 유리창가에 그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점심 봉지에는 계란 샐러드 샌드위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 못하는 분이 있다면, 계란 샐러드는 냉장 보관해야 한다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화창한 날 버스의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과 같은 고열에 노출된다면, 온갖 종류의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있는 세균 배양기가 되어 식중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캘거리 도착을 앞두고 브래드는 배가 고파졌습니다. 점심 봉지를 기억하고는 계란 샐러드 샌드위치를 단숨에 꿀꺽 집어 삼켰습니다. 버스가 캘거리에 진입하여 시내에 들어서자, 고적대원들은 점차 기분이 들떴지만 브래드 만은 예외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식중독에 따른 격심한 위통과 기타 불쾌감이 점차 강해졌습니다. 어떤 기분일지 잘 아실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고적대원들은 버스가 떠나갈 듯 환호했지만, 브래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는 동료 고적대원들이 그 다음날 아침 퍼레이드에서 그가 북을 쳐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몸을 구부리고 너무 아파 버스에서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한 최근에 멜기세덱 신권의 장로 직분에 성임된 스티브와 마이크는 브래드가 보이지 않자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버스 뒷좌석에서 브래드를 찾아내고, 문제가 뭔지 알아낸 스티브와 마이크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마침내 자신들이 장로이고 병자를 축복할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을 가졌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떠올랐습니다. 신권 축복을 준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이들 두 장로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브래드의 머리 위에 얹고 멜기세덱 신권의 권세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브래드가 낮게 해 달라고 간단한 말로 축복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브래드의 증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는 나머지 고적대원들과 함께 퍼레이드에 참가하여 캘거리 거리를 자랑스럽게 행진했습니다. 고적대는 일등의 영예를 차지했고 누구나 탐내는 블루 리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두 어리고, 미숙한, 하지만 합당한 신권 소유자들이 그들의 동료에게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을 대신하라는 부름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움을 몹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신들의 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을 때, 그들은 의롭게 생활했기 때문에 그 부름에 응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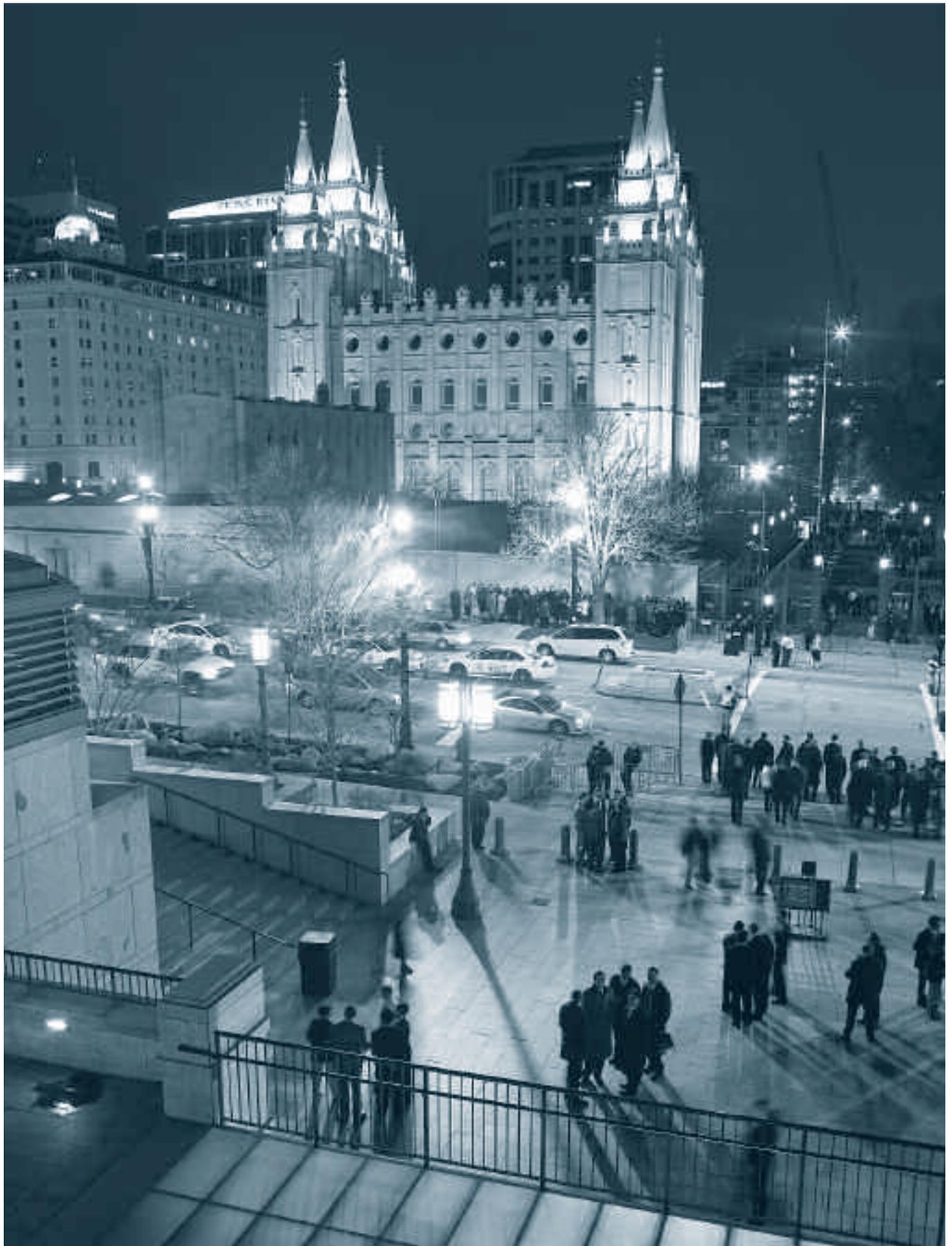
형제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여행길은 때때로 험난할 것입니다. 진로를 계획하고, 신중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의롭게 생활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이 일은 주님의 일이므로 결코 절망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짐을 질 수 있도록 등을 만드셨다.”

불굴의 용기로 곳곳하게 서서 여호와와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sup>10</sup> 고 단호히 외칠 때, 복잡하고 변화하는 세상의 거센 도전들에 맞서기 위해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는 힘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 주

1. 교리와 성약 107:18.
2. 교리와 성약 107:20.
3. 해롤드 비 리, “신권,” 1958년 7월 17일, 브리검 영 대학교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 직원에게 행한 말씀.
4. 존 테일러, *The Gospel Kingdom*, G. Homer Durham(1941년), 130쪽에서 발췌.
5. 베드로전서 3:15.
6. 교리와 성약 84:88.
7. 니파이전서 15:24~25.
8. 야고보서 1:5.
9. 이사야서 52:11.
10. 여호수아 24:15.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직원

## 제일회장단

2009년 4월



헨리 비 아이어링  
제1보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제2보좌

##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팩커



헨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퀸스



엠 러셀 홀트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퀸틴 엠 쿡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닐 앤더슨

## 칠십인 회장단



로버트 에이 라스뮌슨



마크 앤드류 엠 스미스



스티븐 이 스노우



월터 에프 러글스



브렌트 니 올리버



제이 이 홀랜드



도널드 엠 한스

## 철십인 제일 정위원회



미로코스 에이아이투어티스



키틀로스 에이저 아미도



마빈 비 아버노



데이비드 애스 부스터



세인 영 보헨



제럴드 코시



최영환



크레이그 시 크리스티슨



케리 제이 코용만



스펜서 제이 콘디



윌리엄 더브로스키



코이저 (아오)키



더블러스 웬 멀러스터



테드 웬 멀러스터



로널드 이 코브러지



벤저민 디 훈크스



존 비 뉘슨



찰스 디디에이



데이비드 에트 에간즈



엔리케 알 엔겔라



앤드류제트 기버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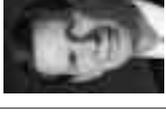
케넬로스 에이 고아디



크리스토퍼 골든 그로우



시 스토프 그로우



크레이그 에이 카건



브룩스 에이 카건



왈터 디 크리스티슨



돈 웬 멀러크



버투스 시 하헨



제임스 제이 해글러



커트스 케이 헬비그



리처드 지 헬블러



윌리엄 케이 힌슨



다니얼 엠 훈슨



폴 케이 훈슨



요시오카 기야마



훙 이 캉가



캐빈 더브로스키



찰스 엠 존슨



케빈 엠 존슨



스펜서 제이 존스



브라틀러 디 포스터



에릭 더브로스키



존 엠 헨던슨



리처드 제이 메이erson



린 에이 미켈슨



마커스 비 내쉬



데니스 비 노온



로버트 에이저 님스



글렌 엠 오이크스



앨런 에이저 팩커



캐빈 더브로스키



대니얼 에이저 간



래비 더브로스키



스펜서 제이 존스



고원웅



앤소니 디 피긴스



폴 비 파피퍼



래비엘 이 파노



브루스 디 포터



윌 비 프랫



데일 지 툴런트



마이클 디 왓슨



린 지 톰핀스



세뮤얼 J. 휘얼슨



조셉 더브로스키



찰스 엠 존슨



로버트 시 위क्स



윌리엄 더브로스키



그레고리 에이 슈타이저



윌리엄스 조지윅



케리 제이 코용만



마이클 존 코움



호세 에이 테제이라



윌리엄 비 프랫



폴 엠 즈윅



로버트 에이저 님스



조지 에프 제브로스



린스 지 톰핀



세뮤얼 J. 휘얼슨



폴프랭크 에이저 풀



켄트 에프 존슨



다블로스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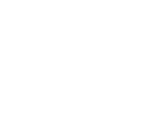
로버트 애스 유드



윌리엄스 조지윅



다블로스키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 간리 감독단

리처드 시 에글린  
제일부좌

에이저 데이비드 바든  
김리 감독

키스 비 덕말린  
제일부좌

## 철십인 제이 정위원회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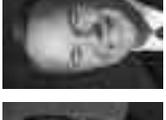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윌리엄스 조지윅



전 세계의 후기 성도들이 연차 대회를 위해 모였다. 좌측 맨 아래 사진부터 시계 방향으로, 피지, 수바; 루마니아, 클루즈-나포카; 러시아, 모스크바; 멕시코, 베르메질로, 두랑고; 멕시코, 옥사카, 주치탄; 브라질, 상파울루; 폴란드, 와소

# 제자의 길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이 걸으신 길을 걸을 때입니다.



**오**늘은 기독교계에서 전통적으로 종려 주일이라 부르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필멸의 삶 마지막 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약 2000년 전의 그 일요일이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sup>1</sup> 스가랴의 오래 전 예언대로,<sup>2</sup> 그분은 나귀 위에 타셨고, 그때 많은 무리가 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앞에 종려나무 잎과 꽃 가지와 자신들의 겂옷으로 길을 덮었습니다. 그분이 가까이 오시자 무리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sup>3</sup>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것이 전환점, 즉 유대 세계가 드디어 예수님을 오래 기다려 왔던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찬양의 외침과 환호성이 일시적일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곧 감람산에 오르시고 그곳, 겿세마네에서 홀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실 것을 아셨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종려 주일에서 부활의 아침까지, 이번 주 동안 우리는 빛의 근원이시며 생명이시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생각을 돌리는 것이 온당합니다.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그분을 정치적 압박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킬 위대한 왕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분은 그 이상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참으로 값진 진주와도 같은 복음을 주셨고, 적용하기만 하면 행복과 평화와 성취의 삶을 열어 주는 원대한 지식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계시입니다. 이것은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며, 희망과 기쁨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구속과 행복의 계획을 마련하셨다는 확신입니다.

복음은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위험과 슬픔과 불확실의 시기에서조차 우리는 확신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세상 사람들의 길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걱정하고,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자신들의 능력에 의혹을 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개인적으로 불운과 슬픔을 겪어 왔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쏠리는 관심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세상은 망설임 없이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 무수한 새 답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는 듯한 영혼의 질문들에 답해 줄 무언가를 찾고자 새로운 지식들 사이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미나에 참석하고 서적들과 CD들 및 기타 제품들을 구매하며 새로운 흥밋거리에 열중합니다. 그러나 결국 새로운 이론의 불길은 사라지고 전에는 불가능했던 것을 해 준다고 약속하는 또 다른 “새롭고 향상된” 해결책이 이를 대체할 뿐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선택에 진리의 요소가 들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중 많은 것에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는 모두 실패합니다. 흥분이 가신 뒤에는 공허함이 남게 되고, 참된 행복의 비밀을 알게 된 순간 바로 새로운 지식을 찾게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잡하거나 숨겨져 있지 않으며 누군가의 이론이나 제안도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진리를 아시는 분의 순수하고 영원한 샘에서 솟아나옵니다. 그 지식과 함께 그분은 우리에게 신성한 은사이자 행복과 성공의 궁극적인 공식인 복음을 주셨습니다.

##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진리를 들을



때, 희망과 신앙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sup>5</sup>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우면 채울수록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우리의 소망도 커지게 됩니다. 동시에, 이 소망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 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불완전함을 깨닫게 되고 죄의 음울한 짐을 깨끗이 하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하고 이것은 우리를 회개로 이끍니다.

신앙과 회개는 정결케 하는 침례의 물가로 인도하며,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로 이끄는 소망 안에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불의 침례, 즉 의의 길을 걸을 때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인도하는 하늘의 보혜사인 성스러운 성신의 은사를 부여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더 널리 다른 사람에게로 손을 내밀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과 가족 내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친절과 용서와

은혜와 오래 참는 인내의 자비로운 행동을 펼치며 어디에서건 우리의 동료들을 돕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과 성취의 여정에 있어 첫 번째 단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평화로운 길입니다.

### 인내의 길

그러나, 복음은 하룻밤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즉효약은 아닙니다.

최근에 제 친구 한 명이 간증을 굳게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는 편지를 제게 보냈습니다. 그는 조언을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삶을 회복된 복음의 가르침에 더 가까이 일치시킬 수 있게 해 줄, 그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일들을 제안하는 성실한 답장을 썼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일주일 뒤에 그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니다. 그의 편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형제님이 제안하신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견뎌 내야

합니다. 우리는 전력 질주로 영생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내심의 경주입니다. 우리는 이 신성한 복음 원리들을 적용하고 또 적용해야 합니다. 매일 그 원리를 우리 일상 생활의 일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아침에 씨앗을 뿌리고 낮에 옥수수 거두기를 바라는 농부처럼 복음에 접근합니다. 알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면서 씨앗이 자라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부지런함과 인내와 오래 참음”<sup>6</sup>의 결과로서 점차적으로 열매가 달린 나무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축복들은 우리 마음에 씨앗을 심자마자 오는 것도 있지만, 씨앗이 부풀고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면 이로써 우리는 씨앗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제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축복들이 우리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무를 소홀히 하여, 그 가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sup>7</sup> 그러한 충만한 축복은 받을 수 없습니다.

씨앗이 좋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보살핌으로 나무를 가꾸[어], 그것이 뿌리를 얻[도록]”<sup>8</sup> 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감미로운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감미로움며 … 순결한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순결한” 열매를 취할 수 있으며, “이 열매를 배부르도록 흡족히 먹게 되[어], [우리는] 누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할]”<sup>9</sup>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계발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순화해 주는 이 여정의 가르침들이 필요합니다. 끈기 있게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척도를 나타내 보이고 우리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임을 스스로에게 입증합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거나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선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종교의 상징들로 자신을 둘러싸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는 일은 앉아서 관람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의 스포츠 경기를 보며 운동 선수에게 충고하는 것으로서 건강의 유익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방관자로 서 있으면서 신앙의 축복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경꾼 제자”가 예배의 주된 방법이 아님에도 오히려 그것을 선호합니다.

우리 종교는 간접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행하는 좋은 것을 관찰하는 것으로 복음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인을 벗어나 우리가 가르치는 것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길

제자가 되는 길의 첫 단계는 다행히도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합니다! 그 첫 단계를 밟기 위한 예비 자격을 갖추는 필요는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 없습니다. 교양이 있거나 달변가이거나 지성이 뛰어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거나 언변이 유창하거나 심지어는 점잖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제자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려는 소망을 나타내며 그분에 대해 배우십시오. 신앙을 가지십시오. 구하면 찾을 것이며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sup>10</sup>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와드와 지부에서 활동적인 참여자가 되십시오. 복음의 원리를 실천하겠다고 결심함으로써 가족을 강화하십시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십시오.

지금 바로 성전 추천서를 받고 이를 사용하도록 삶을 조정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의미 있는 가정의 밤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열렬한 기도로 대화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그분의 교회의 회복과 살아 계신 선지자와 물몬경 및 우리 삶을 축복하는 신권의 권능에 대한 감사로 우리 마음을 채울 때입니다.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이 걸으신 길을 걸을 때입니다.

실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대로 생활하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복음이 우리를 정련하고 실수로부터 배우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sup>11</sup>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조셉 비 워스틴 장로는 이 원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자신을 포기한다 해도, 그분은 결코

그러시지 않을,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화시키는 복음이며, 그것은 지상에 사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상속하기에 알맞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잡고 닦아 줍니다.”<sup>12</sup>

어떤 이유로 제자의 길을 떠난 분들께, 저는 그들이 현재 있는 곳에서 출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길로 오도록 권유합니다. 다시 주님의 길을 걸으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이해를 넘어서는 지식과 기쁨을 부여해 주시며 고귀한 영의 은사를 주실 것이라는 간증을 드립니다. 지금이 주님의 길을 걸을 바로 그때입니다.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적이 있기에 자신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잃어버린 세월을 결코 보상할 수 없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특별한 능력과 재능과 기술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주님의 길을 걸을 바로 그때입니다.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 제자가 되는 축복

부활절 직전의 일요일에 우리 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어떤 공허함도 채우고, 어떤 상처도 치유하며, 어떤 슬픔도 다스릴 권능을 지니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희망과 신앙의 길이며 주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를 돕기 위해 가르침과 인도를 주도록 권세를 부여한 살아 계신 선지자가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세상의 구주시며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삶을 사셨으며, 우리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분은 늘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며, 우리의 싸움을 싸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희망이요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곧 길입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주

1. 마태복음 21:6~11 참조.
2. 스가랴 9:9 참조.
3. 누가복음 19:38.
4. 마태복음 21:9.
5. 로마서 10:17 참조.
6. 알마서 32:43.
7. 알마서 32:38.
8. 알마서 32:37.
9. 알마서 32:42.
10. 마태복음 7:7 참조.
11. 로마서 3:23.
12. 조셉 비 워스런, "큰 계명",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29~30쪽 참조.

# 내게 오라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저는 성신의 권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분명하고도 완전하게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 무릎이 떨리고 제 감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제 사랑을 전하며 여러분이 저를 지지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에 겸손해짐을 느낍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도 직에 부름 받기 위해 예외 없이 반드시 지녀야 하는 한 가지 자질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큰 축복으로 제가 그 자질을 갖추게 해 주셨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습니다. 저는 성신의 권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분명하고도 완전하게 알고 있습니다.

몬슨 회장님보다 사랑이 더 크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따스함은 한낮의 햇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제게 이 성스러운

부름을 주실 때, 저를 압도하던 그 진지함을 아마도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눈이 제 영혼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때 갖게 되는 그 느낌 말입니다. 행복하게도, 여러분은 몬슨 회장님께서 그 길고 사랑스러운 팔을 내미셔서 저를 안아 주셨을 때 주님과 그분으로부터 느꼈던 사랑 역시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몬슨 회장님.

저를 아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언행을 했다면, 여러분의 용서와 인내를 간구합니다. 그렇기에 저를 위한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 마땅히 되어야 할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훈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변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밤 신권 모임에서 몬슨 회장님께서 주신 말씀, 즉 부여 받은 집에 맞게끔 주님께서 우리의 등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에서 위안을 찾게 됩니다.

16년 전에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은 직후, 한 스테이크 대회에서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님을 동반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회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압니다." 그리고 잠깐 쉬신 후에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평범함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분 뒤쪽 연단에 앉아 있던 저를 돌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앤더슨 형제님, 형제님도



또한 평범함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이 그 사실을 잊게 된다면 주님께서 곧바로 그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못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계신 충실한 교회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프랑스에서 선교 사업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회원들을 바라보며 제 간증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가운데 10년간을 교회의 임무를 수행하느라 미국 지역 밖에서 살았습니다. 제 모국어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타지에서, 저는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믿는 자들로 구성된 큰 가족으로서, 여러분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제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방법으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 지상에 있는 그분의 천사들 가운데 한 명과 결혼하게 해 주셨습니다. 제 아내인 캐시는 제 빛이요 귀감이며, 정결함과 순수함으로 가득 찬,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한 딸입니다. 아내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생의 많은 시간 동안, 저는 제 아내가 제게 대해 주는 그 대접에 걸맞은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20년 전, 제 네 명의 자녀들이 어렸던 시절에 저희 가족들은 프랑스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과 그 뒤에 온 다른 부름들로 인해 가족들은 안정을 간구하던 시기에 도시와 도시, 대륙과 대륙을 옮겨 다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서는 제 가족들을 풍족하게 축복해 주셔서 그들은 훌륭한 동반자를 만났고 각자 훌륭한 자녀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가족들의 선함과 저를 위한 희생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 훌륭하신 부모님께 감사 드리며-오늘 제 어머니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제 일생 동안 저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칠십일 정원회의 형제님들께 깊은 존경과 사랑을 표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친형제처럼 사랑합니다. 우리의 결속과 우정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휘장 너머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16년 동안, 제일 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형제님들은 제게 모범이자 교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온전함과 의로움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분들이 자제심을 잃고 화내는 모습이나 개인적 또는 물질적 이익을 바라는 모습을 저는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영향력이나 권력의 자리를 얻으려 애쓰는 모습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보다, 저는 그분들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갖는 충실함과 사랑의 모범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가진 단호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에 대한 확고한 간증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세우기를 먼저 구하려는 지칠 줄 모르는 의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분들 위에 임하여 그분들이 영화롭게 되고 지지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언적인 음성이 성취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권세로 병자가 고침을 받고 한 국가가 축복받는 것을 보았으며, 지극히 성스러워 말로는 담을 수 없는 순간들을 그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주님의 기쁨 부음 받은 종들임을 간증합니다.

조셉 비 워스런 장로님께서 별세하심으로써 제가 이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제 영이 그분의 영에 닿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선지자가 명하는 대로 어디든 가고 무슨 일이든 행하며, 구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목숨이 다할 때까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세계의 역사 속에서 고대해 오던 시기입니다. 경전에는 “주께서 창세 이전부터 제정하시고 예비 하신” 일들이나와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28:5)

큰 집합이 있을 것이라는 계시가



멕시코, 옥사카, 주치탄

있습니다.(니파이후서 10:7~8, 제3니파이 16:5 참조) 이사야는 주님의 집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주님의 목소리가 만방에 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이사야 2:2~3 참조) 다니엘은 손대지 아니한 돌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다니엘 2:34, 44~45 참조) 베드로는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사도행전 3:20~21 참조) 니파이는 어린양의 교회 사람들이 수에서 많지는 않지만 모든 지면과 나라에 존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니파이전서 14:12, 14 참조)

우리는 주님의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사야 29:14, 니파이후서 25:17 참조)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을 도울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회복의 목적이 “제상을 비치는 빛이 되게 하 … 고, [그분의] 백성 … 을 위한 기가 되게 하 … 며, [그분] 앞에 길을 예비하도록 [그분] 앞에 사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45:9)

저는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서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원을 건너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걸었던 자랑스러운 초기 개척자들이 계시지만 오늘날 살아 있는 개척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비록 손수레를 밀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와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물몬경을 통해, 그리고 개인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신앙과 회개를 통해 침례의 물로 들어가 풍요로운 복음의 토양에 자신들의 발을 굳게 뿌리내렸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옹고 참된 것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성신의 은사를 통해 그들은 영생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우리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다른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만 기도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더 위대한 대업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비이기적인 다른 사람들도 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함께 나누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충실하고 의연한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선한 분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만 독특하고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이곳에만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지상에 회복된 하나님의 신권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만 성경과 함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성과 복음을 나타내 보이고 선포하는 물몬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만 하늘의 인도를 끌어내리고 땅에서 매인 것을 하늘에서도 매는 열쇠들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주신 사명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자만해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무릎을 꿇고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되, 주님의 다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소심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내 교회라, 내가 이를 세우리니 … 아무것도 이를 전복하지 못하리라”(모사이아서 27:13)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존재, 또 장차 우리가 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주님을 경외할 때, 그분은 우리를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요한계시록 3:20)

주님의 다음 말씀이 수 세기를 걸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한복음 11:25~ 26)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상에 있는 그분의 거룩한 사업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그분의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  
칠십인 회장단

선지자들의 권고를 듣고,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며, 신앙을 갖고,  
그리고 기뻐함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에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 조카 딸 레이첼은 아주 어렸을 때 아침 시간을 제 장모님과 함께 보내곤 했습니다. 이때 함께 했던 시간들 덕분에 그 둘은 특별히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레이첼은 곧 다섯 살이 되었고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했던 마지막 날 아침에 스콰이어 할머니는 손녀 딸에게 이야기를 읽어 주고 큰 흔들의자에 태워 흔들어 주셨습니다. 장모님은 “레이첼, 우리 함께 참 재미 있었지, 이제 네가 학교에 갈 때가 되었구나. 널 너무나 사랑한다. 그런데 네가 없으면 난 무얼 해야 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살짜리답지 않은 지혜로, 레이첼은 갈색 눈을 크게 뜨고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 저도 제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갈 때가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훌륭한 조언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자신의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극적인 변화를 구하거나 반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삶에서 겪는 경험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 변화들 가운데 많은 것은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은 어린 시절로부터 청소년기를 거쳐 성년기로 접어들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년기를 지나면서 변화합니다. 학교, 선교 사업, 결혼, 취업, 그리고 은퇴는 모두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는 예입니다.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다음 단계로 들어서서 다른 도전을 시작하기를 주저합니다. 아마 우리는 너무 편안하거나, 두려움이 가득하거나, 신앙이 부족하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할머니의 무릎은 유치원에서 겪는 어려움들보다 더 편합니다. 무제한으로 비디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부모님 집의 지하실이 아마 대학이나 결혼 또는 직업보다 더 매력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직면해야 하는 변화들에 가장 잘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선지자를 따르십시오. 사도들의 권고를 듣고 그대로 생활하십시오. 선지자들은 종종 경교의 음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헤쳐 나가도록 돕기

위해 한결같이 유익한 권고를 주십니다. 교리와 성약 제1편에서 주님은 다음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선지자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직면하는 변화들과 도전들에 맞서도록 돕습니다. 잘 알려진 초대회 노래 “예언자 따라”는 우리에게 이 중요한 원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들의 갈길 인도해 주니 예언자의 말씀 따라 살리라.”(“예언자 따라,” 어린이 노래책, 58쪽).

둘째,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변화와 도전이 하나님 계획의 일부임을 이해하십시오. 이 필멸의 생활은 시험의 시간 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행하는지를 보기”(아브라함서 3:25) 위한 시간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택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필멸의 존재인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변화와 도전, 그리고 시련과 유혹을 겪어야 합니다. 오직 그런 때만이 정당하게 시험 받는 것입니다. 니파이후서에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음이 꼭 필요함이라.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 의로움이 이루어질 수 없으리니, 간악함도 그러하며, 거룩함이나 비참함이나, 선이나 악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니라.”(니파이후서 2:11)

의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우리의 선택 의지를 행사할 때, 인생의 도전과 변화는 우리에게 발전할 기회를 줍니다.

셋째, 신앙을 가지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언제나 교회 회원들에게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격려했습니다. (“God Hath Not Given Us the Spirit of Fear,” *Ensign*, 1984년 10월호, 4쪽 참조) 우리가 부정으로 가득 찬 세상과 매일 맞설 때, 의심, 두려움, 심지어 공포감마저 우리의 마음에 서서히 스며들 수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권고해 주셨습니다. “신앙과 의심은 한



사람의 마음 속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쫓아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기도와 신앙으로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리아호나*, 2009년 3월호, 4쪽). 모로나이서에는 “신앙 없이는 아무 소망도 있을 수 없다”(모로나이서 7:42)고 나옵니다. 우리는 인생의 도전과 변화에 맞서기 위해 신앙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우고 발전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기뻐하십시오. 세계 전역의 많은 교회 회원들이 경제적인 문제나 다른 이유들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낙담과 소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교회 초기 고난의 시기에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기뻐하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교리와 성약 61:36)

조셉 비 워스런 장로님은 6개월 전 그분의 마지막 연차 대회 말씀에서 역경에 대응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권고 가운데 다음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번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때, 그렇게 하는 대신 웃기 위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웃음은 여러분의 삶을 연장시키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더 즐겁게 해 줄 것입니다”(“어떤 일이 닥쳐오든 그것을

사랑하십시오.”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27쪽). 웃음과 좋은 유머 감각은 인생의 여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순화시켜 줍니다.

만일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어떤 변화는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분명 모든 후기 성도 청년들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경험인 선교 사업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모든 합당한 청년 독신 성인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과 거룩한 성전에서 인봉 받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들을 위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변화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기 침체, 실업, 쇠약하게 만드는 질병이나 부상, 이혼, 그리고 죽음은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측하거나, 반기지 않는 변화들의 예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이처럼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답은 똑같습니다. 선지자들의 권고를 듣고,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며, 신앙을 갖고, 그리고 기뻐함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에 맞설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초기 개척자들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훌륭한 예입니다.

로버트 가드너 이세는 1845년 1월 캐나다 동부 오지의 공공 언 연못에서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충실하고 근면했던 그는 가족을 데리고 나부로 여행했고 많은 고생을 한 후, 1847년 10월에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계곡에 들어선 후 이 컨퍼런스 센터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올드 포트라는 곳에 캠프를 쳤습니다. 자필로 된 그의 역사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소의 멩에를 풀어 주고 나서 부러진 마구에 앉았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은 갈 수 없다고 말했다.”(“Robert Gardner Jr. Self History and Journal”, Church History Library, 23쪽)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로버트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첫해에는 힘들었지만 그와 그의 형 아이볼드가 밀크리크와 조던리버에 제분소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점차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다시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제분소에 수력을 제공하던 개울의 물길이 상류에서 바뀌면서 물이 마르게 된 것입니다. 제분소까지 10킬로미터에 달하는 수로를 만들었으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그의 역사 기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로는 계속 문제가 생기더니 결국 실패로 판명이 났다. 그 실패로 인해 나는 모든 작물을 잃었고 제분소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재고도 바닥났으며, 나는 완전히 파산했다.”(“Robert Gardner Jr. Self History and Journal”, 26쪽)

그것으로 시험이 충분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의 다음 개인 역사 기록에서 우리는 그가 캐나다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몇 달 후 그는 가족을 남겨 두고 일단의 선교사들과 함께 손수레와 증기선, 그리고 기차로 임지를 향해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 선교 사업을 완수하고 가족에게

돌아왔으며,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여 다시 한 번 정착하고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후, 가드너 형제는 솔트레이크 계곡 밀크리크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몇몇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산했던 자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재기한 걸 보니 기쁘네. 자네가 재산을 잃고 선교 사업을 떠나던 때 이전만큼 거의 회복한 것 같네.”

로버트의 역사 기록을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답했다. ‘맞아, 한때 잘 나갔다가 모든 것을 잃었었지. 이제 또 다른 [선교 사업] 부름이 올까 봐 두렵네.’ 아니나 다를까, 몇 시간 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있었던 모임에 참석한 이웃 몇 명이 찾아와, 오늘 새로운 정착지를 만들고 목회를 재배하기 위해 남쪽으로 선교 사업을 떠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나의 이름도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즉시 떠나야 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모자를 벗고 [머리털] 굵직한 다음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 좋습니다. ’”(Robert Gardner Jr. Self History and Journal”, 35쪽, 강조 표시 추가)

로버트 가드너는 자신의 삶에서 변화에 맞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사도들의 권고를 따랐고 형편이 좋지 않았을 때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큰 사랑이 있었고 매우 훌륭한 유머와 관대함으로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버트 가드너 이세는 유타 남부 지역 정착 사업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또한 셀 수 없이 많은 그와 같았던 개척자들은 우리의 삶에 닥치는 많은 변화와 도전에 두려움 없이 맞서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순종하고 충실하며 기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 주님은 항상 너를 지키시리

바바라 톰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우리는 신앙과 개인적인 의로움을 키우고, 우리의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주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수 년 전 제가 본부 상호부조회 위원회에서 봉사하고 있었을 때, 몇몇 상호부조회 지도자들과 신권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도시에서 오전 훈련을 마치고 시간에 맞추어 그 모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개회 찬송과 개회 기도를 한 뒤 서게 되는 첫 번째 연사였습니다. 개회 찬송은 “때가 임박하니”였습니다.(역자 주: 찬송가 “때가 임박하니”의 영문 원제는 “The Time Is Far Spent,” 즉 “시간이 다 되었다”입니다.)

저에게는 익숙한 제목의 찬송가가 아니었고, 개회 찬송으로 부르기에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기도

전에 벌써 시간이 다 되었다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자, 저는 곧 이 찬송가의 제목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오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절의 가사는 그날 저녁 내내 제 마음속에 남았고 그때 이후로도 여러 번 떠올랐습니다. 찬송가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의 목적을 굳건히 하라  
사탄이 너를 유혹하고 길 험해도  
예수 너희 곁에 늘 함께 하시며  
저 원수들이 너 대적하여도  
주님은 항상 너를 지키시리

가사가 주는 메시지는 삶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할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성한 희생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의 사업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서로가 영생에 이르는 일을 행하도록 도움으로써 그분을 도우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지난 10월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백 자매님은 영생을 얻기 위한 우리의 목표에



도움이 될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앙과 개인적인 의로움을 키운다.
2. 가족과 가정을 강화한다.
3. 주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한다.<sup>3</sup>

이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찾아 돌본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러한 일을 하고자 노력 할 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강건케 하실 것이며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sup>4</sup>

### 신앙과 개인적인 의로움을 키운다

어린 시절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부모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sup>5</sup>임을 배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늘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sup>6</sup>

또 저는 신앙을 키우려면 매일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항상 기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sup>7</sup> 저는 제가 경전을 읽고 공부할 때 복음의 진실함에 대한 지식과 간증이 자라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배웠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그분께 저의 사랑을 보여 드릴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sup>8</sup> 어린 시절 저는 또한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성스러운 성전 성약을 지킨다면 영생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신앙과 개인적인 의로움을 키우기 위하여 일생을 통해 이러한 원리들을 따라야만 합니다.

### 가족과 가정을 강화한다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이자 축복입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은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가정에 어머니와 아버지,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들은 자녀들이 모두 독립했습니다. 많은 교회 회원들이 독신이며, 또 어떤 사람들은 홀로 자녀를 키우는 편부 또는 편모입니다. 배우자를 잃고 홀아비나 미망인으로 혼자 지내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가족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각자는 가족을 강화시킬 수 있고 다른 가정이 강화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는 가족을 강화하는 한 가지 방법을 보여줍니다. 저는 아이다호 주 보이시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훈련모임이 끝난 후 저는 제 조카딸 가족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자러 가기 전에 우리는 짧은 가정의 밤과 경전 이야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리하이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고, 리하이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인 쇠막대를 굳게 잡아야 한다고 가르쳤는지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sup>9</sup> 쇠막대를 굳게 잡음으로써 그들은 안전하게

되고 기쁨과 행복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쇠막대를 놓는다면 더러운 강물에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어머니가 아이들이 붙들어야 할 “쇠막대”가 되었고 아버지는 아이들을 안전과 행복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악마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좋아했고 쇠막대를 굳게 잡아야 하는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경전 이야기 다음은 가족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감독님을 위해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세 살 난 브루클린이 그날 저녁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는 그들이 받은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독님의 눈이 나빠졌으니 축복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성찬식에 참석하여 자리에 앉았습니다. 브루클린과 다섯 살 난 언니인 케네디가 단상 위에 감독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감독님을 가리키며 엄마에게 “보세요. 저기 감독님이 계시요.”라고 말했습니다. 두 어린 소녀들은 눈으로 서로에게 “우리가 감독님을 위해 기도했더니 나아지셨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으로 기도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겸손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전과 가정의 밤, 가족 기도는 가족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가족을 강화하고 올바른 길에 머물도록 서로 도와야 합니다.

### 주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찾아 돌본다

구주께서는 지상에 사시는 동안 우리가 서로 돌보고 도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많은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sup>10</sup>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움 기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언젠가는 우리 각자도 어떤 면으로든 가난해질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sup>11</sup>라는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시며, 우리를 굽어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필요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sup>12</sup>

지난 여름 제가 집에 없을 때 강한 바람과 폭풍우가 제 집 인근에 불어 닥쳤습니다. 이웃집의 거대한 나무가 저희 집 마당을 가득 채우며 쓰러져서 전선을 끊어 버렸습니다. 피해를 복구하고 집에 전기가 들어오게 하려면 우선 나무를 옮겨야 했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제 오빠에게 전화를 했고, 오빠는 장비를 찾아 가능한 빨리 오겠다고 했습니다. 감독님께도 전화를 했습니다. 몇 분 이내에, 감독님과 가정 복음 교사, 전 스테이크 회장님, 그리고 와드의 형제들 열 명이 휴대용 전기 톱을 가지고 와서 이 재난을 빠르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제 방문교사들은 그 날 저녁 식사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대제사 그룹, 장로 정원회와 이웃에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저와 제 가족을 도와 엉망이 된 집을 함께 치워 주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제 낙담과 실의는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간증을 실천했으며 그들이 맺은 성약의 실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 본부에서 우리는 종종 교회 회원이 아닌 분들에게서 온 감사 편지를 받는데,



이분들은 홍수와 허리케인, 지진 및 다른 재난을 겪었을 때 바로 여러분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기꺼이 봉사하고, 사랑하고, 배품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과 개인적인 의로움을 키우고, 우리의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주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는 데 있어 “[우리의] 목적을 굳건히 해[여야]”<sup>13</sup>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노력에 대적할지라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 대속의 권능에 대해 간증드리며, 이를 통해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노력을 확대시킬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때가 임박하니,” 찬송가, 154장.
2. 모세서 1:39.
3. 줄리 비 백, “후기 성도 여성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섬” 리아호나, 2007년 11월, 109~112쪽 참조.
4. 이사야서 41:10~14 참조.
5. “나는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6. 모사이아서 3:17 참조.
7. 제3니파이 18:15, 18~19, 교리와 성약 10:5 참조.
8. 요한복음 14:15 참조.
9. 니파이전서 8:2~27 참조.
10. 마태복음 4:23, 9:35, 누가복음 4:40, 요한복음 2:23, 모사이아서 3:5, 제3니파이 17:7~9, 교리와 성약 35:9 참조.
11. 모사이아서 4:19.
12. 스펜서 더블류 김볼, “풍성한 삶”, 성도의 벗, 1979년 6월, 2쪽.
13. “때가 임박하니,” 찬송가, 154장.

#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갈보리 동산에서 올려 퍼진 것은, 간혹 우리가 그렇게 느끼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혼자 아무 도움도 없이 남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툼** 슨 자매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교회의 뛰어난 여성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부활절 절기를 맞아 오늘 저의 메시지는 모든 분들, 특히 혼자이거나, 혼자라고 느끼거나, 더 나아가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중에는 결혼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 배우자를 잃은 분들, 자녀를 잃었거나 자녀를 가져 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 아내가 떠나 버린 남편,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양친을 모두 잃은 아이들도 포함됩니다. 넓게 보자면 이들 중에는 집에서 멀리 떠나 있는 군인, 집이 그리운 신참 선교사, 가족들에게

자신의 두려움에 찬 눈빛을 들킬까 봐 걱정하는 실직한 아버지도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여기에는 인생의 다양한 국면에 처해 있는 우리 모두가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분들께 저는 가장 고독했던 여행과 그로 인해 전 인류에게 주어진 끝없는 축복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구주께서 홀로 우리의 구원의 짐을 짊어지는 의무를 감당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 내가 본즉 도와 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예[졌노라]!”고 하실만 했습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이 앞서 훌륭하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경전을 통해, 바로 오늘 아침처럼 유월절을 앞둔 일요일에 예수님이 메시야로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모여 떠들썩한 반응을 보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걷고자 하는 열의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 소환되었습니다. 우선은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 그 다음은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 앞이었습니다. 재판을 서두르던 이 대제사장들과 공회는 성급하고 분노에 찬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는 사형에

[마땅]하니라.”라고 외쳤습니다.<sup>2</sup>

그렇게 해서 주님은 그 땅의 이방인 통치자 앞에 끌려갔습니다. 갈릴리의 분봉 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그분을 한 번 심문하였고, 유대 땅에 파견된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두 번 심문을 하되, 두 번째 심문에서 빌라도는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sup>3</sup>라고 군중들에게 선언했습니다. 그런 후, 빌라도는 부당하고 부조리하게도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sup>4</sup>주었습니다. 빌라도의 갓 찢은 손은 가장 더럽고 얼룩진 손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종교적 정치적 거부는 거리의 시민들마저 예수님께 등을 돌림으로써 더 가혹한 인신공격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아이러니 중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있었으며 아람어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닌 바라바야말로 진정한 신성 모독자요 살인자요 혁명당원이었다는 것입니다.<sup>5</sup> 유월절 전통의 정신에 따라 수감된 죄수들 중 하나를 사면할 수 있었던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바라바로소이다.”<sup>6</sup>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사악한 자가 풀려난 반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참으로 신성한 그분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에게도 속내를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들 중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신성한 계획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기도를 듣고,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 그분의 손길을 느꼈던 특별한 증인 중 한 사람이, 고작 은 삼십에 그분을 배반할 수 있었음을 떠올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세계 역사상, 그만한 혼돈으로 그처럼 큰 오명을 산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유다의 운명을 심판할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은 그분을 배반한 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sup>7</sup>

물론 다른 믿는 자들에게도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최후의 만찬 후,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두고 홀로 겻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마음[으로] 매우 고민하”<sup>8</sup>셨고, 쓰디쓴 죽음의 잔이 그에게서 지나가기를 아버지께 간청하는 동안 흐르는 땀이 핏방울 같았습니다.<sup>9</sup> 물론, 그 잔은 물려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뇌에 찬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분의 선임 사도 세 명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sup>10</sup> 이러한 일은 예수님이 세 번째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까지 반복되었으며, 결국 그분은 인정 어린 목소리로 “이제는 자고 쉬라”<sup>11</sup>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는 휴식이 없을 것이었지만 말입니다.

잠시 후, 예수님이 끌려가 재판에 넘겨졌을 때,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예수를 아는 자요 그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비난하자, 그는 그 주장을 한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 완전히

알지 못하며, 구주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었던 권고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sup>12</sup> 예수님이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들조차도 마지막 순간에 그분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을 아셨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음을 압니다.<sup>13</sup> 그런 후 닭이 울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 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sup>14</sup>했습니다.

신성한 필요에 따라, 이렇게 예수님의 지지층은 점점 더 줄어들었으며, 마태가 쓴 짧은 구절처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sup>15</sup>기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알아보고 적대시할 만큼 가까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특히, 그리고 한결같이, 구주의 삶에 등장하는 축복받은 여성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분의 외로운 여정에는 위로나 동반자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경건하게, 대속으로 향하는 이 외로운 여정 중에 가장 힘들었을지도 모를 순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적, 육체적으로는 준비했지만, 심적, 영적으로는 온전히 예상하지 못하셨을지 모를 마지막

순간입니다. 하나님도 눈감아 버리신, 온몸을 마비시키는 절망으로 떨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최후의 고독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버리셨나이까”<sup>16</sup>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육신에 대한 도움이 사라질 것은 예상하셨지만, 그분도 이 점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다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sup>17</sup>

온 영혼의 확신을 담아, 저는 주님께서 참으로 그분의 아버지를 온전히 기쁘게 하셨으며, 온전하신 아버지께서 그 시간에 그분의 아들을 버려 두지 않으셨음을 간증드립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지상 성역을 통틀어 이 고뇌하는 최후의 고통의 순간보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에게 더 가까웠던 적은 없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희생은 완전했으나 고독했으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위안이 되었던 그분의 영을 즉시 거두셨습니다. 나쁜 말이나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불결한 것에 손대 본 적 없는 온전한 아들이, 나머지 인류인 우리, 즉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느끼게 될 것인지 알아야 했다는 것은 위대한 대속의 핵심이자 필요조건이었습니다. 그분의 대속이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이 되려면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죽음이 어떤 것인지 느끼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완전히, 비참하게, 희망없이 느끼도록 홀로 두고 떠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견디셨으며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자신이 느낀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이 따르던 신뢰로 인해 하나님의 자비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충실하고, 우리를 버려 두거나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값을 남김없이 치렀고 그리스도의 충실하시겠다는 의지가 확고부동했을 때, 마침내, 그리고 자비롭게 그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sup>18</sup>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인 나사렛 예수께서는 모든 어려움에 맞서, 그분을 돕거나 지지할 그 누구도 없이 죽음이 지배한 육신의 생명을 되찾으셨으며, 지옥같은 어두움과 절망으로부터 기쁨의 영적인 대속을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게 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예수님은 승리한 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sup>19</sup>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부활절 절기에 큰 위안이 되는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토록 길고 외로운 길을 온전히 홀로 걸으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고독한 여정은, 그 여정의 축소된 모형의 고독한 길 위를 우리가 걸을 때 위대한 동반자들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운 보살핌,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변함 없는 동반, 비할 데 없는 성신의 은사, 하늘의 천사들, 휘장 양편의 가족들, 선지자와 사도들, 교사, 지도자, 그리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분의 복음의 회복으로

인해, 우리의 지상 생활에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다양한 동반자들이 함께합니다. 같보리 동산에서 올려 퍼진 것은, 간혹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혼자 아무 도움도 없이 남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구속주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내 아버지와] 내가 [너희]에게 가서 … [너희]와 함께 하리라.”<sup>20</sup>

부활절 절기에 드리는 저의 다른 기원은, 그리스도의 이 외로운 희생을 둘러싼 부인과 유기, 그리고 최소한 한 번은 있었던 철저한 배신이 우리에게 의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한 번 홀로 걸으셨습니다. 다시는 그분이 도움 없이 홀로 죄를 짊어지지 않기, 그분이 오늘날 고난의 길을 걸으며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실 때, 다시는 무관심한 방관자들을 만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희생양을 바치는 유월절 목요일과 십자가 위의 속죄가 이루어진 금요일, 그리고 무덤이 빈 일요일에 걸친 이 성스러운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더욱 온전한 제자들로서 자신을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또는 태평 성대한 시절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외롭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어려울 때에도, 행위로써, 그리고 용기와 신앙을

가지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 주간을 비롯해서, 항상 우리가 “참으로 죽을 때까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 어느 곳에서나”<sup>21</sup>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이르고 완전히 홀로 서야 했을 때에도 그분은 분명 우리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이사야 63:3~5, 교리와 성약 76:107; 88:106; 133:50 비교.
2. 마태복음 26:65~66; 각주 66b 참조.
3. 누가복음 23:14.
4. 마태복음 27:26.
5. Bible Dictionary “Barabbas,” 619쪽 참조.
6. 마태복음 27:21.
7. 마태복음 26:24.
8. 마태복음 26:38.
9. 누가복음 22:44; 모사이야서 3:7; 교리와 성약 19:18 참조.
10. 마태복음 26:40.
11. 마태복음 26:45.
12. 스펜서 더블류 김볼, Peter, My Brother, 브리검 영 대학교 율해의 말씀, 1971년 7월 13일, 5쪽 참조.
13. 마가복음 14:27~31 참조.
14. 누가복음 22:61~62.
15. 마태복음 26:56.
16. 마태복음 27:46.
17. 요한복음 16:32; 8:29.
18. 요한복음 19:30 참조.
19. 누가복음 23:46.
20. 요한복음 14:18, 23.
21. 모사이야서 18:9.



# 기뻐하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기뻐하십시오. 미래는 여러분의 신앙처럼 밝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께 제 사랑을 전해  
드립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한다는 책임으로 겸손해지지만 한편 이런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6개월 전에 연차 대회를 가진 이후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세계 상황들이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에 경기 침체를 보였던  
세계 경제의 불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난  
여러 주 동안 나온 경제 전망은 어두웠습니다.  
더욱이 사회의 도덕성은 계속 퇴락하고 있으며  
그 도덕성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종종 조롱받고  
공개적으로 반박과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전쟁, 자연 재해, 개인의 불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우리 삶의 안 좋은 일에만  
온통 신경을 쓴다면 좌절하게 되고 미래에  
대해 냉소적으로 변하며, 심지어 앞으로 탁월  
일들을 두려워하게 되기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우리 주변의 어려움들에서 돌이켜 교회  
회원으로로서 받는 축복들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sup>1</sup>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살면서 어려움과 역경,  
때로는 비극과 불운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면서 그런 일들로부터 배우고  
자라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고 슬퍼하며 슬픔에 잠길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답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고,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sup>2</sup>

우리가 직면하게 될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경전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기뻐하며, 두려워 말라. 이는 나 주가  
너희와 함께 하며, 너희 곁에 서 있을  
것임이니.”<sup>3</sup>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교회의 역사에는  
고난을 겪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의  
중심으로 두면서 끝까지 굳건하며 기뻐했던  
사람들의 경험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태도는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물론 그 태도가 우리의  
고난을 없애 주지는 않겠지만 그 역경들에  
굳건하게 맞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나 구주와  
복음을 믿는 신앙이 필요한 힘을 주었기  
때문에 굴하지 않고 버텨서 승리했던 사람들의

예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께 그러한 예 세 가지만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제 가족의 예인데, 제게 항상  
영감이 되었던 감동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외가 쪽의 증조부모이신 김슨과  
세실리아 샤프 콘다는 스코틀랜드  
클래크매넨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광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들은 친척과 친구들과  
함께 자신들의 삶에 만족했으며 그들이  
사랑했던 곳에 지은 꽤 안락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교사들로부터 메시지를 듣게 되었고  
완전히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온으로  
모이라는 부름을 듣고 그 부름에 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848년쯤, 그들은 가진 재산을 팔고  
거대한 대서양을 건너는 위험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다섯 명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조그만 트렁크에  
넣고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4,800킬로미터나 되는 위험한 바다  
여행길에서 망망한 대해만 바라보며 형편없는  
물과 음식을 마시면서 8주간의 힘든 여행을  
했습니다. 그 조그만 배에서 얻을 수 있는  
도움 외에는 어떤 도움도 없었습니다.

영혼이 시험 당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의 어린 아들 중 한 명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배에는 의사도 없었고 그 아이의  
병을 낮게 해 줄 약을 구입할 약국도  
없었습니다. 그 가족은 아이를 돌보며  
기도했으나 아이의 병세가 날이 가면서  
악화되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했습니다.  
아이가 마침내 숨을 거두자 그 가족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해양법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시신을 캔버스 천으로 싼 뒤 무거운 쇠를  
매달아 바다에 수장했습니다. 항해가  
계속될수록 그 부모의 상처 입은 가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만이 느껴졌습니다.<sup>4</sup>  
하지만 진리와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브라질, 상파울루

신앙으로 김슨과 세실라는 견뎠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sup>5</sup>

신앙 때문에 고향과 이전의 삶을 포기하고 시온으로 왔고 또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희생을 치르신 제 조상들에 대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후손들에게 신앙, 용기, 단호함의 모범이 되었던 김슨과 세실라 샤프 콘디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의 삶에 가져다 준 평화와 기쁨의 전형이 되었던 온화하고 신앙이 충만했던 한 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평양 작은 섬의 어느 늦은 저녁, 작은 배 하나가 허술한 항구에 조용히 정박했습니다. 두 명의 폴리네시아 여성이 멜리 물리폴라라는 남자가 배에서 내리도록 부축해 마을 길로 향하는 오래된 좁은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 여성들은 한밤중에 밤하늘에 반짝이는 밝은

별들을 보고 경탄했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길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멜리 물리폴라는 장님이었기에 이 자연의 아름다움, 달, 별, 하늘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없었습니다.

물리폴라 형제의 시력은 정상이었지만 파인애플 농장에서 일하던 어느 날 빛이 갑자기 어둠으로 바뀌고 낮은 영원한 밤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을 알기 전까지는 좌절했고 낙심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그는 다시금 희망과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리폴라 형제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분이 태평양 섬들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여행해서 왔습니다. 물리폴라 형제는 축복을 구했고 저는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다른 형제와 함께 그분께 축복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축복을 끝내면서, 저는 앞을 볼 수 없는 그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갈색 뺨을 타고 흘러 마침내 그의 전통

의상을 적시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물리폴라 형제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지여, 당신께서는 제가 눈 먼 자임을 아십니다. 당신의 종들이 제 시력이 다시 회복되도록 축복했습니다. 당신의 지혜로 제가 빛을 다시 보게 되든지 아니면 남은 여생 동안 어둠만 보든지 간에 제가 지금 알고 있고 제 삶에 빛을 주는 당신의 참된 복음에 감사 드립니다.” 그 형제님은 일어서서 미소를 지으면서 축복을 주어 감사하다고 말하고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소리 없이 들어왔고 소리 없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곁에 있었던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구주의 말씀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sup>6</sup>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삶에 그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아무리 어둡다 하여도, 우리는 홀로 걷게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엠 루이스 하스킨스의 시를 좋아합니다.

“시간의 문에 서 있는 남자에게 내가 말했다.

“미지의 곳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빛을 주시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어둠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 빛보다 훌륭하고 알려진 길보다 안전하리라.””

지극히 어려운 환경임에도 견디고, 끝내 이겨낸 사람의 마지막 예는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동프로이센에서 시작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1946년 3월 무렵,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에 계셨던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님은 프레드릭 더블류 베블 형제님과 함께 성도들을 만나 그들의 필요사항을 살피고 도움을 주기 위한 특별한 목적의 모임을 위해 전후 유럽을 여행하도록 지명 받았습니 다. 벤슨 장로님과 베블 형제님은 나중에 자신들이 들었던 한 분의 간증에 대해 상세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신이 살던 지역을 통치하던 정부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 한 자매님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자매님과 남편은 동프로이센에서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젊은 남편은 자신의 조국에서 벌어진 끔직한 전투의 막바지에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남겨둔 채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점령군들은 동프로이센의 독일인들이 새로운 터전을 찾아 독일 서부지역으로 이주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 여정은 160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였고 그녀에게는 도보여행 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무바퀴가 달린 작은 마차에 겨우 기본 생필품만 실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빈약한 소유물 외에도, 그녀는 후기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복음과 하나님을 믿는 강한 신앙을 함께 가져갔습니다.

그녀와 자녀들은 늦여름에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소유물 중에는 식량도 돈도 없었기에 그녀는 가는 도중에 보이는 밭이나 숲에서 일용할 양식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에 찌든 난민이나 약탈하는 군대로부터의 위협과 끊임없이 맞서야 했습니다.

여행을 시작한 지 몇 주가 흐르고 몇 달이 흐르자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팔에 막내아기를 안고서 매일 공포 얼어붙은 땅을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일곱 살인 만이가 전 재산이 담긴 작은 나무 마차를 끌며, 그녀의 세 자녀도 그 뒤를 힘겹게 따랐습니다. 오래 전에 신발이 다 해진 후로는 너털너털 찢어진 삼베로 감싸서 겨우 발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얇고도 너털거리는 재킷을 옷 위에 걸쳐 추위를 막았습니다.

곧 눈이 내리자 낮과 밤이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와 아이들은 밤이면 헛간 같은 거처를 찾아서 마차에 실어 놓았던 얇은 담요 몇 개를 두르고는 따뜻해지도록 서로를 꼭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녀는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을지 모른다는 커다란 두려움을 마음속에서 몰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일어났을 때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세 살된 딸의 몸이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그녀는 그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슬픔으로 압도되었지만, 그녀는 나머지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 여행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도구인 손가락으로 얼어붙은 땅을 파서 그 작고 소중한 아이를 묻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여정 내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배고픔, 혹은 추위, 아니면 그 둘 모두로 인해 그녀의 일곱 살 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또다시 그녀는 손가락으로 몇 시간 동안 땅을 파서 자신의 아들을 묻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녀의 다섯 살 난 아들이 죽었고 그녀는 다시 손가락을 삽 대신 이용했습니다.

그녀의 좌절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아기였던 딸만 남았고, 그 아이도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이르러 있었습니다. 마침내, 여정의 끝 무렵에 그 딸마저 그녀의 팔에 안겨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 손가락마저 어디론가 사라져 그녀는 맨 손가락으로 몇 시간 동안 얼어붙은 땅을 파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아이를 묻은 무덤 곁 눈밭에서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남편과 모든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적인 재물, 집, 심지어 조국까지 포기했습니다.

이 엄청난 슬픔과 혼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가슴이 말 그대로 갈기갈기 찢어짐을 느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많은 다른 동포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근처의 다리에서 뛰어내리거나 달려오는 기차 앞에 뛰어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음 속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느낌을 무시했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 생애의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는 신앙 외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시여, 저는 제 영혼의 슬픔 가운데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에 대해 무한한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분에 대한 제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분이 고통을 겪었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가족들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고, 그분이 죽음의 사슬을 끊으셨기 때문에 제 아이들을 다시 보고 그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기쁨을 다시금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살고 싶다는 소망이 없지만 가족으로 다시 결합되고 함께 당신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소망을 갖겠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목적이인 독일 칼스루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몹시 여위어 있었습니다. 바벨 형제는 그녀의 얼굴이 어두운 자줏빛이었고 눈은 충혈되고 부어 있었으며 관절이 돌출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녀는 아사 상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열린 교회 모임에서 그녀는 훌륭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슬픔이 가득한 조국의 모든 병든 사람들을 언급하며,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고, 이를 통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계속 끝까지 충실하고 참되다면 먼저 떠나 보낸 가족들과 다시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간증했습니다.<sup>8</sup>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의로운 자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성도들, [그를] 믿는 자들, 세상의 십자가를 견디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리니, 그들의 기쁨이 영원토록 충만하리라.”<sup>9</sup>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들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고난이 폭풍우처럼 몰려 올지라도, 역경이 우리 머리 위에서 비처럼 쏟아질지라도 우리의 복음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올바르게 걷고 계명을 지키는 한 우리를 지탱하게 하고 위로해 주며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가져 다 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미래는 여러분의 신앙처럼 밝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분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며 구속주이십니다. 하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디모데후서 1:7
2. 니파이후서 2:25
3. 교리와 성약 68:6
4. 1937년에 Thomas A. Condie가 쓴 “History of Gibson and Cecelia Sharp Condie,”에서 발췌. 출판되지 않음.
5. 요한복음 16:33
6. 요한복음 8:12
7. “The Gate of the Year,” in James Dalton Morrison, ed., *Masterpieces of Religious Verse*(1948년), 92쪽 중에서
8. 개인적 대화와 Frederick W. Babbel의 *On Wings of Faith*(1972년), 40~42쪽.
9. 니파이후서 9:18

# 비이기적인 봉사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이기적인 봉사를 하는 희생을 통해 그분을 따르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몸소 비이기적인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려면 자신의 이기적인 이해를 버리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태복음 16:24~25; 또한 마태복음 10:39 참조)

I. 후기 성도들은 집단으로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데 남다르며, 특히 비이기적인 봉사의 정도에서 그렇습니다.

해마다 수만 명의 후기 성도들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려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은퇴 후의 즐거운 삶과, 가정의 안락함, 자녀 및 손자 손녀들과 두터운 정을 쌓은 삶을 제쳐 두고 낯선 사람들에게 봉사하려고 낯선 곳으로 떠납니다. 젊은이들은 직업과 교육을 미루고 어디든 부름 받는 곳으로 봉사하러 갑니다. 수십 만 명의 충실한 회원들은 “성전 사업”이라고 부르는 비이기적인 봉사에 참여합니다. 그들에게는 산 자이건 죽은 자이건 간에 인류에 대한 사랑과 봉사 이외에는 다른 동기가 없습니다. 스테이크, 와드 및 지부의 수많은 역원들과 교사들도 그와 같은 비이기적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세속적인 보상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를 행합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나 소망들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 전, 영국에서 한 새로운 선교사가 좌절과 낙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편지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의 현명하신 부친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를 잊고 봉사하러 나가거라.” 젊은 고든 비 헝클리 장로는 무릎을 꿇고서 자신을 잊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몰두하겠다고 주님께 맹세했습니다.<sup>2</sup>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주님의 성숙한 종이 된 헝클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는 쇠퇴하여 죽을 것이나 남을 위한 봉사에

자신을 바치는 자들은 성장하여 이생에서나 영원한 세상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sup>3</sup>

지난 1월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브리검 영 대학교 학생들에게, 학창 시절에 준비하는 것들 중에 타인을 위한 봉사를 포함하여 “영적 준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몬슨 회장은 “사랑의 태도”가 주님의 성역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소경에게 시력을 주셨고, 보행장애자에게 다리를 주셨으며,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창조주를 직접 만날 때, 우리는 ‘직책을 몇 개나 가졌는가’ 하는 질문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몇 사람이나 도와주었느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몬슨 회장은 끝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을 섬김으로써 그분을 섬기게 되기까지는 결코 그분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sup>4</sup>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한 가지 흔한 예는—후기 성도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바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낳아 기르기 위해 고통을 겪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들과 인락을 희생합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는 일에 맞춰서 생활하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이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가족 한 명이 최근에 비행기에 타고 있던 도중에 자녀를 갖는 대신에 개를 키우자고 말하는 어느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유인즉슨, “개는 말썽을 덜 피워. 개는 말대꾸도 하지 않으니까 별 줄 일도 없잖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후기 성도 부부들이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라고 보내 주시는 자녀를 낳아 기쁨으로써 주님을 섬기는 비이기적인 사람들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또한 장애가 있는 가족이나 연로한 부모님을 돌보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이런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고 묻지 않습니다. 비이기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편리는 제쳐두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비이기적인 봉사는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 재물, 기타 즉각적인 보답을 받는 것과는 대비되는 일입니다.

후기 성도들의 희생은 남다른입니다. 우리는 매주 성찬을 취하면서 주님과 이웃을 섬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기록한 성전 의식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희생하고 헌납하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

## II.

후기 성도들은 협력이 필요한 일을 할 때 단합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서부의 산악 지대를 개척했던 물문 개척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비이기적으로 협력하는 명예로운 전통을 세웠습니다. 이 전통을 따라서 오늘날의 “도움의 손길” 사업들이 여러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sup>5</sup> 최근의 몇 차례

선거에서, 후기 성도들은 결혼제도의 수호를 위해 뜻이 같은 사람들과 협력해 왔습니다. 그러한 봉사 때문에 큰 희생을 겪어야 했고 아직도 개인적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신앙과 교회 봉사를 통해 큰 지역 사회에 유익이 되는 공동의 노력을 어떻게 더 잘 해야 하는지 배워 왔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후기 성도 자원 봉사자들은 교육계, 지역자치단체, 자선 단체, 그리고 고도의 기술과 시간과 자원의 비이기적인 희생을 요하는 기타 수없이 많은 프로젝트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회원들이 기꺼이 희생하려 하고, 협력이 필요한 일에 자신의 기술을 제공하려 하는 이유가 효과적인 교회 조직 때문이라거나 회의론자들이 잘못 알고 일컫는 “맹종” 때문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우리 교회 조직을 모방하려 하고 맹종을 운운하더라도 이 교회의 기록이나 교회 회원들의 성과를 따라오지는 못합니다.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와, 협력이

필요한 일에 제공하는 우리의 기술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교회 지도자들의 영감에 찬 가르침과, 우리가 맺은 서약과 성약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 III.

불행하게도 일부 후기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비이기적인 봉사보다는 세상의 표준과 가치관에 맞춰서 자신의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우리를 밀 까부르듯 하려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누가복음 22:31; 제3니파이 18:18 참조) 이 말은 사탄이 우리를 주변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고귀하고 특별한 세상의 소금이 되고(마태복음 5:13) 온 인류에게 빛을 가져다 주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마태복음 5:14, 16; 또한 제3니파이 18:24 참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두려워하게 되면 구주를 잘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칭송을 구하고 주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을 둔, 회복된 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교리와 성약 30:2; 58:39 참조) 그러한 질책은 우리가 세상의 표준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표준을 세우기 위해 부름 받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존 에이 윌소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걷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는 다른 운명과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맞추어야 합니다.”<sup>6</sup> 단정하지 않은 복장을 포함하여 유행을 따르는 각급의 모든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한 지혜로운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변에서 수영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한다면 인명 구조원이 될 수 없는 법이다.”<sup>7</sup>

세상의 칭찬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려 하는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구주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시 에스 루이스는 구주의 그 가르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사욕을 갖는 순간, 자신을 가장 중요시하며 자신이 중심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이 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사탄이 범했던 죄이며, 사탄이 인간에게 가르쳤던 죄인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인간의 타락이 성육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 사탄이 우리의 옛 조상들의 머리에 심어 놓은 것은 바로 그들이 “신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마치 스스로 창조된 것처럼 혼자 힘으로 설 수 있고,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는 별개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허망한 시도 속에서 남은 것이라고는 ...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신을 행복하게 해 줄 어떤 것을 찾으려 하는, 인간의 오래되고 비참한 이야기밖에 없다.”<sup>8</sup>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특히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는 자신의 필요사항과 욕망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길로, 또 자기 자신의 신의 형상을 따라 걷나니,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교리와 성약 1:16)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약을 받지 못하며(교리와 성약 1:15 참조),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우정과 도움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구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봉사한다면, 성약을 받고 친구들을 얻게 됩니다.

#### IV.

우리는 희생이 고리타분해지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비이기적인 협동의 필요성을 가르쳤던 외부의 주체들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금을 “나” 세대, 즉 모든 사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고 묻는 것 같은 이기심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더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조차도



시현에서 세상의 교만을 상징했던 “크고 넓은 건물”로부터 조롱하고 경멸하는 이들의 칭송을 받으려고 인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니파이전서 8:26~28; 11:35~36 참조)

이 시대의 세상적인 욕망은 바로 헛된 것을 위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탐욕의 모습을 했던 사탄이 지금은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이것을, 저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 나는 누구니까. 즉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시민이니까, 피해자니까, 어떤 단체의 회원이니까. 권리란 대체적으로 이기적인 것입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되, 주는 것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습니다. 그것의 개념은 바로 자신을 주변 사람들보다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정한 보상의 기준,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을 때 그것은 바로 그 축복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기준에서 우리를 떨어지게 합니다.(교리와 성약 130:21 참조)

탐욕과 권리의 양상은 일부 기업 임원들의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보너스에서 자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례는 더 널리 만연해 있습니다. 탐욕과 권리 의식은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차입과 과도한 소비주의에 기름을 부어 금융 위기를 불러오고 급기야 온 세계를 삼켜버릴 기세입니다.

도박도 탐욕과 이기심의 한 예입니다. 도박꾼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돈을 빼앗아오려는 마음에서 최소한도의 금액을 내겁니다. 아무리 위장을 해도, 아무 수고도 없이 무언가를 얻는다는 것은 수확에 관한 복음 율법에 배치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7; 또한 고린도후서 9:6 참조)

세상의 가치관은 “그것은 모두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잘못 가르칩니다. 그러한 부패한 자세로는 어떤 변화나 성장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한 위대한 계획에서 밝히신, 운명을 향해 영원히 진보해 나가는 것과

반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획은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며 이생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비이기적인 봉사의 위대한 모범이 바로 인도 캘커타의 고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녀는 서원을 하고 동료들과 함께 “극빈자들을 위해 무료로 진심어린 봉사”<sup>9</sup>를 하는 데 생을 바쳤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우리에게 언제나 천국행 승차권을 보증해 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자애와 친절의 행위로 채우는 것이다.”<sup>10</sup>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또한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큰 사랑으로 작은 일들만 할 수 있을 뿐이다.”<sup>11</sup>라고 말했습니다. 이 훌륭한 가톨릭의 성인이 작고했을 때, 제일회장단은 애도의 메시지를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비이기적인 봉사로 일관한 그녀의 삶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이 가득한 그녀의 행위들은 미래 세대들을 위한 기념비로 우뚝 설 것입니다.”<sup>12</sup> 이것이 바로 구주께서 말씀하신, 자기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교회에 참석하는 우리의 자세에서 그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는 저의 필요사항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해요.” 그런 말들은 모두 자기 중심적이며,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 현명한 친구가 이런 글을 보내 왔습니다.

“오래 전, 저는 교회에 갈 때의 마음가짐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 자신을 위해 교회에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갑니다. 혼자 앉아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처음 오신 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

자원해서 일을 맡아 합니다. …

“한 마디로 말해서,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인 사람이 되며,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매주 교회에 갑니다. 그 결과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보람도 큼니다.”<sup>13</sup>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풀기 위해서 행동하고 봉사할 때 더 행복해지고 더 큰 보람을 갖게 된다는 영원한 원리를 대변해 줍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이기적인 봉사를 하는 희생을 통해 그분을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교리와 성약 14:7)인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살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을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그분들과, 그분들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마련하신 위대한 계획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고든 비 힝클리, “Taking the Gospel to Britain: A Declaration of Vision, Faith, Courage, and Truth”, *Ensign*, 1987년 7월호, 7쪽.
2. *Ensign*, 1987년 7월호, 7쪽 참조.
3.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7년), 588쪽.
4.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Great Expectations”,(교회 교육 기구 청년을 위한 노년의 모임, 2009년 1월 11일), [www.ldsces.org](http://www.ldsces.org)
5. “물론 도움의 손길, 봉사의 첫 10년을 마무리해”, 교회소식, *리아호나*, 2009년 3월호 참조.
6. 존 에이 윌소, Conference Report, 1940년 4월, 36쪽.
7. Ardeth Greene Kapp, *I Walk by Faith*(1987년), 97쪽.
8. C.S. Lewis, *Mere Christianity*(1980년), 49쪽.
9. *The Joy in Loving: A Guide to Daily Living with Mother Teresa*, Jaya Chaliha 및 Edward Le Joly 편(1996년), 15쪽.
10. *Life in the Spirit*, Kathryn Spink 편(1983년), 42쪽.
11. *Life in the Spirit*, 45쪽.
12. “News of the Church”, *Ensign*, 1997년 11월호, 110쪽.
13. 마크 스카우슨이 딸린 에이치 옥스 장로에게 보낸 서한, 2009년 2월 15일.



# 이름과 지위를 영예롭게 유지하고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님의 거룩한 집에서 예배를 하며 이름과 지위를 영예롭게 유지하려는 이 교회의 모든 충실한 회원의 마음 속에는 성약의 불꽃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19** 87년 스테이크 회장 부름을 받은 직후 저는 스테이크 회장에서 해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훌륭한 친구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도중에 저는 유능한 스테이크 회장이 되는 것에 관해 저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을지 물어보았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그 친구의 답변은 그 이후 제가 봉사와 성역을 행하는 데 심오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 친구는 해임된 지 얼마 안 되어 성전 봉사자의 부름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이 되기

전에 성전 봉사자로 봉사했으면 좋았을 텐데,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받기 전에 성전에서 봉사했다라면, 나는 아주 다른 스테이크 회장이 되었을 걸세.”

그 친구의 답변을 듣고 흥미를 느껴 좀 더 설명해 주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해주었습니다. “나는 내가 좋은 스테이크 회장이었다고 믿네. 우리 스테이크 프로그램은 잘 진행되었고, 각종 통계 수치는 평균 이상이었지. 하지만 성전에서의 봉사는 내 시야를 넓혀주었어. 만약 오늘 스테이크 회장 부름을 다시 받는다면 나는 성전 성약들을 받고 존중하기 위한 합당성에 가장 초점을 맞출 걸세. 성전 준비를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인데, 성도들을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일을 더 잘 할 걸세.”

제 친구와 나는 짝막한 대화는 제가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성전 의식, 성전 성약, 그리고 성전 예배에 대해 끊임없이 가르치고 간증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스테이크 회장단이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은 스테이크의 모든 회원이 성전의 축복을 받으며, 성전 추천서를 받고 그것을 자주 사용하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의 메시지는 성전의 축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신이 우리 마음을 밝히고

우리 가슴속에 임하여 우리 모두에게 진리를 증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집합의 신성한 목적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어떤 시대에서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모으시는 거룩한 목적은 성전을 지어 그분의 자녀들이 가장 높은 의식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년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공과 교제, 415~417쪽 참조)* 집합의 원리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의 이 필수적인 관계는 물론경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보라, 발은 무르익었고, 지금 너희는 복되나니, 이는 너희가 낮을 휘둘러, 너희 힘을 다하여 거두었음이라. 참으로 온종일 너희가 수고하였나니, 너희 곡식 단의 수를 불지어다! 그것들이 곳간으로 모여져 버려지지 아니하리라.”(앨마서 26:5)

이 비유에 나오는 단들은 새로 침례 받은 교회 회원들을 뜻합니다. 곳간은 거룩한 성전을 말합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행할 때, 우리의 시선은 침례만 넘어 거룩한 성전을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곡식 다발들이 모여지는 위대한 곳간은 곧 거룩한 성전입니다.”(존 엘 하트, “Make Calling Focus of Your Mission,” *Church News*, 1994년 9월 17일자, 4면) 이 가르침은 곡식 다발들이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성스러운 성전 의식과 성약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밝혀 주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마지막 날에 폭풍에 부딪쳐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요, 참으로 회리바람에 썰레질 당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폭풍이 올 때 제자리에 모여져, 폭풍이 그들에게까지 침투하지 못할 것이요, 어디든지 참으로 원수가 그들을 휩쓸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광풍에 밀려가지도 아니하리라.”(앨마서 26:6)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우리가 성찬의 상징을 취함으로써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취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겠다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증거합니다.(교리와 성약 20:77 참조) 우리가 기꺼이 하겠다고 증거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의미에서 성스러운 이름을 실제로 받들기에 앞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 성도의 빛, 1985년 7월호, 88~89쪽) 침례 성약은 분명 앞으로 일어날 일 혹은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며 성전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현대의 계시에서 성전을 “내 이름을 위하여” 지어진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교리와 성약 105:33; 또한 교리와 성약 124:39; 109:2~5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커틀랜드 성전의 헌납기도에서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이 집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이 그들 위에 있게 하시며”(교리와 성약 109:22)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이

집에서 당신의 이름을 그들 위에 두신 당신의 백성을”(교리와 성약 109:26) 위한 축복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커틀랜드 성전에 나타나셔서 그 성전을 그분의 집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보라, 내가 이 집을 받아들였고 내 이름이 여기에 있을 것이며, 내가 이 집에서 자비 가운데 나의 백성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10:7)

이 성구들은 침례의 물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드는 과정이 주님의 집에서 계속되며 확장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침례의 물 안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성전을 바라봅니다.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성전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성전의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로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로서, 항상 구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 의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완전하고 온전하게 받게 됩니다.

“이 대신권 [혹은 벨기세텍 신권은 복음을 베풀며, 왕국의 비밀의 열쇠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지니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의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그리고 그것의 의식과 그 신권의 권세 없이는 경건의 능력은 육체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니.”(교리와 성약 84:19-21)

### 어떠한 악의 결사도 당신의 백성을 이기지 못하리

우리는 전 세계에서 성전을 건설하는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은 현재 세상 곳곳에서 세워지고 있는 성전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 성스러운 건물들을 짓고 헌납하는 일에는 교회의 적들의 반대는 물론, 몇몇 교회 내에서의 무분별한 비판도 따릅니다.

이러한 적대 행위는 새삼스런 것이 아닙니다. 1861년 솔트레이크 성전의 공사가

진행 중이었을 때, 브리검 영은 다음과 같은 말로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한다면 일터로 가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 어떤 이들은 ‘성전을 짓기 시작하기만 하면 항상 지옥의 종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달갑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종소리가 울리는 것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지옥의 모든 지파가 움직일 것입니다. ...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내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아 왔습니다.”(Deseret News, 1861년 4월 10일, 41쪽)

우리 충실한 성도들은 대적으로 인해 강하게 되었고 주의 친절한 자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 아래 전진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원수들이 나의 일을 멸할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리니, 그러하도다, 나는 나의 지혜가 악마의 간교함보다 더 위대함을 그들에게 보이리라.”(교리와 성약 10:43)

베드나 자매와 저는 여러 해 동안 충실한 남녀들을 브리검 영-아이다호 대학교의 영적인 모임의 연사로 모셨습니다. 연사들 대부분은 총관리 역원의 봉사를 마치고 성전 회장으로 봉사하신 칠십인 명예 회원 혹은 해임된 칠십인 회원이었습니다. 이 매우 충실한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늘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성전 회장을 지내시면서 총관리 역원이었을 당시에 좀 더 잘 깨달았더라면 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그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한결 같은 주제를 알게 되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성전 성약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훌륭한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참석하고 십일조를 내고 이따금 성전에 서둘러 찾아가서 의식을 받는 회원들과 성전에서 충실하게 지속적으로 예배를 하는 회원들 사이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답변의 유사함에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각 답변은 주님의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의식과 성약의 보호의 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답변은 1836년 커틀랜드 성전에서 드린 헌납 기도에 담긴 약속과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는 당신께 비옵나니, 이 당신의 집에서 예배하며 이름과 지위를 영예롭게 유지할 백성을 대대로 영원토록 굳게 세우시고,

“그들을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무기가 변성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가 거기에 빠지게 하시고,

“어떠한 악의 결사도 일어나 당신께서 이 집에서 당신의 이름을 그들 위에 두신 당신의 백성을 이길 힘을 갖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만일 어느 백성이 이 백성을 대적하여 일어나면, 당신의 노여움이 그들을 향하여 불붙게 하시고,

“또 만일 그들이 이 백성을 치면 당신께서 그들을 치시며, 전쟁의 날에 당신께서 행하셨던 것같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사, 그들이 그들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하시옵소서.”(교리와 성약 109:24~28)

대적이 날뛰는 현재의 상황과 우리가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거룩한 성전에서 이름과 지위를 영예롭게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보호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성구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약의 축복은 모든 세대와 영원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이 성구들이 의미하는 바를 반복해서 연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고해 볼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는 성전 예배와 사업을 방해하거나 손상시키려 하는 사탄의 노력에 놀라서는 안



됩니다. 악마는 주님의 집의 청결함과 권능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성전 의식과 성약을 통해 우리 각자가 누릴 수 있는 보호는 루시퍼의 사악한 계획에 큰 방해가 됩니다.

### 성약의 불꽃

1846년 9월에 어쩔 수 없이 나부를 떠나야 했던 일은 충실한 후기 성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안겨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시시피 강변의 진영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윈터 퀴터스에서 이 피난민들의 상태에 대한 소식을 들은 브리검 영은 곧바로 강 건너 카운슬 포인트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분은 도움을 주도록 형제들을 격려하며 그들이 나부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일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집에서 맺은 성약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십시오.”(in *Journal Histor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1846년 9월 28일 5쪽). 수일 내로, 고난에 처한 성도들을 구하기 위한 마차들이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초기 성도들에게 그러한 힘을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타올랐던 성전 성약의 불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집에서 예배하며 이름과 지위를 영예롭게 유지하겠다고 맺은 그들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주님의 사업을 행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을 찾았던 개척자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용기를 새롭게 다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찬송가, 16장 참조) 오늘날 성전들이 의식과 성약을 위한 성스러운 장소, 교회를 위한 장소, 그리고 폭풍의 피난처로 지상 곳곳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 권고와 칭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반드시 모아야 하니, ... 밀은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영생을 소유하고 해의 영광으로 면류관을 쓰게 하려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101:65)

제 목소리가 미치는 곳에 많은 어린이들, 청년,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합당해지고 굳건하며 성전의 의식과 축복을 받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라고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미치는 곳에 마땅히 주님의 집의 의식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지체 기간에 상관없이 저는 그분들이 거룩한 성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준비를 시작할 것을 권고합니다. 모조록 여러분의 생활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떨쳐 버리십시오.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구하십시오.

제 목소리가 미치는 곳에 성전 의식을 받은 후 여러 가지 이유로 꽤 오랜 시간 동안 다시 주님의 집에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부디 회개하고, 준비하고,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들을 행하여서, 다시 성전에서 예배하고 여러분의 성스러운 성약을 더욱 온전히 기억하며 존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 목소리가 미치는 곳에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고 그것을 합당하게 사용하려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충실함과 신앙을 치하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거룩한 집에서 예배를 하며 이름과 지위를 영예롭게 유지하려는 이 교회의 모든 충실한 회원의 마음 속에 성약의 불꽃이 활활 일게 될 것이라고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이자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에게 주시는 계시를 통해 교회 제반사를 이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성스러운 가정, 성스러운 성전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성전의 영원한 특성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을 가족에게로 이끌어줄 것이며, 가족의 영원한 특성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을 성전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대회였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유타 주 캐쉬 밸리의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가까워오던 어느 따스하고 화창한 오후를 기억합니다. 토요일이면 늘 손자들과 놀아주느라 바빴던 아버지는 그날도 저희 집에 오셔서 “드라이브를 하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할아버지의 트럭에 타는 것을 좋아했던 여섯 살, 네살 난 우리 아들들은 부리나케 트럭 뒷좌석에 올라 탔고, 저도 앞좌석에 올라 탔습니다. 우리는 로간 시

중앙의 언덕에 아름답게 자리잡고 있는 로간 성전을 둘러싼 시내 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도시 외곽으로 달리면서 복잡한 포장 도로가 한산한 비포장 도로로 바뀌었고, 우리는 낮은 다리들을 건너 나무 사이를 누비며 시골 한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차량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주위에는 우리뿐이었습니다.

손자들이 전에 한 번도 와 본 적 없는 곳에 와 있다는 것을 아신 아버지는 트럭을 세우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것 같니?” 아이들은 휘둥그레진 눈으로 차창 밖의 계곡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정적이 흐르더니, 어린 아이의 심오한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키며 “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성전을 볼 수 있다면 결코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바라보고 있는 곳을 쫓아가 보니, 저 멀리 계곡 너머로 로간 성전의 첨탑에서 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볼 수 있다면 결코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어둠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 주는 영원한 이정표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집입니다. 그것은 성약을 맺고 영원한 의식들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물문경에서 베나민 왕은 그가 통치하던

성도들을 한데 모이게 하여 “각 사람이 그 장막 문으로 성전을 향하게”<sup>3</sup> 했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최근에 우리는 현대의 선지자들로부터 권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권고를 따른다면 우리 가정의 문들은 더욱 온전히 성전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제일회장단은 “성인 회원들에게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고”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더 자주 성전에 갈 것”을 권고했으며, “일부 여가 활동을 성전 봉사로 대체하도록” 권유했습니다. 또한 제일회장단은 “교회의 새로운 회원들과 열두 살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합당하게 생활하여 대리 침례와 확인 의식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이 위대한 사업을 도울 것”<sup>4</sup>을 권고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성전 뜰에 와서 성전을 직접 만져 볼 것을 권고받았습니다.<sup>5</sup>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어루만질 때, 성전은 우리를 어루만질 것입니다.”<sup>6</sup>

우리는 146개의 성전이 헌납되거나 발표된, 성전 건설의 경륜의 시대에 살도록 축복받았습니다.<sup>7</sup> 경전 안내서에 나와 있는 “성전”의 정의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성전은 [지상에 있는] 예배의 모든 장소들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곳이다.” 그 뒤에는 다음과 같은 통찰력 있는 설명이 나옵니다. “오직 가정만이 성스러운 면에서 성전과 견줄 수 있다.”<sup>8</sup> 저에게 있어, 이것은 성전과 가정의 성스러운 관계를 말해 줍니다. 우리는 가정의 문을 성전, 즉 주님의 집으로 향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스테이크 대회에서, 방문 역원이었던 지역 칠십인인 글렌 젠슨 장로님은 모든 회원들에게 영적인 눈을 사용해서 그들의 가정에 대한 가상 여행을 해 볼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해 볼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생겼든, 영원한 복음의 원리들은 가정 안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곳이 성전과 마찬가지로 사랑과 평안의 장소요 세상으로부터의 피난처입니까?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습니까? 방들로 걸어 들어가면 성전과 구주의 사진과 같이 우리를 고양시켜 주는 사진이나 그림들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침실이나 취침 공간은 개인 기도를 드리기엔 적합한 장소입니까? 응접실이나 부엌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함께 식사를 즐기며, 기운을 북돋아 주는 대화와 가족 시간을 보내기에 적합한 장소입니까? 가족이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고 배우는 곳에 경전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복음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들려오는 음악이나 눈에 띄는 온라인 또는 다른 형태의 오락물들이 영을 거스르지는 않습니까? 대화는 다툼이 없고 서로를 고양시켜 줍니까? 이것으로 우리의 여행은 끝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주거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부분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전면적인 주거 개조”가 필요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크든 작든, 보잘것없든 화려하든, 우리 각자의 가정에는 이러한 복음의 우선 순위들이 자리할 곳이 있습니다. 성전과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성스럽고 합당하게 지키기 위해, 주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이 선지자들을 통해 표준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가족 평의회에서 가정을 성스럽게 지키고 그곳이 “주님의 집”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표준들을 함께 이야기할 것을 자주 권고 받았습니다.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sup>9</sup>는 권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정의 유형에 대한 신성한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환경과는 관계없는 우리 모두가 거하게 될 “영적인 집” 짓기를 시작하게 해주는데, 그 집은 “좁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느니라”<sup>10</sup> 보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전과 가정 사이에는 의로운 단합이 존재합니다. 성전의 영원한 특성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을 가족에게로 이끌어 줄 것이며, 가족의 영원한 특성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을 성전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의 의식을 통하여 영원한 가족의 기초가 굳건해집니다.”<sup>11</sup>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성전이라고 말해 보십시오. 조용히 경건한 마음으로 말해 보십시오. 성전, 성전, 성전 하고 반복해서 말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거룩한 이라는 단어를 덧붙여서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해 보십시오. 문장의 어느 위치에 있던 관계없이 그것이 대문자로 쓰여 있다고 생각하고 말해 보십시오. “성전. 후기 성도들에게 이만큼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입니다. 거룩한 성전과 가정이라는 단어를 합쳐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집을 말한 것이 됩니다!”<sup>12</sup>

작년에 전 세계의 수많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소속 와드 및 지부에 모여 초등학교 성찬식 발표의 일환으로 그들의 가족과 와드 회원들에게 노래를 불러 주었습니다. 그들은 소망과 약속과 준비에 대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성스러운 가정에 관한 것으로 시작해서 성스러운 성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사를 읽어 드리면 마음속에 그 음이 떠오르리라 생각합니다.

나 성전 보고 싶어  
언젠가 갈거야  
성령을 느끼면서  
주님께 기도해  
성전은 하나님 집이니  
사랑이 넘치는 곳  
나 어린 동안 준비해  
거룩한 나의 의무  
나 성전 보고 싶어



그 안에 들어가  
 주님과 성약 맺고  
 또 순종 약속해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  
 우리 인봉되는 곳  
 나 귀한 진리 배웠네  
 가족은 영원하다<sup>3</sup>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모와 자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가정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영원한 결혼으로 인봉되며, 세대와 세대가 결합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승영에 이르게 하는데 있습니다.”<sup>14</sup>

이러한 원리들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의 문이 성전, 즉 주님의 집으로 향하게 하는 것을 도울 것이며, 여러분의 성스러운 가정이 더욱 주님의 집과 같이 되게 해 줄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순수한 아이의 표현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볼 수 있다면 결코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주님의 성전의 성스러운 특성에 대한 제 간증을 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주요 구속주로서의 역할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또한 조셉 스미스로부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권 열쇠를 행사할 권세를 지닌 살아 있는 선지자들에게 대해 간증드립니다.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니파이전서 8:24.
2. 경전 안내서, “성전, 주의 집”, 143~144쪽 참조.
3. 모사이어서 2:6.
4. 2003년 3월 11일자 제의회장단 서한.
5. 토마스 에스 몬슨, “평화를 찾음”, *리아호나*, 2004년 3월호, 5~6쪽 참조.
6. 조안 졸리의 “A Shining Beacon on a Hill: Jordan River Temple Is Dedicated”에서 발췌,



*Ensign*, 1982년 1월호, 77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님은 성전이라는 물리적 존재에 담긴 심오한 영적 의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작고하신 매튜 코올리 장로님이 들려주신, 어느 할아버지가 어린 손녀의 생일에 그녀를 솔트레이크 성전 뜰로 데려간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관리인의 허락을 받아, 그들은 성전의 큰 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성전 벽과 문에 손을 대어 보라고 한 후,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성전을 만진 것을 기억하거라. 언젠가 너는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될 거란다.’ 그가 손녀에게 준 특별한 선물은 주님의 집에 대한 고마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몬슨 장로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어루만질 때, 성전은 우리를 어루만질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성전” 목록에서 현납일자를 클릭하여 참조.  
 8. 경전 안내서, “성전”, 143~144쪽 참조.  
 9. 교리와 성약 88:119.  
 10. 마태복음 6:19~20; 제3니파이 13:19~20 참조.  
 11. 하워드 더블류 헌터, “A Temple-Motivated People”, *성도의 빛*, 1995년 5월호, 4쪽.  
 12. 보이드 케이 패커, “성전과 신권”, *성도의 빛*, 1993년 7월호, 18~21쪽.  
 13. “나 성전 보고 싶어”, *어린이 노래책*, 99쪽.  
 14. 보이드 케이 패커, “신앙의 방패”, *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8쪽.

#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은사

호세 에이 테제이라  
칠십인 정원회

하나님께서서는 필멸의 삶을 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 꼭 필요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하** 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행복의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좌는 그 계획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그 계획에서 우리의 몫을 더욱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서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짧지만 귀중한 말씀을 읽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조금 더 그분처럼 되기 위한 인생의 여정에서 홀로 방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멸의 삶을 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 꼭 필요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영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자 능력입니다.”<sup>2</sup> 이 은사는 영원한 목표를 향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줍니다.

우리에게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련해 주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큰 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sup>3</sup> 그분의 희생은 그분의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성공을 거두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아는 것은 참으로 큰 위안입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미지의 바다를 항해할 때 혼자자 아님을 아는 것 또한 큰 위안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한 가지 은사는 **선택의 능력과 힘**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명백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우리에게 대한 놀랄 만한 신뢰의 표시인 동시에 현명하게 사용해야 할 개인의 소중한 책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시며, 결코 우리에게 옳은 일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지도,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이를 선택하는 것을 저지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sup>4</sup> 그러나 이 중요하고도 중대한 은사에 관한 그분의 권고는

명백하게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은 끊임없이 선을 행하도록 이끌며 권유하니, 그러므로 무릇 선을 행하도록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도록 이끌며 권유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sup>5</sup>

“끊임없이 선을 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선택의지를 사용할 때 적용해야 할 표준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는데, 그것은 결정을 내린 즉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길에 남는 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최근에 저는 소형 GPS(위치 확인 시스템) 수신기를 사용했습니다. 이 놀라운 장치에는 현재 지상에서의 제 위치를 알려주는 화면과 지상 위의 높은 곳에 있는 위성이 전송하는 주파수에 맞춰진 안테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이런 종류의 장치들은 과학적인 용도와 지도 제작 및 지질 조사에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운전할 때 길 잃는 것을 방지해 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사 전반에 걸쳐, 인류는 길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15세기 대항해 시대 동안, 제 고향인 포르투갈에서 항해자들은 “리스본 해변에서부터 알려진 적 없는 바다로 항해하면서”<sup>6</sup>, 그들의 목적지를 찾기 위해 최상의 지도를 사용하고 밤하늘의 별자리를 읽으며 그 당시의 진보된 범선을 이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거슬러 항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많은 경우에 그들은 망망 대해에서 길을 찾기 전에 끝없이 방황해야 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저는 오늘날의 이 GPS 수신기로 언제든 다음과 같은 질문의 답을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 나는 어디에 있는가?
-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그곳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인가?
- 언제 도착할 것인가?

이 조그만 장치로 인해, 저는 운전할 때 큰 안정감을 느끼며, 이 장치가 놀랄 만한 정확성으로 제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데려다 줄 것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면서, 저는 이 장치의 새로운 기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고음이 나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위성 수신을 놓쳤습니다.” 제 주위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위성 신호를 방해하면서 장치의 연결이 끊어진 것입니다.

다시 바깥으로 나온 저는 그 장치가 필요한 신호를 잡는 데 얼마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내면에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언제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게 해 주는 “GPS”가 있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교리와 성약 84:46) 이 능력은 양심이라 불립니다. 양심은 우리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줍니다.”<sup>7</sup>

게다가,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를 위로하고 보호하고 인도해 줄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sup>8</sup>다.

그러나 다른 능력들처럼, 우리의 양심은 죄나 오용을 통해 둔해질 수 있습니다.<sup>9</sup>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것들에 무관심해진다면, 우리 역시 인도를 받는 데 필요한 신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강력한 신호를 가장 확실히 유지하게 해 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 좌우됩니다. 결정이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sup>10</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잘못된 선택이 우리를 불행으로



끌어내리는 반면, 훌륭한 선택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sup>11</sup> 훌륭한 것을 선택하도록 배우고 계명을 지킨다면, 다음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본보기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 삶의 성취를 맞봄
- 조금 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됨
- 충실함에 따라 약속된 모든 축복을 상속받을 자격을 갖추

우리가 인생을 향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자들의 말을 믿게 해 주는 능력입니다.<sup>12</sup>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시대를 비롯한 모든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개인과 가족을 위한 그분의 행복의 계획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살아 계신 선지자들을 신뢰할 수 있으며, 그들의 가르침은 주님의 말씀과 뜻을 반영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sup>13</sup>

초등학교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언자 따라  
예언자 따라, 바른길로  
예언자 따라 ...  
예언자 따라 나아가세 ...  
우리들의 갈길 인도해 주니  
예언자의 말씀 따라 살리라.<sup>14</sup>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개개인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며, 우리를 인도할 선지자들과 대화하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신앙을 키울 때, 우리는 행복의 계획과, 그 계획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믿는 타고난 능력을 통해, 우리는 인생이라는 큰 바다를 건너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말에 선지자, 선전자, 계시자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과, 그분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주이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분들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르침대로 살 때 훌륭한 선택을 하게 되고 길을 잃지 않으며 우리의 영원한 집에 도착할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주

1. 모세서 1:39.
2. [gospeltopics.lds.org](http://gospeltopics.lds.org)의 "Spiritual Gifts"
3. [www.mormon.org/mormonorg/eng/basic-beliefs/heavenly-father-s-plan-of-happiness/god-has-a-plan-for-your-life](http://www.mormon.org/mormonorg/eng/basic-beliefs/heavenly-father-s-plan-of-happiness/god-has-a-plan-for-your-life)의 "God has a plan for your life" 참조.
4. [mormon.org](http://mormon.org)의 "God has a plan for your life" 참조.
5. 모로나이서 7:13.
6. 루이스 드 카뮈즈, *The Lusiadas*, 제1권, 1절, 윌리엄 줄리어스 마이클 번역(1776년).
7. [scriptures.lds.org](http://scriptures.lds.org)의 Guide to the Scriptures 중 "Conscience"
8. 사도행전 2:38 참조.
9. [scriptures.lds.org](http://scriptures.lds.org)의 Guide to the Scriptures 중 "Conscience"
10. 토마스 에스 몬슨, "결정이 운명을 바꾼다", *성도의 빛*, 1980년 7월호, 30쪽.
11. [mormon.org](http://mormon.org)의 "God has a plan for your life" 참조.
12. 교리와 성약 46:14 참조.
13. 야모스 3:7.
14. "예언자 따라", *어린이 노래책*, 58~59쪽.

# 주님의 종, 선지자들

에프 마이클 왓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주님은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농촌 지역인 유타 주 스프링 시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동안 여름이면 부친과 단 둘이 2주간 맨타이 라살의 산악 지역에서 양떼를 치며 지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번은 그 지역에 손을 앞으로 뻗으면 손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안개가 짙게 깔린 적이 있었는데, 저녁이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친께서는 저에게 야영지로 돌아가 있으면 금방 따라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어떻게 야영지를 찾을 수 있는지 여쭙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부친께서는 주저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한테 맡겨 두렴. 알아서 야영지로 갈테니." 부친의 말씀대로 저는 말고삐를 느슨하게 잡고 말이 앞서 갈 수 있게 했습니다. 가끔 미처 보지 못하고 낮게 드리운 나뭇가지에 얼굴을 부딪치거나 나무 옆을 다리로 스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말이

완전히 멈춰 서자, 야영지가 어렴풋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원하는 길을 즉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 사셨던 분들과 아직 살아계신 분들의 지혜에 고삐를 맡긴다면, 그들이 우리의 인도자가 될 것입니다.

빌립이 경전을 열심히 탐구하고 있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 사람은 반문하여 답했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경전 탐구의 중요성을 가르치신 과거의 선지자들께서 이같이 예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간직하는 자는 미혹을 받지 아니하리라."<sup>2</sup>

경륜의 시대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 일들을 세상에 선포해야 하니, 이 모든 것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sup>3</sup> 교리와 성약 1편은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교리, 성약, 그리고 계명의 서문이 되었습니다. 37절과 38절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계명을 상고하라. 이는 그것들이 참되고 신실하며, 그 안에 있는 예언들과 약속들이 모두 이루어질 것임이니라.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나는 나 자신을 변명하지 아니하니, 여러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

오늘 일곱 분의 주님의 종들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바로 그분들의 음성도 주님의 음성과 같습니다. 1970년 3월, 주님의 선택된 종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오랜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십이사도 정원회로 시작하여, 곧이어 제일회장단의 형제님들 바로 곁에서 거의 40년 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배움으로 가득했던 세월 동안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을 가슴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연차 대회 때마다 중요한 권고의 말씀이 주어져 왔듯이 과거 세대의 지혜를 배운 분들의 권고의 말씀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그 권고들을 따를 때 우리는 틀림없이 강해질 것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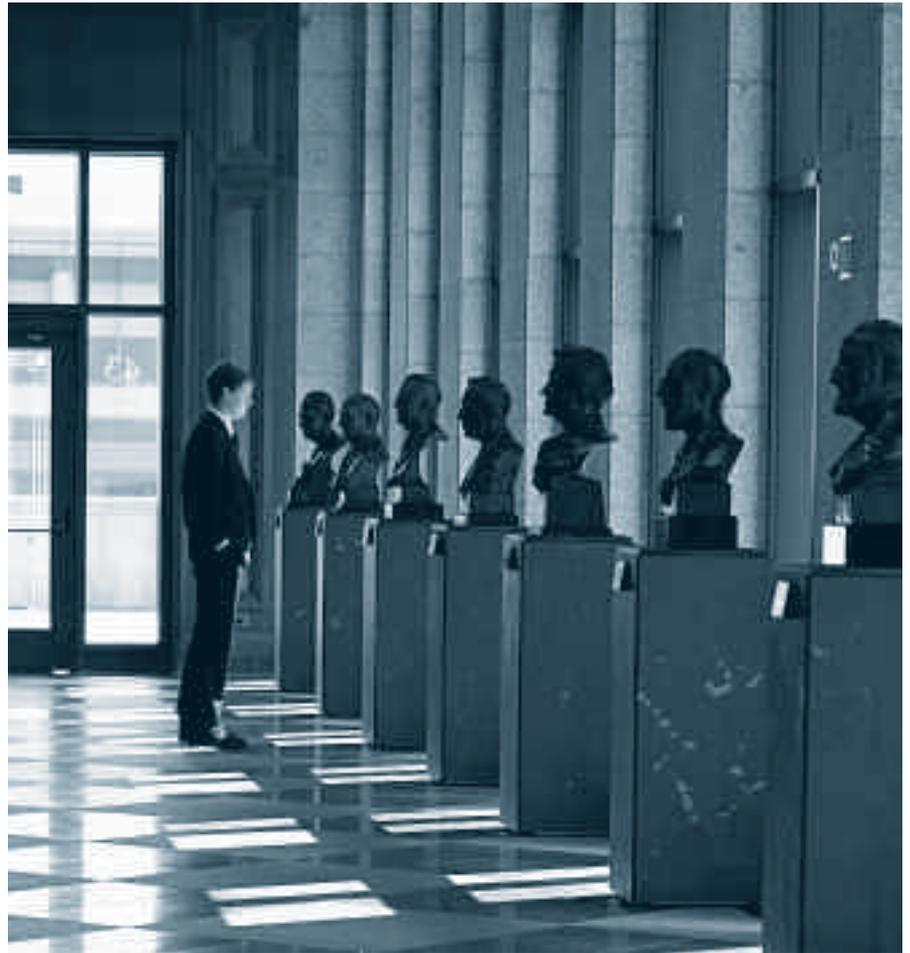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께서 주신 권고와 안내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께서서는 시편 24편에 나오는 말씀들을 자주 인용하셨는데, 그 편에는 질문과 대답이 나오고 충실한 이들에게 약속된 축복의 말씀도 나옵니다.

질문 -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대답 -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약속 -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sup>4</sup>

연차 대회에서 해롤드 비 리 회장님께서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실 말씀과 계명에 귀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지도자가 하신 말씀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정치적 견해라든가 사회적 견해와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회 생활을 방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여기고 신앙과 인내로 귀를 기울인다면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흑암의 권세를 흩어버리고 너희 유익과 또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할 것임이니라.’<sup>5</sup>

리 회장님께서서는 1973년 12월 작고하시기 전에 교회 직원과 그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역사를 들려 주신 후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지자들이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 믿으십니까?” 잠시 후 같은 자리에서 부적절한 서적과 텔레비전이 가정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던 선지자들의 권고와 관련하여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선지자들 곁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선지자가 아니라 그저 인간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권고]가 그저 좋은 말씀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sup>6</sup>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께서서는 그분의 저서를 통해 용서가 낳는 기적이 있으며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라는 위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한번은 예상치 못하고 당할 수 있는 난관들에 관해 말씀을 하시던 중에, 만일 우리에게 목숨이 걸린 순간들까지 변경시킬 수 있는 권세가 저마다 부여된다면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죽음을 가져왔던 카테지 감옥에서의 사건들을 바꿔놓으려고 하지 않았겠는지, 한발 더 나아가 그러한 무소 불위의 권능을 갖게 된다면, 예수께서 겻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했겠는지 묻는 것으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셨습니다.

제일 회장단께서는 매일 아침에 모임을 하실 때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하십니다. 저는 늘 에스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의 기도를 좋아했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축복에 대한 간구보다는 감사함으로 거의 완전히 채워지곤 했습니다. 벤슨 회장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물문경과 관련하여 “물문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sup>8</sup>이라고 하신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회장님은 또한 우리에게 “나를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니, 이는 끝까지 견디는 그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음이라.”<sup>9</sup>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라고 훈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회장으로 9개월을 봉사하셨던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님의 그 친성적인 선함에 흠뻑 매료되었습니다. 그분은 교회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모범, 특히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소망과 자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주님의 성전을 회원됨의 위대한 상징으로, 그리고 가장 성스러운 성약을 위한 거룩한 장소로 정하십시오. 내 마음속의 가장 깊은 바람은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sup>10</sup>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경륜의 시대에 계셨던 모든 선지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 보지도 못하였으며 조셉 스미스를 직접 만나보지도 못하였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가 살아 계실 당시 어린 나이로 나무에 살고 계셨던 저의 할아버지께서는 선지자 조셉의 말씀을 직접 들으시고 그분이 이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간증하셨습니다.”<sup>11</sup>

힝클리 회장님께서 어린 조셉 스미스가 숲으로 기도하러 가서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의 거룩한 계시를 통해 응답을 받았던 첫 번째 시현에 대해 증거하셨습니다.

성전 건물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스러운 사업에 대한 힝클리 회장님의 열정은 우리들이 저마다 따라야 할 북극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따라야 할 지침으로 1839년에 제일 회장단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다음 말씀을 재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면, 인내, 충실함, 여러분이 전파하는 교리의 정확함, 여러분이 발전시키고 실천하는 도덕적 교훈 ... 위에 인류 개개인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sup>12</sup>

몬슨 회장님은 우리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고 있는 분이며 미망인과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과 궁핍한 처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온전한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몬슨 회장님은 평생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주께서 성역을 베푸실 때마다

함께 했던 간절한 소망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바로 주님의 대변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권고와 지침을 따르라는 훈계를 받습니다. 참으로 당연하게도, 주님은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분들과의 모임에서 이를 기록해 왔습니다.

살아 계신 선지자들, 곧 제가 알아 왔고 사랑하는 이 후일의 증인들의 발치에서 가르침을 받아온 사람으로서, 저는 이 교회의 회원들이 주님께서 성서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주셨고, 오늘날 주님의 선지자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과 계명들을 따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sup>13</sup>는 것을 좀 더 온전히 이해하게 됨을 진실한 마음으로 간증드립니다.

앞서 드린 말씀이 참되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는 우리를 인도하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이 계시다는 것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주

1. 사도행전 8:30~31 참조.
2. 조셉 스미스-마태복음 1:37.
3. 교리와 성약 1:18 참조.
4. 시편 24:3~5.
5. 해롤드 비 리, Conference Report, 1970년 10월, 152쪽, *Improvement Era*, 1970년 12월, 126쪽.
6. 해롤드 비 리, 후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직일 크리스마스 영적 모임, 1973년 12월 13일, *The Teachings of Harold B. Lee*, 클라이트 제이 윌리엄스 판(1996년), 298쪽.
7. 누가복음 22:42 참조, 스펜서 더블류 킴볼, *Faith Precedes the Miracle*(1972), 100쪽 참조.
8. 교회사 4:461.
9. 제3니파이 15:9.
10. 제이 엠 토드, “President Howard W. Hunter: Fourteenth President of the Church,” 1994년 6월, 4~5쪽 인용.
11. 고든 비 힝클리, “주의 예언자를 믿으십시오”, *성도의 벗*, 1992년 7월호, 50쪽.
12. 교회사, 3:395, 이 서한에 대한 추가 정보는 조셉 필딩 스미스, *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1950년), 48~49쪽 참조.
13. 아모스 3:7.

# “영혼들을 내게 데려오라”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선교사들은 분명히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우리의 일인 이 일에 우리가 매진한다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수**년 전, 저는 프로보 캐년 입구 근처의 대학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을 때 앞서가던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쪽에는 경광등을 켜 경찰차와 소방차 및 몇 대의 구조 차량이 뒤엉켜 프로보 캐년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에서 오랜 시간 지체하게 될 것 같아 귀찮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지체 현상을 일으킨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프로보 캐년 입구 동쪽으로 이어지는 암벽을 올라다보니, 남자 몇 명이 등반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조대원 같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을까요? 마침내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찌다가 길 잃은 암양이 8미터 높이의 암벽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움썽달싹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양은 야생 염소나 산양이 아니라 한 목자의 양떼에서 이탈한 평범한 하얀 암양이었습니다.

달리 할 일이 없었던 저는, 암벽에서 그 양이 서 있는 곳까지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양이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그 양은 거기에 있었고 제 앞에 있던 무리들은 모두 그 양의 구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차량들을 다시 움직이게 할 방안을 찾는 탓에 지금까지도 저는 그 이야기의 결말을 알지 못합니다.

차를 몰면서, 저는 한 가지가 염려되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분명히 좋은 의도로 다가가고 있지만 그 양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할까? 물론, 그들에게 양을 진정시킬 계획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까운 거리에서 마취 총을 쏘아 양이 떨어지기 전에 잡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동물들이 낯선 이들에 의해 구석으로 몰리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기에 저는 그들의 구조 노력이 실현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목자는 어디 있지? 분명, 그는 그 양을 놀라게

하지 않고 접근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일 것입니다. 목자의 달래는 목소리와 도움의 손길이야말로 이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었지만 그는 필요할 때에 없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이 목자처럼 필요한 때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몬슨 회장님이 2008년 새로운 선교부 회장 세미나에서 새로 부름받은 선교부 회장들에게 하신 말씀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원 참여 전도 프로그램을 대체할 것은 ... 없습니다. 거리 전도가 그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황금 같은 질문도 그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회원 참여 프로그램이 성공의 열쇠이며 그것은 어느 곳에서 시도하든 효과가 있습니다.”(“선교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함”, 2008년 6월 22일, 8쪽)

이 말씀처럼, 회원 선교사, 즉 여러분과 저는 목자이며 전임 선교사들은 그들 혼자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들을 하고 있는 구조대와 같습니다. 전임 선교사들은 분명히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우리의 일이며, 길을 잃고 구조되어야 할 이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데 더 책임자인 여러분과 제가 이 일에 매진한다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리와 성약에 있는 교회 회원들을 위한 세 가지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이 목적은 각각 우리가 친구와 이웃과 가족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부재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여기에는 떨어져자간 저활동 회원들도 포함됩니다. 우리 모두는 더 나은 회원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88편 8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경고를 받은 각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웃에게 경고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저는 교회의 여러 스테이크를 여행하며 와드 선교 사업의 성장과 발전을 격려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세계 매우 보람되고 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여행을 통해 저는 미국과 캐나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우리의 종교와 믿음을 거의, 또는 전혀 모른다는 것을 알았고 최근에 실시된 조사가



그 사실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동일한 조사는 비회원들이 충실한 교회 회원들과 오랫동안 교류를 가지거나 교회의 믿음과 교리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접할 때,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에는 전 세계에서 봉사하는 5만 명 이상의 전임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들이 교회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전임 선교사들은 그들의 시간을 사람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찾는 데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전임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영역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선교사들을 위해

여러분과 제가 찾기에 조금 더 주력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찾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한다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닌, 전임 선교사가 우리의 이웃들을 경고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교회를 성장시킬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계획이 주는 해답들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데 '큰 열성'(교리와 성약 123:14)으로 임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가족에 대해 염려합니다. 어떤 이들은 가치관이 변하는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함께 하자고 권유할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지상에 있으며 이

생과 앞으로 올 내세에서 그들의 삶을 축복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의 속죄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속죄는 죄를 씻고, 치유하고, 영생을 부여할 힘을 줍니다. 속죄의 기쁨할 수 없는 모든 축복들은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고 복음의 의식들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을 받음, 그리고 끝까지 견뎌줍니다.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위대한 선교 사업 메시지는 온 인류가 구조되고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들도록 초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 사업 메시지는 회복에 관한 지식으로 강화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대에 그러하셨듯이, 오늘날에도 그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그분의 복음이 회복된 신권의 권능과 권세로 집행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 외의 어떤 메시지도 오늘날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영원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권능과 확신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회복의 기적을 증거하는 것은 성신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지만, 먼저 우리는 입을 열어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경고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은 제가 교리와 성약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구절로 인도합니다. 88편 81절이 경고받은 순간부터 선교 사업이 우리 각자의 책임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반면, 33편 7~10절은 우리의 입을 열라고 가르칩니다.

7절은 주님께서 선교 사업에 관해 말씀하시는 교리와 성약 4편을 암기할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의 여지를 없애 줍니다.

“그러하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받은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낫을 휘둘러 너희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거두라.”

그런 다음, 입을 열리는 세 번의 권고가 주어집니다.

“너희 입을 열라. 그리하면 채워질 것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를 여행한 옛날의 니파이처럼 되리라.”

“그러하도다. 너희 입을 열고 아끼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등에 곡식 단을 지게 되리니, 이는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니라.”

“그러하도다. 너희 입을 열라. 그리하면 채워지리니, 이르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의 길을 굳게 하라. 이는 천국이 가까이 왔음이니라.”(8~10절)

우리 각자가 세 번 입을 열어야 한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관찮다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한 그분의 업적은 온 인류를 불멸의 은사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사인 영생의 은사를 누릴

가능성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입을 열 때에는 첫번째 시현을 우리 자신의 표현으로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열다섯 살이 채 안된 소년이 숲속에 가서 진지하고 겸손한 기도를 드린 후 하늘이 열리게 했다는 지식입니다. 수 세기에 걸친 혼란 후, 신화의 진정한 속성과 하나님의 진실된 가르침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로 입을 열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을 증거합니다. 몰몬경은 구주의 복음 교리에 대한 이해를 넓혀 준다는 면에서 성경을 보완합니다. 몰몬경은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임을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만약, 몰몬경이 참되다면 신권이 회복되었습니다. 몰몬경이 참되다면 그 신권의 권능으로 조셉 스미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했습니다. 최근에 몰몬경을 읽는 동안 저는 엘마서를 끝냈습니다. 엘마가 제이라हेल라 지역의 교회에 주는 훌륭한 메시지를 끝맺을 무렵,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저 너희 중에 과연 어떤 목자가 많은 양을 가졌으면, 이리들이 들어와 자기 양떼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또 보라, 이리가 자기 양떼에 들어오면 그가 그것을 몰아 내지 아니하느냐? 그뿐 아니라 결국에는 그가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멸하리라.

“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한 목자가 너희를 부르시나니, 너희가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가 너희를 자기의 무리에 인도해 들이실 것이요, 그러면 너희는 그의 양이라. 또 그는 너희가 멸망 당하지 않도록, 굶주린 이리가 너희 중에 들어오음을 용납하지 말 것을 너희에게 명하시느니라.”(엘마서 5:59~60)

구주는 선한 목자이며 우리 모두는 그분의 사업에 부름 받았습니니다. 프로보 캐년 입구로 이어지는 암벽에 있던 양과, 이와 같은 엘마의 말씀은 구주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게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 중에



러시아, 모스크바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 다니지 아니하겠느냐”(4절)

일반적으로, 양을 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면, 자신의 모든 양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하는 목자의 자격과 청지기 직분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 경험으로 인해 저는 이것이 바로 길 잃은 양의 비유임을 상기하게 되었고, 암벽을 오를 또 다른 발판도, 뒤돌아 내려갈 방법도 찾지 못한 채 홀로 있던, 길 잃은 양의 위험한 처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재난과도 같은, 스스로를 구할 길 없는 속수 무책의 상태에서, 그 양은 정말 공포와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길을 잃는 것이 어떤 느낌이고, 아흔 아홉 마리를 두고 잃은 양 하나를 찾는 “영적인” 목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숙고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한 목자들은 구조대의 전문성과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지만, 목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한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그곳으로 와, 구조대 바로 옆에서 등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목자들은 제가 교리와 성약 18편에서 나누고자 하는 회원 선교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권고에 응합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너희 온 생애 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 내게로 데려온 한 영혼과 함께 누리는데 너희의 기쁨이 클진대, 너희가 많은 영혼을 내게로 데려오면,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15~16)

경전이 가르치듯이, 그러한 목자들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아멘.



#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이번 연차 대회 때 들었던 말씀들을 오랫동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그 메시지를 공부하고 가르침을 상고한 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훌륭한 연차 대회를 마치면서 제 가슴이 충만해지고 온화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여러 연사들의 권고와 간증을 들으면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대로 살겠다고 더 다짐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을 포함해 이 대회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음악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기꺼이 나누어 주려는 분들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다음 구절이 떠오릅니다. “나의 영혼이 마음의 노래를 기뻐함이라, 그러하도다. 의인의 노래는 내게 기도가 되나니, 그들의 머리 위에 축복으로 응답하리라.”<sup>1</sup>

우리가 이번 연차 대회 때 들었던 말씀들을 오랫동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들은 다음달 *앤서인*과 *리아호나*에 실릴 것임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 메시지들을 공부하고 가르침을 상고한 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제 헌신적인 두 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을 제가 얼마나 사랑하고 감사해하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지혜와 이해심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들의 봉사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들에게도 사랑과 지지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번 대회 동안, 우리는 새로운 십이사도 일원을 지지했습니다. 이분은 주님의 일에 온전히 전념하시는 분이며 저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그 빈 자리를 채우길 원하시는 분임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칠십인 정원회 일원들과 감리 감독단계도 사랑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분들은 이타적으로 또 아주 효과적으로 봉사하십니다. 또한 저는 본부 보조 조직 일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면서 부름을 받는 정책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본부 청남 및 주일 학교 회장단을 지지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자기 직분에서 충실하게 봉사해 오시다 이번엔 해임되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유혹에 들지 않도록 항상 ... 기도”<sup>2</sup> 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세상의 악에 맞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신앙과 간증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선한 삶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자녀 여러분, 부모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해주셨고 또 계속해서 해 주시고 계신 것들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표현하십시오.

이제 젊은이들과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남성과 여성들 모두에게 주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거짓으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써서 우리를 그와 같이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길로 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진보가 우리를 사악한 길로 급속히 빠져들게 하는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의 한가지인 인터넷을 특별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은 유용하고 중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중요하고 고양시켜 주는 정보와 소중한 자료들을 담은 훌륭한 웹사이트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으로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인터넷을 사악하고 저속한 목적으로 쓰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외설물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한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영혼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강해지고 깨닫게하십시오. 저속하고 파괴적인 모든 종류의 매체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피하십시오! 전 세계의 모든 분들께 이 경고의 음성을 전해 드립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저는 이 외설물 이미지가 휴대폰을 통해 유포된다는 사실을 덧붙여 전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사탄의 가장 강력한 유혹 중의 하나인 외설물을 보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미 외설물을 보아 왔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이 유혹을 이겨내고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구하십시오. 곧고 좁은 길로 다시 돌아가도록 필요한 단계를 밟고 그 길을 계속 따라가도록 하십시오.

구약의 여호수아처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sup>3</sup>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에 성전을 지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을 것입니다. 합당하여 성전에 갈 수 있는 분들께, 저는 자주 성전에 가라고 권고 드립니다. 성전은 여러분이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복음에 다시 새롭게 헌신하고 계명을 지키려는 더 굳은 의지가 생깁니다.

주님의 영의 성결케 하는 영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성전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회장 저편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 대리 의식을 행할 때 위대한 봉사가 행해집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누구를 위해 그 의식을 행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바라지도 않고 우리가 행하는 의식을 그분들이 받아들일지 확신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봉사하며 그 과정에서 다른 여타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시온 산의 구원 받은

#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앤 엠 딘  
본부 청녀 회장단 제2보좌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는 작고 단순한 일들은 내일의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이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 의해 뭔가가 행해지지 않는 한 결코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성전에서 대리 의식을 행할 때,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 할 수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많은 지원을 해 왔고 교회 회원이거나 그렇지 않건 간에 수십만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도움을 손길을 계속 뻗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기여에 감사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 경륜의 시대에 회복된 복음과 이로 인해 제 삶과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축복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조화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끊임없이 키워서 그 간증들이 적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겸허한 중으로서 저는 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과 여러분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연차 대회를 마치려 합니다.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총관리 역원들과 저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 1. 교리와 성약 25:12.
- 2. 제3니파이 18:18.
- 3. 여호수아 24:15.



**오** 늘밤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며, 여러분의 선함을 생각하니 겸손해집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영감을 북돋아주고 아름답습니다. 제 어머니나 돌튼 자매님이 제 개인 발전 기록부의 지식 가치관 경험 4번에 사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복음에 관해 5분 말씀하기의 요건을 확실하게 충족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 [소책자, 2001년], 35쪽 참조)

저는 우리 청녀들과 청녀 프로그램을 사랑합니다. 제가 어린 소녀였을 때, 청녀 프로그램과 상호 항상 모임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우리가 배운 공과와 청소년 대회와 캠프를 좋아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저를 사랑해 주었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 원리의 두 번째 증인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부모님과 감독님,

사랑하는 청녀 지도자들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셨습니다].”(디모데전서 4:12) 그분들처럼 되고 싶었기에 저는 그들의 모범을 기꺼이 따랐습니다.

제가 청녀였을 때를 떠올려 보면, 저는 제 삶에 일어나고 있던 일들의 중요성을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교회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제 일생 동안 지속되는 행동 양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개인, 아내, 어머니, 지도자로서의 미래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 과정에 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옳은 일을 선택하려 노력하는 가운데 제가 침례 성약을 지키고 있고 신앙을 행사하고 있으며 덕을 발전시키고 성전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었지만, 아주 작고 점진적인 단계를 통해 저는 믿는 자, 그리고 “믿는 자의 본”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에게는 오늘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인 발전 프로그램은 없었지만, 이와 매우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배우고, 실천하고, 복음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에 관한 발전 사항을 보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근, 제 친구이자 모범인 캐시 엔더슨 자매님의 오래된 *Beehive Girl's Handbook*(꿀벌반 소책자)을 봤을 때,

몇 가지 제 과거의 경험들이 생각났습니다. 앤더슨 자매님의 그 넓은 소책자에서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진리를 사랑함” 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했습니다.

- “1. 교실에서 예의 바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
  - “2. 모든 일에 정직하게 행동한다.  
학교에서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의와 고결성을 지니고, 남을 속이는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수업은 ‘이수’ 했지만, 부정직으로 인해 인격자가 되는 데 ‘낙제’ 한다면, 진리의 참 의미를 배우지 못한 것이다.
  - “3. 이번 한 달간, 험담을 하거나 어떤 험담도 듣지 않는다. 이것이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에서 습관이 되도록 노력한다.
  - “4. 가족과 친구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발견한 장점들을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말해 준다. 그들은 여러분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비위를 맞추거나 아첨’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한다.”
- (*Beehive Girl's Handbook*  
[1967~1968년], 59쪽)

방금 읽은 것이 구시대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나, 거기에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믿는 자들”인 청년들은 예의 바르고, 정직하며, 친절할 말을 사용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작고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물문경의 선지자인 엘마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너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이라 생각할지 모르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지며, 많은 경우에 작은 방편이 현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니라”(엘마서 37:6)

최근에 저는 청년 개인 발전 프로그램의 새로운 가치관인 덕에 매진함으로써 우리의



살아 계신 선지자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고 단순한 일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저는 가치관 경험 3번이 이미 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간중 드립시다. 이 경험을 완수하려면 엘마서 5장을 공부한 다음,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 지에 관한 자신의 할 일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 [추가, 2009년], 3쪽 참조)

엘마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는 선한 목자의 양떼로 헤아림 받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들로 인해 겸손해졌습니다. 제 일지에 기록한 목록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영적으로 난 자가 되고 내 얼굴에 그분의 형상을 지니도록 선택해야 한다.[14절 참조]

“나를 창조하신 이의 구속을 믿는 신앙을 행하도록 선택해야 한다.[15절 참조]

“악인에게서 나와 따로 있도록 선택해야 한다.[57절 참조]

“교만을 버어버리고 충분히 겸손해지며 하나님 앞에 책망 받을 것 없이 행하도록 선택해야 한다.[27~28절 참조]

“변화하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라는 그분의 권유를

받아들이도록 선택해야 한다.”[34절 참조]

제 일지에, 저는 다음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몇 가지는 제 개인적인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들입니다.

“경전을 읽고 내 삶에 더 많이 적용시킨다.  
“긍정적이 된다. 불평하지 않는다.  
“존경심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지 않는다.

“감사를 표하되,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가정과 삶에 영을 불러오기 위해 더 질서 있는 사람이 된다.

“회개하고, 겸손함을 증진시키며,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숙고한다.

“엘마가 한 말을 나에게 맞도록 바꾸어 보면, 나는 변화할 것이다. 나는 ‘믿는 자의 본’이 되겠다는 나의 결심을 증진시키도록 선택할 것이다.”

이 “작고 단순한” 개인 발전 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선지자에 대한 제 간증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결심은 매우 커졌습니다. 이 목표를 완수함으로써, 저는 다음 번에 교회와 성전에 갔을 때 영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일지에 쓴 내용을 다시 볼 때마다 저는 영을 느끼며, 식탁에 앉아서 이런 경험을 했을 때 느꼈던



것이 기억납니다. 앨머서 5장은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중 하나입니다. 진실로 저는 저의 개인 발전 기록부 경험을 통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니다.

앞에서, 저는 앤더슨 자매님과 그녀의 *Beehive Girl's Handbook*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칠십인 회장단이셨고 이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되신 닐 엘 앤더슨 장로님의 아내이며, 한 분의 어머니이자, 할머니입니다. 이사를 자주 하셨지만 언제나 자신의 *Beehive Girl's Handbook*과 반델로(어깨띠)를 고이 간직하셨다는 것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또한 앤더슨 자매님은 남편과 함께 하며 온 세상에 복음을 가르쳐 왔고, 여성으로서, 또 교회의 충실한 회원으로서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열한 살의 소녀였던 앤더슨 자매님은 더 차라서 청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생일에 *Beehive Girl's Handbook*을 받았습니니다. 앤더슨 자매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책의 첫머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꿀벌반 청년으로서, 또한 남은 생애 동안, 목표를 높게 세우십시오.’ (*Beehive Girl's Handbook*, 12쪽) 저는 이것이 멋진 모험을 선사할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집으로 가져가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앞으로 2년 동안 제가 완수해야 할 목표들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책을 읽었습니다.

“책 속에 선택할 수 있는 80가지 목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저는 열심히 하면 책 속의 모든 목표를 다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단 하나, 성전에 가서 ...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는다(*Beehive Girl's Handbook*, 140쪽)만 빼고 말입니다. 저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플로리다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앤더슨 자매님은 이런 상황을 아버지께 말씀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편지는 다음과 같이 계속됩니다.

“아버지는 아주 잠깐 주저하셨습니다. 가족 중에는 서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었고 우리에게 유타로 여행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려 깊게 ‘캐시, 만약 꿀벌반 책에 있는 다른 목표들을 모두 완수한다면, 너를 4,000km 떨어진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성전에 데려가, 네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고 마지막 목표를 완수할 수 있게 해 주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2년 동안 꿀벌반 책의 목표에 매진했고, 79가지 목표를 완수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2년 동안, 성전으로 갈 여행

경비를 저축하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당시 항공 요금은 우리 가족에게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마지막 꿀벌반 목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집에서 솔트레이크시티까지 차로 왕복 8,000킬로미터를 여행했습니다. 솔트레이크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아버지께 대리 침례를 받았을 때 느낀 저의 기쁨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성전이 제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꺼이 행하신 노고에 영원히 감사드릴 것입니다. ...

현명하게도, 그분들은 제가 청년 목표를 성취해 나갈 때, 그것이 제 신앙을 강화시켜 줄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까지의 그 긴 여정을 위한 그분들의 신앙과 희생은 저와 제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모든 목표를 완수할 수 있어요. 하나만 빼고요.” 미출판 원고)

어린 소녀였던 앤더슨 자매님은 모범적인 여성, 즉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데 도움이 될 작고 단순한 일들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자매님은 그렇게 본이 되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는 작고 단순한 일들은 내일의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매일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산다면 행복해지고 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간증을 강화하며, 침례 성약을 지키고 성전의 축복을 받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되돌아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순결하고 유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일을 행할 때, 신앙으로 행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의 진실하고 겸손한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유덕한 삶- 한 번에 한 걸음씩

메리 앤 쿡  
본부 청녀 회장단 제1보좌

청소년 시기는 여러분이 영생으로 가는 데 필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해 주는 덕성의 본보기들을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머니의 생애 최고의 순간 중 하나는 자신의 팔에 갓 태어난 여자 아기를 안고 이 순수한 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막 떠나왔음을 느끼는 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딸들이라는 사실과, 그분의 면전을 떠나 순수한 상태로 배우고 발전할 준비를 하여 이 지상에 왔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니느라 집을 떠나 있었던 한 어버이날에, 저는 어머니로부터 이 소중한 경험을 말해 주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어머니 날은 내가 21년 동안 너의 ‘어머니’로 살며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었는지를 생각하기에 더욱 특별하구나.

너는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딸이었다. 우리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내가 순결하고 친절하게 살기를 바라며 메리란 이름을 지어 주었지.

“너와 같은 이름을 가진,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 네 이모는 대부분 손[바느질]을 한 작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내게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너를 집으로 데려온 후 첫 성찬식 때, 여전히 너무나도 작았던 너는 그것을 입고 이름을 명명하는 축복을 받았단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어머니의 가장 큰 소망이 제가 변함없이 순결하고 유덕하게 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덕성은 “높은 도덕적 표준에 근거를 둔 생각과 행동 방식”(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2004년, 118쪽)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인생이 힘들 것이며, 유덕하게 산다는 것은 평생에 걸친 과제가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그러한 도전을 완수하도록 저를 돕고 인도할 복음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녀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많은 훌륭한 선택을 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온 생애를 통하여 여러분이 이 길에 머물도록 지켜 줄 덕성의 본들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유덕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의 편에 서서 지지해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디모데전서

4:12)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유덕하게 되는 것은 우리 지상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덕성은 평화와 강인한 성품, 그리고 이 지상에서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많은 선택에 직면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아셨으며, 유덕한 삶이 우리가 성공하도록 준비시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에게, 자녀 축복을 받았던 날은 유덕한 삶의 여정에 첫 발을 내딛는 날이었습니다. 침례 받고, 확인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았다는 여러분의 선택과, 매주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고 여러분의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은 유덕한 삶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는 아주 중요한 발걸음들입니다.

이 여정에서의 여러분의 다음 단계는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자신을 준비시킴으로써 추가적으로 거룩한 성약을 맺고 해의 왕국의 결혼 의식을 포함한 거룩한 성전 의식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덕해야 합니다.

청소년 시기는 여러분이 영생으로 가는 데 필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해 주는 덕성의 본보기들을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니파이전서 8장에 나오는 잘 알려진 시현에서 우리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협착하고 좁은 길에 머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리하이이는 그의 아들들에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 만큼 먹음직한 열매가 달린”(10절) 생명나무를 찾는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설명했습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니파이전서 11:21~22 참조)

첫 번째 무리는 협착하고 좁은 길을 따라 출발했지만 그들을 지켜 줄 식막대를 잡지 않아 어둠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니파이전서 8:21~23 참조)

이 어둠의 안개, 즉 영생의 길을 가리기 위해 사탄이 사용하는 유혹들은 특히

여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탄은 순결과 도덕적인 정결함이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개념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 덜 중요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 여성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데 성공해 왔습니다.

이 어둠의 안개를 통과하려면 쇠막대가 필요한데, 이 쇠막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니파이전서 15:23~24 참조) 우리는 경전에 나오는 진리와 계명을 공부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후기 선지자들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하며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들을 지켜야 합니다.

리하이가 보았던 두 번째 무리의 사람들은 쇠막대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행복을 맛보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의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고 그들을 조롱하는 자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니파이전서 8:24~27 참조) 그들은 부끄러워했고 동료들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청소년들에게 사용하는 강력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행동과 믿음을 조롱할 때 굳건하게 견딜 수 있도록 의로움으로 단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교리와 성약 87:8) 것입니다. 유혹과 조롱과 비웃음을 받기 쉬운 상황을 피하십시오. 유덕하겠다는 서약을 함으로써 여러분은 또래 압력을 견딜 힘을 얻을 것입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권고 받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표준에 맞지 않는다면, 영화나 비디오 파티에서 자리를 피하거나,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끄거나, 라디오 방송국을 바꾸거나, 잡지를 내려놓는

용기를 가지십시오.”(2001년, 19쪽)

우리는 불쾌한 음악과 선정적인 춤은 물론, 인터넷이나 휴대폰에서의 부적절한 자료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조롱 받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으며, 홀로 견뎌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디 이 유혹들을 견딜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밀고 나아가 계속해서 쇠막대를 굳게 잡도록 돕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구주에게로 집중시키고 의로운 생활이라는 규칙적인 습관을 들이십시오.

구주와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모든 것을 공부하십시오. 저는 이 마지막 무리가 생명나무에 이르러 었드러진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그들은 구주의 도움 없이는 그곳에 도착할 수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유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속죄의 정결케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구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회개할 수 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것이다. ... 구주의 속죄 희생으로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 매주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고 영적인 힘을

가져다주는 유덕한 활동들로 삶을 채우겠다고 결심한다. 이와 같이 한다면 유혹을 극복하는 힘이 커지고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 [삽입문, 2009년], 3쪽)

매일의 의로운 행동 습관은 또한 여러분이 계속해서 쇠막대를 굳게 잡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본부 청년 회장단으로서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청년들에게 다음 세 가지 규칙적인 습관을 개발하도록 권유해 왔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둘째, 매일 최소한 5분 동안 물문경을 읽으십시오.

셋째, 미소 지으십시오! 왜냐구요?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침례 받고 확인 받았을 때, 여러분은 생활의 모든 면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줄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인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 어느 곳에서나!”(모사이아서 18:9) 유덕하게 생활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신의 동반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해 줍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 길을 걷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둘러쌌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는 부모, 형제 자매, 청년 지도자, 신권 지도자 및 건전한 친구들과 같이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도] [여러분을] 둘러 있어 [여러분을] 반겨”(교리와 성약 84:88) 줄 것입니다.

오늘 밤, 주위를 둘러보고 이 길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쇠막대를 굳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알고 그에 따라 생활하며, 거룩한 곳에 서서 세상의 압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구주와 그분의 속죄의 희생을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두며, 매일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들로부터 배우십시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그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이지리아의 라고스에 살고 있는 끝없는 청년인 힐러리의 빛나는 모범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반 친구들 몇 명이 그녀의 표준, 특히 그녀의 정숙한 옷차림에 대해 놀려댔습니다. 힐러리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 두 권을 항상 가지고 다니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놀릴 때 그녀는 가지고 있는 소책자 중 하나를 건네며 표준을 설명하고 자신이 왜 그것을 따르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다른 한 권은 그녀가 표준에 순종할 것을 늘 기억하기 위해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는 단합하고, 우리의 삶을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은]”(신앙 개조 제13조) 것들로 채우도록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청년들과 어머니들, 그리고 실로 새로운 개인 발전 기록부의 덕 가치관 경험과 활동을 완수하기 위해 이 덕성의 대의에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여성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저는 86세인 제 어머니께 덕 가치관에 대한 활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멋진 축복이 되었습니다. 가치관 경험을 함께 완수하면서, 어머니는 과거 더욱 유덕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1930년대의 젊은 여성으로서 내렸던 자신의 결정에 대해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덕성에 관한 경전 구절과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및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까지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유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 받았던 축복들을 개별적으로 일지에 적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가 인식했던 한 가지 중요한 축복은 성전에

가기에 합당함이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입니다.

솔트레이크 성전이 바위를 하나씩 쌓으며 지어지는 데 40년이 걸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유덕한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순종하겠다는 성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선택을 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개발한 덕성의 본들은 이제 여러분이 계속해서 쇠막대를 굳게 잡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에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주께서 늘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인도해 줄 성신과 함께할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자들을 찾고 자신의 여정을 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딸들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간에 우리 각자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16세이거나 86세이거나 상관없이, 그분의 가장 큰 소망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일레인 에스 돌튼  
본부 청녀 회장

여러분 자신의 유덕함은 ...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해 주는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저**는 종종 “아들이 다섯이나 되고 딸이라고는 한 명 밖에 없는 어머니가 어떻게 본부 청녀 회장이 될 수 있죠?”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딸은 하나밖에 없지만 그 아이는 완벽한 딸이며, 제가 남자 아이들끼리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녁, 제가 그 남자 아이들의 비밀들 중 한 가지를 누설해도 좋다는 제 아들들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유덕한 청남은 유덕한 청녀에게

끌린다는 것입니다.

선교 사업을 나가기 전의 청남들에게 청녀를 보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아마도 세상의 기준에 따른 외모 등의 조건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2년간의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했을 때, 이 청남들은 변화되었으며, 그들의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영원한 배우자를 찾는 그들의 첫 번째 조건은 바뀌었습니다! 유덕한 귀환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려는 유덕한 젊은 여성에게 끌립니다.

왜 이런 마음의 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 청남들은 구원의 계획에서의 그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신의 지속적인 동반을 통해 인도받기 위해 그들의 삶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며 유덕합니다. “믿음에 덕을 [더하라]”(베드로후서 1:5)는 경전의 말씀은 지당합니다. 왜냐하면 “덕은 덕을 사랑하며, 빛은 빛과 결합하기”(교리와 성약 88:40) 때문입니다.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디모데전서

4:12) 충고한 것처럼, 오늘 저녁에 저는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하고자 합니다. 덕은 곧 정절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약 1년 전에 본부 청녀 회장단은 산에 올라가서 “덕으로의 회귀”를 외치며 황금색 깃발을 휘날렸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청녀와 여성들에게 일어나 열국을 위한 기로서 빛을 발할 것을(교리와 성약 115:5 참조)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로, 덕이라는 가치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도록(로마서 2:15) 청녀 주제와 개인 발전 기록부에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영감 받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시대를 위해 추가된 것입니다.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교회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에서 지금과 같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악함과 타락을 능가하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e One Pure Defense”, [2004년 2월 6일, CES 종교 교육자들에게 하신 말씀, 4쪽] 세상에서 지금보다 덕과 순결함을 필요로 했던 때는 없습니다.

다른 가치들처럼 덕을 상징하는 색깔도 정해졌습니다. 그 색은 바로 금색인데, 금은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금은 빛을 발하며,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으면서 부드럽습니다. 금은 소중하며 정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순결하고 유덕한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삶의 경험들로 정제될 것이며, 여러분이 “여호와를 신뢰”(잠언 3:5)하며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금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Roger Hoffman, “Consider the Lilies”)

덕으로의 회귀는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도덕적 순수함과 순결함으로 회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덕은 순수함이자 순결함입니다. 덕이라는 단어는 “고결함과 도덕적인 탁월함, 권능과 힘”으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scriptures.lds.org, Guide to the Scriptures, “덕”; 또한 누가복음 8:46 참조) 도덕적 삶의 핵심은 성적 순결이지만, 세상에서는 이러한

정의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선지자  
 물문은 순결과 정조를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모로나이서 9:9)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순결과 정조, 즉 덕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만 가질 수 없으며, “우리는  
 … 유덕 … 을 믿습니다.”(신앙개조 제13조)

유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자신의 신성한  
 본질에 충실해야 하며 높은 도덕적 표준에  
 근거를 둔 생각과 행동 방식을 정립해야  
 합니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래2004년,  
 118~119쪽 참조) 이 표준은 영원하며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  
 표준을 가르쳤습니다. 유사한 진리로 가득 찬  
 세상에서, 주님의 표준은 절대적입니다. 그  
 표준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길에  
 머물도록 해 줍니다.

교리와 성약 25편에서 주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딸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유덕한  
 길을 [견도록](2절) 권고하십니다. 여러분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여러분 내면에는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성스러운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중한 딸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은사 중의 하나이며, 여러분은  
 표준대로 생활하고 유덕함을 유지함으로써 그  
 힘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순결한 생각과  
 행동을 통해 그 힘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강화되고 축복받을  
 것입니다. 브리검 영 회장은 “시온의 힘은  
 시온의 아들과 딸의 덕성에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브리검 영이 그의 아들들에게  
 보낸 서신, 딘 시 제시 판, [1974년], 221쪽)  
 여러분은 자신의 덕을 수호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신성함에  
 도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여러분은 덕의 수호자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여성은 자신의 몸의 여왕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Conference



Report, 1952년 4월, 86쪽)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린도전서 3:16) 저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다른 그 누가 덕을  
 수호하겠습니까?

최근에 저는 페루의 청년들이 산에 올라  
 세상을 향해 그들의 깃발을 휘날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버니지아에 사는  
 청년들과 청년 지도자들은 그들의 간증을 써서  
 페루의 청년들처럼 세상을 향해 깃발을  
 휘날렸습니다. 저는 유덕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세상을 덕으로의 회귀로 이끌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코스타리카에 이르는  
 많은 청년들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제가 청년였을 때, 제 청년 지도자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딸로서의 우리의 삶과

우리가 되고자 하는 여성을 나타내는 상징을  
 선택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한 상징을 어깨에 걸치는 장식적인  
 반젤로에 수놓았습니다. 이 반젤로는 세상을  
 향한 우리 각자의 깃발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징으로 흰색 장미를 골랐습니다. 제가 흰색  
 장미를 고른 이유는, 장미는 자라나고 꽃을  
 피우면서 더욱 더 아름다워지기 때문이며,  
 흰색은 순결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세상에 한 가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담은 깃발을 휘날릴 것인지 숙고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몇 년 전에, 제 딸과 저는 두 명의 친구와  
 함께 테톤 산으로 등산을 갔습니다. 모험을  
 하고 싶었던 우리는 삼림 경비원에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등산로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경비원은 목초지와 시내, 돌밭, 자연 호수를



지나 결국 우리의 목적지인 더 월 [The Wall]이라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 조금 덜 알려진 등산로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등산로를 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인 방향을 알려주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에서는 높은 쪽으로만 다니세요. 버드나무가 있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곰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돌무더기를 찾아보세요. 그걸 길을 안내해 줄 겁니다.” 돌로 포개져 있는 돌무더기는 천연의 등산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다음날 아침 일찍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버드나무가 있는 산 아래쪽을 지날 때는 아주 초조했습니다. 그러다가 언덕 한 쪽에서 첫 번째 돌무더기를 보았고 그 쪽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돌무더기를 따라 계속해서 등반했습니다. 때로는, 장시간 걸었는데도 돌무더기가 나타나지 않아 길을 잃은 것처럼 생각되기도 했으나, 다행히도 돌무더기가 다시 보였고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바위들이 모여있는 들판에 도착했고, 각각의 바위마다 그 위로 올라가기 위해 배낭과 서로를 끌어올려 주어야만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저녁때쯤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 호수에 도달했고, 그곳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사방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힘든 산행은 보람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에 저는 거센 바람 소리에 잠을 깰했습니다. 밖을 보니 짙은 안개가 자욱하여 호숫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텐트와 침낭들을 챙겨 호수 주변을 탐색했고 목적지인 더 월을 찾아 등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화강암 벽에 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마침내 해낸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앞에 선 저는 교회의 청년들에게 일어나 덕으로 회귀하라고 촉구하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이사야 2:3)라고 했던 이사야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덕으로 향하는 길은 “호젓한 길”입니다.(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집에 있는 “가지 않은 길”, Edward Connery Lathem 편, [1969년], 105쪽 참조)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 삶의 목초지와 시냇가, 자연 호수, 심지어 돌밭도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들어올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험난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꺼이 가려 한다면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 버드나무 숲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산 위쪽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성한 정체성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의 복장, 언어, 우선순위, 중점사항과 같은 모든 것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충고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참된 본질이 죄나 실수로 가려져 있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덕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버드나무 숲 위쪽으로 등반할 수 있습니다. 구주의 속죄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며,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그분께로 오라고 권하십니다.

유덕한 삶을 살면, 여러분은 등반할 수 있는 자신감과, 힘,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신을 항상 동반할 수 있는 축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성신의 속삭임을 따르십시오. 그에 따라 행하십시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에 놓여 있던 돌무더기처럼, 성신은 여러분이 해야 하는 모든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니파이후서 32:5 참조) 성신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길을 예비 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증거할 것입니다.(“하나님 지혜와 사랑”, 찬송가, 107장)

여러분 자신의 유덕함은 성신을 항상 동반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해 주는 결정을 내리게 해 주고, 성전에서 신성한 성약을 맺고 지키며 승영의 축복을 받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신을 준비시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처소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십시오. 주님의 전인 성전에 가도록 지금 준비하십시오. 성전에 가려는 목표가 여러분의 시야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순결하고 유덕한 상태로 그분의 면전에 가서 그분의 축복, 즉 “[주인의] 모든 소유”(누가복음 12:44)를 받으십시오. 그분의 성전에서 여러분은 정결해지고, 가르침 받으며, 권능을 부여 받을 것이며, 그분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돌볼”(교리와 성약 109:22) 것입니다.

우리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위기 상황에 윈스턴 처칠이 말했던 다음 사실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젊은 남성과 여성들은 마치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듯이 다가와 … [그들에게] 유일하고 특별한 일을 할 기회를 제안하는 특별한 순간을 맞게 된다. … 만약 그때 [그들이] 가장 고귀한 시간이 될지도 모를 그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그 일을 할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는가?”(제프리 알 홀랜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9쪽) 지금이 중대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여러분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고귀한 시간이 될 그 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원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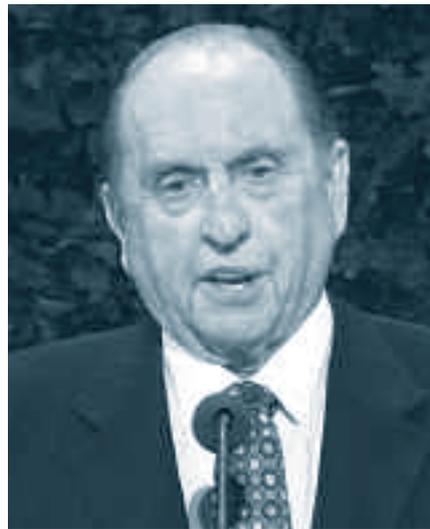
작년에 제가 본부 청녀 회장으로 부름 받고 몬슨 회장님의 사무실을 나오려는데, 그분이 화병에 담겨 있던 흰색 장미 꽃다발 중에서 한 송이를 뽑아 건네 주셨습니다. 몬슨 회장님이 제게 그 아름다운 흰색 장미를 주시던 순간에,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는 청녀 시절에 제 순결함의 상징이자 개인적인 깃발로 흰색 장미를 선택했던 것을 떠올려보았습니다. 몬슨 회장님이 어떻게 아셨을까요? 저는 그 소중한 장미를 집으로 가져와서 아름다운 유리병에 꽃은 뒤 제가 매일 볼 수 있는 테이블 위에 놓아 두었습니다. 매일 그 장미를 보면서, 저는 저 자신의 개인적인 순결함과 덕의 중요성과 여러분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자라나고 인생의 아름다운 시기를 맞게 되면서, 여러분 자신의 순결함은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 섰던 힘이 되고 의로운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저는 성신의 인도를 받는 한 명의 유덕한 청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이자 마음속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덕하게 되고자 할 때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용기를 가지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자제하는 데 필요한 용기, 순결하고 유덕한 사람이 되려는 용기, 진리와 의를 지키려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청녀 여러분, 여러분을 보는 것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웅장한 컨퍼런스 센터 이외에도 전세계 도처에 있는 예배당과 다른 건물에 수천 명의 청녀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하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본부 청녀 지도자들로부터 시기적절하고 영감 어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가르치도록 부름 받고 성별된 훌륭한 여성들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시대에 이 지상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기회들은 거의 무한합니다. 대체로 여러분은 모두 편안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충분한 음식과 옷을 지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대부분이 놀라운 기술적 발전을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채팅, 이메일, 블로그, 페이스북이나 이와 비슷한 기타 방법들을 통해 교류하고 있습니다. 아이팟과 MP3 기기로 음악을 듣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가운데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라디오가 너무 커서 마루바닥에 놓아야 했고 텔레비전은 아예 없었으며 당연히 컴퓨터나 휴대전화도 보이지 않던 시절에 자라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 모든 기술의 발전이 조금 위압적이긴 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나이만 할 때에는 대부분 전화선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전화를 걸고 싶으면 수화기를 들어서 다른 가족들이 통화중은 아닌지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족이 하나의 회선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와 여러분 세대 사이의 차이에 관해서는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냥 제가 여러분의 나이였을 때와 지금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비록 기회가 넘쳐나는 놀랄 만한 시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여러분은 이 시대만의 독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앞서 언급한 기술적 도구들은 악마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속임수의 거미줄로 여러분을 유인하여 여러분의 운명을 손아귀에 쥐려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여러분이 직면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볼 때, 한 단어가 제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속성이지만, 이 세상에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특히 필요한 속성입니다. 그 속성은 용기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 삶의 세 가지 면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하게 될 용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첫째,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자제하는 용기
- 둘째, 순결하고 유덕한 사람이 되려는 용기
- 셋째, 진리와 의를 확고히 지키려는 용기

먼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자제하는 용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에 정말로 용기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제 대답은, 판단, 또는 그와 분명히 유사한 험담이나 비판을 삼가야 할 때가 많이 있고, 그러려면 용기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구주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sup>1</sup> 이후에 그분은 "서로 결점 찾기를 그치라"<sup>2</sup>고 훈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또래 친구들과 사이에서 그런 비판과 판단에

동참하라는 압력을 느낄 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참된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의 불친절한 말과 비판 때문에 종종 따돌림을 당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여러분 인생의 이 시기에는, 자신과 다르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사람들, 즉 우리나라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이라 규정짓는 어떤 틀에 들어맞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피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는 행동양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sup>3</sup>

대부분의 생애 동안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일했던 천주교의 테레사 수녀는 다음의 진리를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그들을 사랑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 친구가 오래 전 십대였을 때 겪었던 경험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와드에는 샌드라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태어날 때 입은 손상으로 약간의 지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샌드라는 다른 소녀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녀는 장애인처럼 보였고, 장애인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늘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때로는

상황에 맞지 않는 말도 했습니다. 비록 샌드라가 상호 항상 모임에 참석하긴 했지만, 샌드라 옆에 있어 주면서 그녀가 환영받고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 주어야 했던 것은 교사였습니다. 다른 청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샌드라와 나이가 같은 한 소녀가 그 와드로 이사온 것입니다. 낸시는 귀엽고 빨간 머리를 지닌 자신감 넘치고 인기 있고 붙임성 있는 소녀였습니다. 모든 소녀들이 그녀의 친구가 되고 싶어했지만, 낸시는 우정을 나누는 데 경계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샌드라의 친구가 되어 항상 그녀가 모든 모임이나 활동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낸시는 진심으로 샌드라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다른 소녀들이 이에 주목했고 왜 자신들은 그 동안 샌드라의 친구가 되어 주지 못했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해야 될 일일 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들이 낸시의 모범을 통해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샌드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귀중한 딸이며, 그녀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랑과 친절과 적극적인 관심으로 대우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일 년 정도 살았던 낸시와





그녀의 가족이 이사갈 무렵, 샌드라는 소의 받지 않고 청년 그룹에 안정적으로 속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는 그 이후로 자신과 다른 소녀들이 누군가에게 남다른 점이 있더라도 그 누구도 따돌림 당하지 않게 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귀중하고도 영원한 교혼을 배웠던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인간의 삶을 바꾸어 놓고 그 본성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중한 청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자제할 용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사랑받는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해 줄 용기를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순결하고 유덕한 사람이 되는 데 필요한 용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도덕적 가치관이 크게 흔들리고, 최악이 극악무도하게 자행되고, 곧고 험착한 길에서 벗어나도록 사방에서 유혹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편해서 답답하다거나, 아직도 부도덕한 행위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여러분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sup>4</sup>

여러분이 지금 시대의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순결하고 유덕하게 남으려면 큰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에는 결혼 전까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하게 남아있는 젊은 남녀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 보는 관점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부도덕한 행위를 합리화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 해설자로 오랫동안 미국 ABC 방송의 *나이트라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테드 코펠은 수년 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선전 문구들, 즉 ‘어쩔 수 없다면 마약 주사를 놓으십시오. 그러나 깨끗한 비늘을 사용하십시오.’ ‘언제라도 원하는 상대와 성관계를

즐기십시오. 그러나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라는 문구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답은 아니오 임니다. 그것이 근사하거나 영리한 것이 아니어서, 또는 여러분이 결국 감옥에 가거나 에이즈 병동에서 죽어갈 수도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

“모세가 시내 산에서 가지고 내려왔던 것은 열 가지 제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계명입니다. 계명이었던 것이 아니라 계명입니다.”<sup>5</sup>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에게서 영원한 축복을 앗아가려는 모든 것에서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이런 자유방임적인 시대에 올바른 관점을 유지하려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근원은 많습니다. 한 가지 귀중한 자원은 여러분이 받은 축복사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자주 읽어보십시오. 주의 깊게 연구하십시오. 그것의 경고를 따르십시오. 그 약속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축복사의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그것을 받을 시기를 계획하고, 받은 다음에는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이 여행에서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회개라 부릅니다. 구주께서는 그 축복된 선물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려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길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sup>6</sup> “내가 ...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sup>7</sup>는 약속은 실재합니다.

오래 전에 제일회장단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으며, 현재의 제일회장단도 오늘 그 호소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젊은이 여러분 ... 우리는 여러분이 깨끗하게 생활할 것을 간청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생활은 육체적으로 오직 고통과 비참함과 비애로 이어질 뿐이며, 영적으로도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깨끗한 젊은이들이란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까! 이런 젊은이는 이곳에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다음 세상에서는 영원한 행복을 갖게 됩니다. 성적인 순결은 젊은이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것은 모든 의로움의 기초입니다.”<sup>8</sup>

순결하고 유덕한 사람이 되려는 용기를 갖기 바랍니다.

오늘 밤 저의 마지막 당부는 진리와 의를 확고히 지키려는 용기를 지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적 흐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과 원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것을 수호하라는 요구를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시험하는 사람들의 조롱을 견뎌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고하게 뿌리내려져 있다면, 복음과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여러분의 간증은 인생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교회를 조롱하는 의견과 비판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과 의문을 일으키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 악마가 더

기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지속적인 자양분을 얻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관한 리하이의 시현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쇠막대를 붙잡고 어둠의 안개 속을 지나 드디어 생명나무에 도착하여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는 “마치 부끄러운 듯 주위에 그들의 눈길을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sup>9</sup> 리하이는 그들이 당황했던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주위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물이 흐르는 강 저편에 크고 넓은 건물 하나를 보았으며 ...

“또 그 건물은 사람들, 곧 늙은이와 젊은이, 남자와 여자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저들의 옷차림은 심히 훌륭하였고, 저들은 열매[를] ... 먹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태도”<sup>10</sup>를 보였습니다.

리하이의 시현에서 크고 넓은 건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뜻하며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주를 사랑하며 계명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세상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조롱을 받고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리하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열매를 맛본 후 그들을 비웃는 자들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더니, 금단의 길로 떨어져 나가서는 잃어버린 바 되더라.”<sup>11</sup>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확신에 찬 용기를 갖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sup>12</sup>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일들에 대해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 저는 우리의 용기를 끌어내 줄지 모를, 사도 바울의 감동적인 또 다른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sup>13</sup>

끝마치면서 저는 한 용감한 젊은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진리와 의를 지키려는 용기에 찬 모범으로서 오랜 세월을 걸쳐 전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구약에 나오는 에스터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여의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개와 그의 아내의 손에서 양육된 아름답고 젊은 유대 소녀에 관한 매우 흥미롭고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모르드개는 바사 왕을 위해 일했는데, 왕이 왕비감을 찾고 있을 때, 모르드개는 에스터를 궁전으로 데려가 그녀를 왕비 후보로 신청하면서 그녀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왕은 그 어느 후보들보다도 에스터가 마음에 들었으므로 그녀를 왕비로 택했습니다.

왕궁의 수석 대신이었던 하만은 모르드개가 자신에게 절하거나 경의를 표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드개에게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그 보복으로, 하만은 교활한 방법으로 왕을 설득하여, 왕국의 127개 지방 중에 “어떤 [한] 백성”만은 유독 그 법률이 다른 지방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려 하지 않으므로 그들을 멸망시켜야 한다고 고했습니다.<sup>14</sup> 왕에게는 이 민족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으나, 하만은 모르드개를 포함한 유대인을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처리하라는 왕의 허락을 받은 하만은 모든 지방의 관리들에게 서찰을 보내어 그들에게 “열두째 달 ... 십삼 일 ... 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sup>15</sup>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르드개는 하인을 통해 에스터에게 전갈을 보내어 유대인에게 불리한 조서에 대해 알리고, 왕에게 가서 그녀의 백성을 위해 탄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에스터는 모르드개에게 그 누구라도 명을 받지 않고서 왕궁의 안뜰로 들어가는 것은 법률에 어긋나는 것임을 상기시키며 주저했습니다. 왕이 금 규를 내밀어 그 사람을 살게 하지 않으면, 그는 사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에스터의 머뭇거림에 대한 모르드개의 회답은 매우 신속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sup>16</sup>

그런 다음 그는 이런 예리한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sup>17</sup>

답신에서, 에스터는 모르드개에게 가능한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 그들에게 자신을 위해 삼일 동안 금식할 것을 요청해 달라고 부탁하며 자신과 시녀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sup>18</sup>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터는 힘껏 용기를 내어 옳은 것을 확고부동하게 지키고자 했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된 에스터는 왕궁의 안뜰로 나아갔습니다. 왕은 그녀를 보고 금 규를 내밀며 그녀의 요구는 어떤 것이든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왕을 초대했고, 잔치 동안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왕궁에서 모든 유대인을 몰살시키려 하는 하만의 음모를 폭로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구하고자 했던 에스터의 탄원은 허락되었습니다.<sup>19</sup>

에스터는 금식과 신앙, 그리고 용기를 통한 한 민족을 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에스터처럼 여러분이 믿는 바로 말미암아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요구를 받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리와 의를 확고히 지켜나갈 때, 큰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세상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어 왔지만, 여러분이 직면하는 어려움 가운데 많은 것들은 이 시대만의 독특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강한 자녀들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며, 그분은 “이 때를 위해”<sup>20</sup> 여러분을 지상에 보내려고 아껴 오셨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것에 직면하더라도 맞설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때때로 어둡게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등대처럼 여러분의 길을 밝혀 줄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자제하는 데 필요한 용기, 순결하고 유덕한 사람이 되려는 용기, 진리와 의를 지키려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믿는 자에게 본”<sup>21</sup>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사랑과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마태복음 7:1.
2. 교리와 성약 88:124.
3. 요한복음 13:34~35.
4. 이사야 5:20.
5. 테드 코벨, 듀크 대학교 졸업식 연설, 1987년.
6. 이사야 1:18.
7. 예레미야 31:34.
8. 제일회장단, Conference Report, 1942년 4월, 89쪽.
9. 니파이전서 8:25.
10. 니파이전서 8:26~27.
11. 니파이전서 8:28.
12. 로마서 1:16.
13. 디모테후서 1:7.
14. 에스터 3:8.
15. 에스터 3:13.
16. 에스터 4:13~14.
17. 에스터 4:14.
18. 에스터 4:16.
19. 에스터 5~8장 참조.
20. 에스터 4:14.
21. 디모테전서 4:12.

# 그들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 연차 대회를 삶에 적용함

**여**러분은 연차 대회의 가르침들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다음 내용과 질문들은 토론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깊이 숙고해 보기 위한 좋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www.generalconference.lds.org](http://www.generalconference.lds.org)의 Gospel Library에서 연차 대회 말씀들을 온라인으로 읽고, 듣고, 시청할 수 있으며, 또는 [www.mormonmessages.org](http://www.mormonmessages.org)에서 말씀 발췌록을 보거나 나눌 수 있습니다.



### 어린이

•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미래는 여러분의 신앙처럼 밝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며 구속주이십니다. 하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89쪽 참조)

• “여러분과 저는 오늘 제자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려는 소망을 나타내며 그분에 대해 배우십시오.”-다이터 에프 우흐



트도르프 회장(75쪽 참조)

• “저는 성신의 관능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분명하고도 완전하게 알고 있습니다.”-닐 엘 앤더슨 장로(78쪽 참조)

• “성전이 보인다면 결코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줍니다.”-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101쪽 참조)

•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는 존경의 분이 되고 있는가? ...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은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마거릿 에스 리퍼스(11쪽 참조)

## 청소년

-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인터넷에 대해 “인터넷은 유용하고 중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인터넷을 “사악하고 저속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들에게 그것은 “말 그대로 영혼을 파멸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112쪽 참조)
- 가정 복음 후임 동반자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친구들 중 한 명이 교회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상황 모두에 대한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의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지금을 “나” 세대, 즉 모



든 사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고 묻는 것 같은 이기심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 후기 성도들은 집단으로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데 남다르며, 특히 비이기적인 봉사의 정도에서 그렇습니다.”(93페이지 참조)

- “구글 탐색을 통해 간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신앙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엠 러셀 벨러드 장로님은 간증을 얻는 데 신기술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간증을 얻는 과정을 말씀하셨습니다.(31쪽 참조)
- 청남들은 어떤 청녀들에게 끌릴까요? 일레인 에스 돌튼 자매님은 “남자 아이들의 비밀” 한 가지를 공개하면서 덕의 가치로의 회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120쪽 참조)

•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는 오직 주님께로 돌아섬으로써 극복될 수 있으며,] 중독에 대한 목마름은 오직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구주의 사랑을 느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구주의 사랑은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갈망과 공허함보다 더 강력합니까?(7쪽 참조)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성전 성약과 의식들의 권능에 대해 논한 후 말씀 끝부분에 몇 가지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 중 어떤 권유가 여러분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까? 그 권유에 대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97쪽 참조) ■

## 성인

-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의 감독이었던 분의 이야기를 읽어 보십시오. 그분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봉사를 보여주었습니까? 가족으로서 여러분은 이 모범을 어떻게 따를 수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토론했는지 보십시오.
- 디어터 에프 우흐트드로프 회장님은 전구의 교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화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59쪽 참조)
- 엘 톰 페리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

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닌, 전임 선교사가 우리의 이웃들을 경고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교회를 성장시킬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의 간증을 전하시겠습니까?(109쪽 참조)

- 러셀 엠 넬슨 장로님은 우리가 구주께서 기도하신 방법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모범으로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까?(36쪽 참조)



## 연차 대회에서 인용된 일화 색인

다음은 연차 대회에서 이야기 된 경험과 일화를 선별한 목록입니다. 이 목록은 개인 공부, 가정의 밤 및 그 밖의 교수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는 그 일화가 담긴 말씀의 첫 번째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연사	일화	주제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형편에 맞지 않는 드레스를 사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후에는 필요하지 않은 코트를 사지 않기로 한 헤일즈 자매(7)	부채, 자산 관리, 검약하는 생활
앨런 에프 패커 장로	젊은 시절의 패커 장로가 관중의 함성 너머로 풋볼 코치의 음성을 들음	성신, 계시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지진으로 가진 것을 모두 잃었지만 굳건하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페루의 한 가족(19)	신앙, 영적인 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아이어링 회장의 감독이 건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함(23)	역경, 봉사
엠 러셀 벨라드 장로	벨라드 장로가 그의 부친의 권고를 듣지 않고 어떤 모델의 자동차 영업과 판매를 시작하기로 결심함(31)	선택 의지, 경험, 신앙, 배움
쿠엔틴 엘 쿡 장로	찰스 디킨스가 후기 성도 이주민에게 감명을 받음(34)	모범
라파엘 이 피노 장로	알바레스 가족의 세 살 난 딸이 익사했으나, 가족이 성전 성약에서 평안을 찾음(41)	역경, 속죄, 위안, 죽음, 신앙, 소망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스코트 장로와 자매가 두 명의 자녀가 세상을 떠난 후 성전에서 받은 약속으로 위안을 받음(43)	역경, 자녀, 죽음, 소망, 인봉
리처드 시 에즐리 감독	회원이 직업을 갖도록 도운 와드 취업 전문가(53) 장로 정원회가 한 회원이 자영업을 시작하도록 도움(53)	자애, 신권, 자립 신권, 자립, 봉사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	한 부부가 여러 시련을 겪으면서도 교회에 충실하게 남아 봉사함(56)	역경, 결심, 의무, 신앙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조종사가 불이 들어오지 않는 작은 전구 하나에 주의를 빼앗긴 나머지 추락하게 된 비행기(59)	의무, 우선 순위, 유혹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목숨을 잃을 지도 모르는 위험 속에서 지상에 추락한 동료를 보호하는 군인들(63)	용기, 의무, 봉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뉴욕의 한 여인이 기도한 뒤 선교사들의 방문을 받음(67) 한 고등학교 밴드 멤버가 몸이 아팠으나 신권 축복을 받고 낫게 됨(67)	기도 신권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	로버트 가드너 이세가 일생 동안 변화와 역경에 잘 대처함(81)	변화, 어려움, 신앙
바바라 톰슨	톰슨 자매의 집 마당에 나무가 쓰러졌으나 와드의 도움을 받음(83)	친절, 봉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솔트레이크 계곡에서의 여행 도중 아들을 잃은 몬슨 회장의 증조부(89) 신권 축복을 받고자 한 눈 먼 소경(89) 동 프러시아에서 서독까지 여행을 하면서 시련을 견딘 한 여성(89)	역경, 죽음, 인내, 신앙, 개척자 신권 역경, 신앙
앤 엠 딘	성전에 다녀오는 것을 포함하여 80개의 Beehive Girl's Handbook(꿀벌반 소책자) 목표를 모두 완수한 청년	목표, 순종, 성전 사업

##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넷**째 주 일요일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공과로는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을  
공부하기로 되어 있다.

각 공과는 가장 최근의 연차  
대회 말씀 중에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말씀들을 사용하여 준비할  
수 있다. 스테이크 회장 또는  
지방부 회장은 어떤 말씀을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거나 또는  
그 책임을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도자들은 멜기세덱 신권  
형제들과 상호부조회의 자매들이  
같은 일요일에 같은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넷째 주 일요일 공과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근의  
연차 대회 특집호를 공부하고  
그것을 공과 시간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을 활용한 공과 준비 제언

말씀들을 공부하고 가르칠 때  
성령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다른 자료를 사용하여  
공과를 준비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대회 말씀들은  
승인된 교과 자료이다. 여러분의  
책임은 다른 사람들이 교회의  
최근 연차 대회에서 가르침 받은  
대로 복음을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도록 돕는 것이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반원들의  
필요사항에 부합하는 원리 및  
교리를 찾아본다. 또한 이러한  
진리들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이야기, 참조 성구 및 문구들을  
말씀에서 찾아본다.

원리 및 교리를 어떻게  
가르치기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교안을 만든다. 교안에는  
반원들에게 도움이 될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말씀에서 원리와 교리를 찾아  
본다.
-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이해, 생각, 경험 및 간증들을  
나눈다.
- 이러한 원리와 교리들을 생활  
에 적용한다. ■

### 월 넷째 주 일요일 공과 자료

2009년 5월~ 2009년 10월	리아호나 2009년 5월호에 실린 말씀*
2009년 11월~ 2010년 4월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에 실린 말씀*

\*이 말씀들은 인터넷 [www.lds.org](http://www.lds.org)에서(여러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 상호부조회



실비아 에이치 얼드리드  
제1보좌



줄리 비 벡  
회장



비버라 톰슨  
제2보좌

### 청녀



메리 엔 쿡  
제1보좌



일레인 에스 돌튼  
회장



앤 엠 딘  
제2보좌

### 초등회



마거릿 에스 리퍼스  
제1보좌



체릴 시 렌트  
회장



비키 에프 마쭈로리  
제2보좌

### 주일 학교



데이비드 엠 맥켄지  
제1보좌



러셀 티 오스구도프  
회장



매튜 오 리차드슨  
제2보좌

### 청남



래리 엠 깁스  
제1보좌



데이비드 엘 벡  
회장



에이드리언 오초아  
제2보좌



## 연차 대회에서 새 역원들이 지지받다

**전** 세계의 교회 회원들은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 위성을 통해 2009년 4월 4일과 5일에 열린 제179차 연차 대회에 참여했다.

94개 국어로 방송된 본 대회 기간 동안, 제일회장단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 한 명과 칠십인 회장단의 새로운 회원 한 명 및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들에 대한 부름을 발표했다.

또한 제일회장단은 본부 청남 회장단과 본부 주일 학교 회장단을 재조직했다.(지지 및 해임 목록을 보려면 27쪽 참조)

지난 12월에 작고한 조셉 비 워스린 장로(1917~2008)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칠십인 회장단의 선임 회원이었던 닐 엘 앤더슨 장로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았다.(133쪽 약력 참조)

또한 칠십인 정원회의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는 칠십인 회장단으로 부름받았다.(134쪽 약력 참조)

여섯 명이 새로이 칠십인 제일 정원회로 부름받았으며, 여기에는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 속해 있던 머빈 비 아놀드 장로(*Ensign* 및 *리아호나* 2003년 5월호에 나와 있는 아놀드 장로의 약력 참조)를 비롯하여 최윤환 장로, 브렌트 에이치 닐슨 장로, 데일 지 렌렌트 장로, 마이클 티 링우드

장로, 조셉 더블류 시타티 장로(135쪽부터 약력들 참조)가 있다.

일곱 명이 칠십인 제이 정원회로 부름받았고,(137쪽부터 약력들 참조), 38명이 지역 칠십인에서 해임되었으며, 40명이 새로운 지역 칠십인으로 부름받았다. ■



## 닐 엘 앤더슨 장로

### 십이사도 정원회

**총** 관리 역원으로 봉사해 온 지난 16년 동안, 닐 린든 앤더슨 장로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다”라는 몬슨 회장의 가르침을 누차 들은 바 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해롤드 비 리 회장의 말씀을 인용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자랑하신다.”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42쪽; *Ensign*, 1995년 11월호, 50쪽)

앤더슨 장로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그 말씀에 의지하고 있다.

칠십인 정원회의 선임 회장으로 봉사해 온 앤더슨 장로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와 같은 부름을 수행할 준비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큰 중압감과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충분히 무르고 겸손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빚어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951년 8월 9일, 유타 주 로건에서 라일 피 앤더슨과 캐서린 앤더슨 사이에서 태어난 앤더슨 장로는 가족들과 함께 일한 세월이 중요한 가치관들을 형성하게 해 주었다고 말한다. “작은 가족 농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일찍이, 노동이 인생을 완성시키는 요소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앤더슨 장로는 19세에 프랑스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받았다. 그의 자라나는 간증은 그곳 회원들의 깊은 헌신과 물몬경이 지닌 개종의 권능으로 인해 더욱 굳건해졌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앤더슨 장로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핑클리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고 학생회 부회장에 당선되었다.

또한 그곳에서 앤더슨 장로는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사람을 만났다. 그것은 훗날 그의 아내가 된 캐시 수 윌리엄스였다. 그들은 1975년 3월 20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앤더슨 장로는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한다. “그녀와 결혼하고 나자, 제 삶의 표준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규칙적인 기도와 경전 공부가 생활화되었고 계명의 일점일획까지 철저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미친 그녀의 영향력은 실로 놀랍습니다. 그녀에게는 순결하고 잘 다듬어진 신앙이 있습니다.”

1975년에 브리검 영 대학교를 졸업한 앤더슨 장로는 1977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들 부부는 아내의 어릴 적 고향인 플로리다 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그는 광고업과 부동산 개발업 및 보건 산업에 종사했다. 이후 앤더슨 장로는 플로리다 탬파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했다.

1989년에 앤더슨 장로는 37세의 나이로 프랑스에서 재차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 이번에는 프랑스 보르도 선교부의 회장으로서였다. “저희 네 자녀들은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접하는 데 담대한 태도로 임했으며, 우리는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앤더슨 장로는 1993년 4월에 41세의 나이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았다.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그는 지난 20년 중에서 10여 년의 기간 동안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교회 부름을 수행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훌륭한 교회 회원들을 사랑합니다. 온 땅의 신앙과 헌신과 간증이 우리에게 큰 모범이 되어 주었습니다.”

앤더슨 장로 내외는 4년 동안 브라질에서 생활하면서 주님의 사업이 전에 없이 번창하는 모습을 목격하며, 새로운 대륙에서 평생지기를 더해 나갔다. 훗날, 앤더슨 장로는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 지역을 관장하는 십이사도 정원회를 보좌하였다. 또한 교회 본부에서 봉사하는 동안 교회 시청각부를 감독하며 한 무리와 한 목자의 성약 영화 촬영을 지휘하고 2001년에는 Mormon.org의 초기 제작 과정을 관장하기도 하였다.

앤더슨 장로는 지난 16년간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인도하에 가르침 받은, 특별한 기회를 누린 것에 감사드린다. “몬슨 회장은 나와 더불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스승이 되어 주셨으며, 구주의 모범을 따라 타인을 돕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타인의 진실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의 손의 도구가 되었음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해 오셨습니다.”

앤더슨 장로는 겸손한 태도로 거룩한 사도로서의 부름을 받아들이면서 연차 대화를 통해 구주에 대한 자신의 굳은 간증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거룩한 사도 직에 부름 받기 위해 예의 없이 반드시 지녀야 하는 한 가지 자질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큰 축복으로 제가 그 자질을 갖추게 해 주셨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습니다. 저는 성신의 권능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분명하고도 완전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게 오라,” 리아호나 및 *Ensign*, 2009년 5월호, 78쪽) ■



##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

### 칠십인 회장단



## 칠십인 회장단의 도널드 래리 홀스트롬 장로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의 뿌리깊은 간증과 그가 일생 동안 간직해 온 전 세계의 다양한 민족과 문화에 대한 사랑을 융화시킨다.

1949년 7월 27일, 미국 하와이 주 호놀룰루에서 제임스 램버트와 베티 조 램버트 홀스트롬 사이에서 태어난 홀스트롬 장로는 다문화 사회의 풍부한 경험 속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그는 중국, 일본, 한국, 필리핀, 사모아 및 통가 출신이었던 그의 친구들에 관해 이렇게 회상한다. “먹는 음식이나 전통은 달랐지만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다섯 살 때, 그는 호놀룰루 스테이크 테버나클에서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1873~1970)의 말씀을 들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회중들이 ‘누가 주의 편에 있는가?’ (“Who’s on the Lord’s Side,” 영문 찬송가, 260장)를 부를 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요!

제가 주님의 편에 있어요!’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 스테이크의 회장이 되었다.

1969년부터 1971까지 영국 중부 선교부에서 봉사한 후, 홀스트롬 장로는 유타 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그곳에서 캐나다 앨버타 주 출신의 다이앤 클리프턴을 만났다. 두 사람은 1972년 7월 22일, 앨버타 카스틴 성전에서 결혼하여 슬하에 네 자녀를 두고 있다. 홀스트롬 장로는 경제학 학위를 받으며 졸업한 뒤 하와이로 돌아와 부동산 자문 회사의 회장직을 역임했다.

2000년 4월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홀스트롬 장로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을 거쳐 가장 최근에는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기타 23개국을 포괄하는 아시아 지역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이 이 지역에 속함) 회장단에서 봉사했다.

홀스트롬 장로는 이 광활한 “교회의 변방”에 살고 있는 초기 성도들이 가장 가까운 성전을 향하여 떠나면 여정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현세적인 문화를 뛰어넘어 복음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신앙과 용기로 인해 끊임없이 영감받습니다.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싹 틔우는 모습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

## 최윤환 장로

칠십인 정원회



**칠** 십인 정원회의 최윤환 장로는 열네 살 난 두 명의 소년들이 자신의 가족을 회복된 교회로 인도했다고 말한다.

최 장로는 1957년 5월 18일, 최동현 형제와 이정순 자매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자녀들이 어떠한 기독교 종파도 자유로이 택할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자신들의 믿음에 관해 저녁 상 앞에서 논쟁하곤 했다. 그는 이같은 모습에 변화를 원했다. 당시 열네 살이던 최 장로의 남동생이 속한 물몬교에 감명을 받아, 가족들은 선교사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또 다른 열네 살 소년인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가족들은 모두 침례받았다.

자라나면서, 대한민국 육군 장군이 되는 것이 꿈이었던 최 장로는 그의 감독이 선교 사업을 준비함에 관해 말씀할 것을 부탁하자 이를 거절했다. 결국 다른 청남이 대신 말씀하게

되었고, 최 장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성신이 제게 선교사로 봉사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라고 그는 당시를 회상한다. 그는 부지런히 준비하여 총 2년간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중간에 선교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3년간 군 복무를 마쳤다. 최 장로와 그의 아내인 구본경 자매는 지금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절대로 마다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최 장로는 1988년에 비와이유 하와이에서 정보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89년에는 유타 주립대학교에서 경영정보시스템 및 교육학 석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그는 양 대학 모두에서 강사로 일했으며 컴퓨터 회사 영업부장 및 투자 회사 이사로 재직했다. 최 장로는 한국 관리 본부 대표를 역임했다.

최 장로와 그의 아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1982년 9월 25일에 결혼하여 1년 후에 하와이 라이에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슬하에는 삼형제가 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기 전에 최 장로는 감독단 보좌, 감독, 고등평의원, 스테이크 선교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스테이크 회장, 지역 칠십인 등으로 봉사했다. ■

## 브렌트 에이치 닐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칠** 십인 정원회의 브렌트 해치 닐슨 장로의 가족 가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33)라는 구주의 말씀이다.

그는 “이 구절은 삶에 대한 저희 가족의 철학을 대변해 줍니다. 이러한 일들을 먼저 하면 다른 일들은 저절로 풀리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다.

닐슨 장로는 27세 때 감독으로 부름받았다. 그는 서른 살의 나이에 스테이크 회장단의 일원이 되어, 여섯 자녀들이 모두 성장할 때까지 20여 년간 봉사했다.

닐슨 장로의 아내인 마사 앤 브래드포드 닐슨 자매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복음과 더불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라고 말한다.

닐슨 자매는 남편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을 잃지 않았으며 언제나 시간을 내어 자녀들과 함께 한다고 말한다. 그들 가족은 보트 타기와 여행을 좋아한다.

닐슨 장로 내외는 1978년 6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가족과 함께 30년간 미국 아이다호 주 트윈폴스에서 생활했다.

닐슨 장로는 1954년 12월 8일, 노먼 닐슨과 루실 닐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훌륭한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났다.”고 말한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부름을 받기 전에 닐슨 장로는 핀란드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와드 청남 회장, 고등평의원 및 아이다호 지역의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다.

닐슨 장로는 1978년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영어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81년에는 유타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그는 1985년부터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및 파트너로 일해 왔다. ■

## 데일 지 렌런트 장로

칠십인 정원회



**데**일 지너 렌런트 장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배웠다. 그의 부모인 매츠 렌런트와 마리야나 렌런트는 모범을 통하여 이 원리를 가르쳤다. 그들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처음 만났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결혼하고자 했으나 반드시 성전에서 결혼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핀란드와 스웨덴에 있는 그들의 고향을 떠나 유타 주로 이주한 후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1952년 11월 13일,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난 렌런트 장로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받게 되는 축복들을 소중히 여기는 가정에서 자라났다. 그는 또한 부모님의 조국에서 생활할 두 번의 기회를 축복받았는데 첫 번째는 청소년 시절, 목수인 아버지가 교회의 건축 선교사로서 스웨덴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던 때였고,

두 번째는 몇 년 후에 교회의 전임 선교사로서 스웨덴에서 봉사하게 되었던 때였다.

렌런트 장로는 그의 고향 와드에 다니던 아내 루스 리버트를 만났으며 1977년 6월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자녀로는 외동딸이 있으며, 함께 일하고 즐기고 봉사하는 친밀한 가족 관계를 일궈 왔다.

렌런트 장로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가족 단위로 무언가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죠. 골프를 칠 때는 세 명이 한 조가 되어 점수도 공유합니다.”

렌런트 장로는 유타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 및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내과 및 심장학에 관한 수련을 마쳤다. 그는 교사, 연구자 및 임상의로서 특히 심장 마비 및 심장 이식과 같은 의학 분야에 매진해 왔다.

렌런트 장로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로 부름받기 전에 감독, 스테이크 회장, 고등평의원으로 봉사했으며 칠십인 제오 정원회의 지역 칠십인으로서 9년간 봉사했다. 그는 가족과 함께 현재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살고 있다. ■

## 마이클 티 링우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한** 국 서울에서의 선교 사업이 끝나갈 즈음, 마이클 텔리 링우드는 그의 동반자가 몸이 아파서 아파트 내에 머물러 있어야 했기에 함께 하루를 보내면서 좀 더 공부하고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제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이 된 링우드 장로는 “당시 저는 재확신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라고 말한다. 여태껏 해 왔던 기도만큼이나 오랫동안 기도를 했으나 확신은 오지 않았다. 그가 경전 공부 쪽으로 방향을 돌려보아도 확신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링우드 장로가 자신의 선교사 일지로 마음을 돌리자 드디어 그 확신이 왔다.

“제가 읽는 부분들은 모두 제가 영에 관하여 어떤 중요한 것들을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난 너에게 여러 차례 말해 왔단다. 그런데 넌 얼마나 더 많은 확신이 필요한 거지? 그게

바로 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증거가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영을 느꼈음을 상기시켜 주셨고 성신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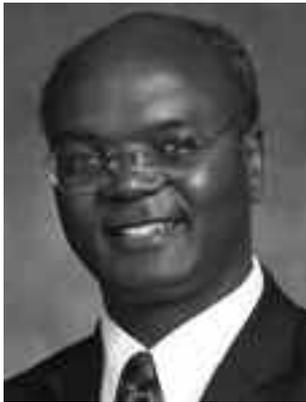
그 교훈은 링우드 장로가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감독, 고등 평의원, 대제사 그룹 지도자, 청남 회장, 소년단장, 스테이크 회장 및 한국 서울 서 선교부 회장 등의 부름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총관리 역원으로서의 부름을 받기 전에, 링우드 장로는 몇몇 회사에서 중역을 역임했다. 그는 또한 브리검 영 대학교 회계학과에서 교문 위원회의 일원으로도 활약했다.

링우드 장로는 1958년 2월 14일에 미합중국 유타 주 프로보에서 하워드 리와 샤론 리 링우드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성장했으며, 1983년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회계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82년 12월 27일에 유타 조던리버 성전에서 로사리에 벨슨과 결혼했다. 그들은 다섯 자녀를 두고 있다. ■

## 조셉 더블류 시타티 장로

칠십인 정원회



**조**셉 와폴라 시타티 장로는 복음의 작은 부분들을 거듭 반복해서 행하는 가운데 행복이 온다고 믿는다. “저는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를 의심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늘 모든 일이 잘 되었어요. 그러한 단순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를 구주와 하나로 만들어주며 ‘그 단합의 요체는 바로 우리의 가족에서부터 시작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1952년 5월 16일에 케냐에서 나단과 레나 시타티 사이에서 태어난 시타티 장로는 34세 때 아내 글라디스 난고니와 그들의 다섯 자녀와 함께 동료 사업가의 집에서 열리는 교회 모임에 초대받았다. 그 가족은 조직화된 종교에 대해 환멸을 느껴왔으나 이 작은 후기 성도 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매주 참석했고, 6개월이 지난 1986년에 가족이 함께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우리가 침례도 받기 전에 그들은 우리에게 교회에서 말씀을 하고 복음을 가르치라고 했었지요.”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자신이 자녀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옳은지 알아야 한다고 느꼈다. 서서히 그는 영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영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는 것은 불변의 목표가 되었다.

시타티 장로는 1975년 나이로비 대학에서 기계공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또한 회계 및 재정학 수료증도 소지하고 있다. 그는 세계적인 정유 및 가스 회사에서 여러 직책을 맡아 일했다. 좀 더 최근에는 아프리카에서 교회의 국제 공보 책임자로 봉사했다.

시타티 장로와 자매는 1976년 7월에 결혼했으며 1991년 12월에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그들은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거주하고 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로 부름받을 당시 시타티 장로는 나이지리아 칼라바 선교부의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그 이전에는 지부 및 선교부 회장단의 보좌와 지부 회장, 지방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 지역 칠십인 등을 역임했다. ■

## 윌포드 더블류 앤더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칠**십인 정원회의 윌포드 웨인 앤더슨 장로의 아내 캐스린 베니언 앤더슨은 남편에 대해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에요.”라고 말했다. “제 생각에 남편의 가장 큰 강점 중의 하나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남편 주위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껴요.”

앤더슨 장로는 1949년 8월 22일에 미합중국 애리조나 주 메사에서 달과 어마 판스워스 앤더슨 사이에서 여덟 자녀 중 셋째로 태어났으며, 그가 부름받을 때에도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앤더슨 장로는 여러 종교를 지닌 사람들과 함께 일했던 부친과, 멕시코 치와와 태생으로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쳐 준 모친으로부터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앤더슨 장로는 자신이 엘마서 32장에서 엘마가 묘사했던 과정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

간증을 얻었다고 믿는다. 소년 시절에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에 심어졌다.

그는 “저는 일찍부터 그 첫 느낌을 느꼈어요. 그 어린 나무는 평생토록 계속 자랐습니다.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었어요. 그 열매를 따 먹었더니 제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앤더슨 장로는 2009년 4월 4일에 칠십인 제이 정원회로 부름받을 당시 북아메리카 남서 지역에서 지역 칠십인으로서 제6 정원회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그의 이전 교회 부름에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멕시코 과달라하라 선교부의 회장, 스테이크 회장 및 보좌, 스테이크 집행 서기, 고등 평의원, 감독 및 보좌, 아르헨티나 남 선교부의 전임 선교사 등이 있다.

앤더슨 장로는 친구를 통해 아내를 만났다. 그들은 1975년 4월에 유타 프로보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아홉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앤더슨 장로는 1973년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1976년에 제이 르우벤 클라크 법과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9년 이후로 그는 부동산 투자 회사의 공동 경영자로 일해 왔다. ■

## 코이치 아오야기 장로

칠십인 정원회



**일** 본의 마츠모토에서 성장한 코이치 아오야기 장로가 17세였을 때, 그는 자신의 고등학교 영어 클럽에 가입했다. 어느 날 그가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가는데 길에서 있던 한 젊은이가 그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다. 그 종이는 무료 영어회화반 초대장이었다. 그 젊은이는 후기 성도 선교사였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그 선교사들만큼 긍정적이고 쾌활하고 낙천적인 사람은 없었어요.”라고 아오야기 장로는 말한다. “저는 단지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는 마츠모토에 있는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으며, 그곳 회원들에게서도 똑같은 기쁨과 사랑의 영을 느꼈다. 그는 1962년에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도쿄의 카나가와 대학교에서 2년간 공부를 하던 아오야기 장로는 자신의 가족이 경영하던 사업이 파산을 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부모는 더 이상

학비를 낼 수가 없었다. 이 사건은 그가 1965년부터 1967년까지 극동 북부 선교부에서 건축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었다. 세 가지 직업에서 일을 하며 돈을 모은 지 일년 후, 그는 같은 지역에서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전임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아오야기 장로는 자신이 처음 다녔던 마츠모토 지부의 회원인 시로코 모모세와 1970년 9월에 결혼했으며, 그 해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일본 부동산 협회에서 자격증을 받은 그는 도쿄의 북아시아 지역 사무소에서 부동산 및 건축 관리자로 일했다. 그는 또한 일본의 다른 두 회사에서 판매 과장 및 부장으로 일했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로 부름받기 전에, 아오야기 장로는 지부, 스테이크, 및 선교부 회장, 감독, 인봉자, 지역 칠십인 등 여러 부름에서 봉사했다.

아오야기 장로는 1945년 3월 24일에 미쓰우오 야카사키와 수에노 아오야기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오야기 장로 부부는 네 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일본 치바켄에서 생활하고 있다. ■

## 브루스 에이 칼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칠** 십인 정원회의 브루스 앨런 칼슨 장로는 열여섯 살이 되어서야 교회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그때부터 그의 어머니께서 그와 두 형제들에게 경전을 읽어주고 복음 찬송가를 불러주며 가르치면서부터 칼슨 장로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종교적 가르침은 그의 평생에 걸친 영적인 기초가 되어 주었다.

칼슨 장로는 1949년 10월 3일, 미국, 미네소타 주의 히빙에서 클리포드와 헬렌 칼슨에게서 태어났다. 부친이 미네소타 산림청에서 일하며 승진하게 됨에 따라 칼슨 장로는 대부분의 어린 시절을 미네소타 주의 북부 절반에 걸친 전 지역을 옮겨 다니며 보냈다. 가족이 미네소타 주의 브레이너드로 이사하게 되자 마침내(청소년 시절에 침례를 받았던) 어머니 헬렌 칼슨은 집 근처에서 교회의 작은 지부 하나를 찾았고 자녀들을 그곳에 데리고 갈 수

있었다.

개종 후에 칼슨 장로는 델루스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1971년에 문학사 학위를 받았고, 1979년에 미국 네바다 주 넬리스 공군 기지에 있는 공군 전투기 병기 학교를 졸업했으며, 1989년에는 미 해군 전술 대학에서 저명한 문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 공군의 일원으로서 칼슨 장로는 37년 경력의 대부분 동안 전투기를 몰았으며, 그 밖에도 미 국방부와 워싱턴 디씨에서 몇몇 고위직에 임명되었다. 1972년 8월 8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한 그의 아내 비키 린 마틴즈와 그의 세 아들과 더불어, 칼슨 장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섬기고, 자신이 섬기는 자들을 사랑하는 데 생을 바쳐 왔다.

칼슨 장로는 장로 정원회 회장, 감독, 고등 평의원 및 교회 군사 자문 위원회 고문으로 봉사했으며,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부름을 받을 당시 미국 텍사스 주 산 안토니오의 고향 와드에서 주일 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다. ■

## 브래들리 디 포스터 장로

칠십인 정원회



**칠** 십인 제이 정원회의  
브래들리 두에인  
포스터 장로는

부모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자신의  
간증을 키우기 시작했다.

“제 친가, 외가  
할아버지들께서는 독일과  
영국에서 교회 회원이 되어  
미국으로 건너오신  
이민자들이셨습니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었어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조부모들에  
대한 얘기와 교회를 위해 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들음으로써  
간증을 얻었습니다. 저는  
어렸었지만 그 말들을  
믿었어요.”라고 포스터 장로는  
말한다.

포스터 장로는 1949년 3월  
5일, 미국 아이다호 주의  
아이다호 폴스에서 드웨인과 멜버  
포스터에게서 태어나 리키 근처  
지역에서 자랐다. 그는 텍사스 남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그의 간증은 선교  
사업 동안 더욱 강화되었다. 선교  
사업을 하던 중 포스터 장로는

텍사스에 있는 한 작은 교회의  
목사를 만났는데, 그 목사는 칼슨  
장로에게 전국에 갈 유일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끄는 그 교회  
성도들뿐이라고 말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제외한 다른 나머지  
사람들, 즉 우리들에게는  
냉정하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  
영에게 그분의 계획과 사랑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메시지가 참됨을 알았습니다.”

선교 사업에서 돌아온 뒤,  
포스터 장로는 리스 대학(현  
브리검 영 대학교-아이다호)에  
들어가 수의학 예비 과정 공부에  
치중했다. 1971년, 그는  
리키에서 자신의 농업 사업을  
시작했고, 1971년 5월 14일에  
아이다호 폴스의 아이다호  
성전에서 셰릴 린 앤더슨과  
결혼하여 네 자녀를 두었다. 그는  
아이다호 감자 위원회,  
노스웨스트 농장 신용 이사회 및  
브리검 영 대학교-아이다호에서  
총장의 진보 평의회 임원으로  
봉사해 왔다.

포스터 장로는 장로 정원회  
회장, 스테이크 선교 책임자,  
감독,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회장 및 캘리포니아 아카데미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

## 제임스 비 마르티노 장로

칠십인 정원회



**19** 68년, 제임스  
보이드  
마르티노가

교회에 들어온 지 겨우 3개월이  
되었을 때, 한 친구가 그에게  
다른 교회 목사를 만나보라고  
권유했다. 그 목사는 그에게  
질문을 퍼부었지만 그가 답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몇 개에  
불과했다.

비록 떨리는 경험이었지만,  
17살의 제임스는 그 목사가  
자신을, 또는 교회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뒤흔들어 놓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 당시 제 간증은 먹기  
전에 흔들어야 효과가 있는  
처방약과 같았어요. 그 경험은  
저로 하여금 복음을 공부하고  
신앙을 키워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최근에 칠십인 제이 정원회  
임원으로 부름 받은 마르티노  
장로는 그때 이후로 복음 공부가  
그를 축복해 주었다고 말한다.

마르티노 장로는 1951년 3월  
28일에 미국 텍사스 주 덴턴에서

프랭크 닐슨과 베티 진에게서  
태어났다. 그는 1973년 8월  
18일 교회에 들어온 지 일년이  
된 제니 매리 베린과 유타 옥든  
성전에서 결혼하여 슬하에 다섯  
자녀를 두었다. 제니는 마르티노  
장로의 어린 시절 연인이었다.

마르티노 장로는 1974년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에는  
가족 의료 회사에서 일했고,  
1989년에서 2000년까지 그  
회사의 회장 및 최고 경영자로  
재직했다.

부름을 받을 당시 마르티노  
장로는 미국 텍사스 주 오브리에  
살면서 북미 남서부 지역에서  
칠십인 제육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그 임무를 맡기  
전에는 2000년에서  
2003년까지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마르티노 장로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그 외에  
스테이크 집행 서기, 스테이크  
청남 회장, 세미나리 교사, 감독,  
스테이크 회장, 고등 평의원 및  
선교부 회장 보좌 등으로  
봉사했다. ■

## 켄트 에프 리차즈 장로

칠십인 정원회



**칠** 십인 켄트 판스워스 리차즈 장로는 이기심이 우리가 좀 더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라고 믿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기심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넘어 외부의 것들에 집중할 때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외과 의사로 32년간을 일한 후, 리차즈 장로는 사람들의 신체적 필요사항을 돌보는 것을 배운 것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켜 주었다고 말한다.

“외과 의사로서 제가 실제로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왕국에서 할 일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1946년 2월 25일, 씨 엘리엇과 마거릿 판스워스 리차즈에게서 태어난 리차즈

장로는 1968년 8월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마사 거와 결혼했다. 그들은 미국 유타 주 노스 솔트레이크에 살면서 여덟 자녀를 낳았다. 온 생애 동안 그는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가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면서 가족 중심 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해 왔다.

“제가 젊은 아버지였을 때,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엘 에번즈 장로님(1906~1971)께서 ‘나에게 취미라고는 아들들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제게 가족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리차즈 장로는 유타 대학교에서 1969년에 의학 학사 학위를, 1972년에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의료 기술과 더불어 그는 유타 대학교 임상 교수, LDS 병원 외과 과장 및 보건 의료 단체 이사회 임원을 지냈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로 부름 받기 전, 리차즈 장로는 남 멕시코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고, 스카우트 단장, 장로 정원회 회장, 감독,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회장 및 텍사스 산 안토니오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

## 그레고리 에이 슈바이처 장로

칠십인 정원회



**응** 급 의학 전문의로서, 칠십인 정원회의 그레고리 앨런 슈바이처 장로는 생명이 위협받는 부상을 당한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 왔으며, 근경에 처한 환자 및 그들의 사랑하는 자들을 돕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절하심을 볼 수 있었던 축복을 받았다.

“저는 휘장을 통과하는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죽음과 직면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향한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그들이 궁극적으로 붙잡게 될 희망이기 때문이죠.”라고 그는 말한다.

슈바이처 장로는 1948년 4월 2일에 미국 유타 주 옥든에서 하비와 글로리아 슈바이처 사이에 태어나 그곳에서 성장했으며, 북독일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는 1972년에 생물학 학사 학위를 받으며 유타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1975년에 같은 대학에서 의학 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에는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에 있는 피츠사이몬스 육군 병원에서 미 육군 의료 법인 일원으로 5년간 재직했다.

슈바이처 장로와 그의 아내, 조 앤 엘리자베스 로스톤은 1972년 7월 24일에 유타 옥든 성전에서 결혼하여 다섯 자녀를 두고 있다.

한번은 막내 아들이 독일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동안 그들은 한밤중에 아들이 중증 뇌출혈로 살 기마가 없다는 전화를 받았다. 슈바이처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12시간의 수술 후에 주님의 기적의 손을 통해 그의 생명이 구해졌어요. 몇 년 동안에 걸쳐 우리는 아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봉사도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부름에 앞서 슈바이처 장로는 감독,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회장 및 러시아 예카테린버그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

## 러셀 티 오스구토프

본부 주일 학교 회장



**새**로운 본부 주일 학교 회장으로 지지 받은 러셀 트렌트

오스구토프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가르침은 교회에서의 우리가 거두는 모든 성공의 필수적인 열쇠입니다. 우리가 지도력이라고 부르는 많은 부분이 실제로는 가르치는 행위입니다. 저는 주일 학교를 교회 교육 발전의 힘이라고 봅니다.”

오스구토프 형제는 직업적으로나 천성적으로나 타고난 교사이다. 그는 교육 심리학 박사 학위를 포함해서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의 다수의 학위들을 갖고 있다.

현재 오스구토프 형제는 브리검 영 대학교의 교육 심리 공학부 교수로 있다. 그는 또한 대학 교수 및 학습 센터 책임자로도 봉사하고 있는데 그의 목표는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시키고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946년 12월 4일,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웨즐리와 이바 러셀 오스구토프에게서 태어난 오스구토프 형제는 타이티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그는 1969년 8월 7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롤라 “롤리” 세즈윅과 결혼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두고 있다.

사우스 다코타 래피드 시티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기 전, 오스구토프 형제는 스테이크 청남 회장, 감독단 보좌,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 지부장 및 브리검 영 대학교 학생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했다. 본 부름을 받을 당시, 오스구토프 형제는 칠십인 제오 정원회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오스구토프 형제는 자신의 간증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저는 참으로 자주, 여러 방법으로 주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에도 저는 그 거룩한 손길이 저와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타이티에서 선교 사업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아버지로서 해야 할 바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교 회장으로 봉사할 때, 주님께서 선교사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

## 데이비드 엠 맥콩키

본부 주일 학교 회장단 제1보좌



**본**부 주일 학교 회장단 제1보좌인 데이비드 메릴 맥콩키 형제는

주일 학교에서 봉사할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오랜 기간에 걸친 그의 신권 지도력은 복음 교육에 중요한 견해를 제공해 왔다.

맥콩키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교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과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교리를 배우고 이해한 다음, 계명을 지킴으로써 신앙을 발전시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알아야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맥콩키 형제의 우선 순위였다. 1948년 10월 13일,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프랜스 브리턴과 베스 메릴 맥콩키에게서 태어난 맥콩키 형제는 유타 주 바운티폴에서 성장한 후, 남 아프리카 선교부로 부름 받았다.

그는 1971년 9월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조앤 알브레히트와 결혼하여 슬하에

일곱 자녀를 두고 있다. 유타 대학교에서 1974년에 역사학 학사 학위, 1977년에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솔트레이크에 기반을 둔 법률 회사에 입사했다.

맥콩키 형제는 감독, 고등 평의원 및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로서 아론 신권, 주일 학교에서 봉사했으며, 본 부름을 받을 당시에는 스테이크 회장이었다. 봉사하는 동안 그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의 중요한 역할을 주시했다. 그는 “교회 내의 모든 지도자와 부모들은 교사입니다.”라고 말한다.

맥콩키 형제는 교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따르는 것이라고 말한다. “많은 교수 기술이 있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를 알기 위해 영의 속삭임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교사는 짐을 털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주님 손 안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교회 내의 모든 교실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

## 매튜 오 리차드슨

본부 주일 학교 회장단 제2보좌



**매**튜 오터슨 리차드슨은 교육자가 될 계획이 전혀 없었으므로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치는 삶을 마련하셨음을 알았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저는 제 자신이 훌륭하게 주도되도록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 삶의 세세한 내면적인 부분을 비롯한 모든 것에 대한 웅대한 시각을 갖고 계십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1982년, 덴마크 코펜하겐 선교부에서 귀환한 리차드슨 형제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의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 선교사 훈련원에서 덴마크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1983년 7월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리사 지니 잭슨과 결혼하였는데, 결혼 직후 세미나리를 가르쳐 보라고 주위 친구들이 권유했다.

리차드슨 형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일 년 동안만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일을 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 일 년이 칠 년으로 바뀌었고, 가르치는

일은 제게 여전히 즐거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정보 통신 학사 학위를 받고 이어서 교육 지도 석사 학위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리차드슨 형제는 세미나리를 전임으로 가르치면서 그 일이 자신의 일생의 부름이라고 생각했지만,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교회 역사 및 교리 교수로 있으면서도 그와 똑같은 열의를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그는 종교 교육 부학장으로 4년 동안 봉사했다. 오랜 세월 동안 리차드슨 형제가 교실에서 학생으로서 또 교사로서 경험했던 다양한 경험들은 그가 맡은 이 새로운 부름에 중요한 자원을 제공해 준다.

1960년 12월 12일,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에드워드 밀턴과 안드레아 로비나 오터슨 리차드슨에게서 태어난 그는 청남 회장으로, 장로 정원회 회장단에서, 주일 학교 교사, 감독으로, 그리고 청남/청녀 교과 과정 집필 위원회에서 봉사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유타 주 오렘에서 살고 있다.

부름을 받을 당시, 그의 네 자녀 중 막내는 “부름을 받으셔도 아빠가 계속 야구를 하실 수 있겠죠?”라고 물었다. 헌신적인 아버지며 남편이자 교사인 리차드슨 형제는 계속해서 야구 할 시간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

## 데이비드 엘 벡

본부 청남 회장



**보**사하던 기간 동안 교회에서 많은 청소년들을 면담했던 데이비드 리로이 벡 형제는 그들에 대한 고견을 갖고 있다.

새로운 본부 청남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경험을 누리 왔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놀랄 만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에게 그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느낍니다. 그들 중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의 영웅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힘든 도전을 받는 중에도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벡 형제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북 선교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 고등 평의원, 감독단 보좌, 장로 정원회 회장 및 초등학교 도우미로 봉사했다. 부름을 받을 당시에는 미국 유타 주 바운티폴에 있는 와드에서 와드 선교 책임자로 봉사하고 있었다.

1953년 4월 12일,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웨인과 에블린 문 벡에게서 태어난 벡 형제는 부친이 브라질 선교부를 감리하도록 부름 받았을 때 열 살이었으며, 부모님과 전임 선교사들이 그의 좋은 모범이 되었다. 그는 “청남 시절부터 이 사업에 열정을 가졌어요.” 라고 말한다. 그는 후에 브라질 노스 센트럴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교회의 청남들이 충실하고 아로 및 멜기세덱 신권에 합당하여 성전의 모든 위대한 축복들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함으로써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모든 청남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벡 형제는 1976년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로빈 에릭슨과 결혼하여 네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우리는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해요.”라고 말한다. 벡 형제는 제조 및 유통 기업의 중역이며 전문 대학 이사회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유타 대학교에서 전자 공학 학사 학위 및 기술 관리 석사 학위를 받았다. ■

## 래리 엠 김슨

본부 청남 회장단 제1보좌



**래**리 마이너 김슨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미국 애리조나 주 그랜드 캐년의 허버수파이로 하이킹을 가서 그곳에서 며칠 동안 물문경을 읽고 자신의 간증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 보기로 결심했다. 교회가 참되지 않다고 생각한 적은 한번도 없었지만,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확고한 중심과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는 “그곳에서 아주 성스러운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경험을 통해 저는 학교를 떠나 선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1966년에서 1968년까지 영국 남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1968년 9월에 유타 맨타이 성전에서 셸리 바튼과 결혼한 김슨 형제는 그 동안 여러 교회 부름에서 봉사해 왔다. 부름을 받을 당시 그는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으며, 그에 앞서 스테이크

회장 보좌, 고등 평의원, 감독, 와드 및 스테이크 청남 회장으로 봉사했다.

김슨 형제는 1971년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 및 경영학 학위를 받고 졸업했으며, 1974년에 같은 대학교에서 정보 과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몇몇 기술 회사의 사장 및 최고 경영자였으며, 가장 최근에는 Fortune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중 한 곳에서 수석 부사장 및 최고 기술 책임자를 역임했다.

김슨 부부와 그들의 여섯 자녀들은 스쿠버 다이빙, 열기구 타기, 자전거 타기, 하이킹, 야영 및 여행을 즐긴다. 그는 아내와 함께 현재 유타 주 하이랜드에 살고 있다.

김슨 형제는 1947년 2월 26일, 미국 네바다 주 보울더 시티에서 로버트 오웬과 데이스 마이너 김슨 사이에서 태어났다.



## 에이드리언 오초아

본부 청남 회장단 제2보좌



**에**이드리언 오초아 퀴타나는 청남이었을 때 자신의 생애에서 겸손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해한 이후로는 항상 강한 집중력을 갖게 되었다.

오초아 형제는 이렇게 회상한다. “제가 열마서 32장 15절을 처음 읽었을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지지 않고도 스스로 영의 속삭임에 따른다면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제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본부 청남 회장단 제2보좌로서 오초아 형제는 계속해서 겸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인정한다.

오초아 형제는 1954년 3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에두아르도와 콘수엘로 오초아 사이에서 태어났다. 오초아 형제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와 멕시코 치와와 사이에서 청소년

시기를 보냈는데, 이 두 장소에서 얻은 경험들은 훗날 그의 일생에서 값진 재산이 되었다.

오초아 형제는 미국과 멕시코에서 광고 및 영화 제작 일을 해 왔으며, 세계 500대 회사 몇 곳에 복합 마케팅 전략을 개발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내는 동안 미디어 관련 일에 대해 배울 수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멕시코에서 지낸 시간 동안에는 인생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경험해 보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낼 기회를 가졌다. 그는 “서로 다른 두 세상에서 저는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한다.

미디어에 대한 관심은 정보 통신의 학사 학위와 경영 및 마케팅에서의 석사 학위를 취득하도록 그를 이끌었다.

청남일 때 그는 멕시코에서 특별한 공보 선교 사업에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으며 그곳에서 정부 지도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미디어를 활용했다.

멕시코 멕시코시티 성전에서 인봉 받은 오초아 형제와 아내인 낸시 비아레알은 유타 주 하이랜드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다섯 자녀를 두고 있다. 오초아 형제는 대제사 그룹 지도자, 스테이크 회장, 지역 공보 책임자, 지역 칠십인 및 온두라스 산 페드로 술라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



새로운 복음 그림책은 기존의 복음 그림 패킷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회원들이 복음 그림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 전 세계 애호가들을 위해 고안된 복음 그림책

**복**음 관련 그림 자료들에 대한 전 세계 가족과 교사들의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회는 기존의 복음 그림 패킷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구할 수 있는 137쪽 분량의 복음 그림책을 새로이 제작했다. 이 책에는 여덟 개 언어로 색인과 참조 성구를 볼 수 있으며 50개의 추가 언어 삽입물이 들어 있다.

본부 초등회 회장인 쉐럴 시렌트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복음 그림책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훌륭한 새로운 자료입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히 어린이들은 시각적으로 배웁니다. 이 아름다운 그림들은 이목을 끌고, 주의를 집중시키며,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여러 복음의 원리들을

알려줍니다. 또한 보는 것은 느끼도록 도와주며, 다시 말해서 학습 과정에 영을 불러옵니다.”

새로운 복음 그림책의 가격은 미국과 캐나다 내에서 미화 3.5달러(20개 들이 케이스 당 미화 1.5달러)이며 한국에서는 천오백 원에 판매되고 있다. 기존의 복음 그림 패킷의 가격은 미화 30달러(만 사천 원)였다.

교과 과정 계획 및 개발 전문가인 마이클 매드슨 형제는 “가능한 한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하여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그 책을 한 권씩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가로 세로, 22, 28 센티미터의 스프링 제본 책에는 구약, 신약, 몰몬경 및 교회사의 경전 이야기를 묘사하는 그림과 함께 교회 및



시간에 사용될 수 있으며, 가정의 밤과 가족 경전 공부 시간에, 그리고 영적 모임이나 개인 학습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매드슨 형제는 이 책이 주일 학교나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 교실에서도 추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모가 잠자리에서 자녀들에게 경전 이야기를 들려줄 때나 자녀들을 교회에서 조용히 있게 하려 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 복음 그림책에 관련된 인터뷰에서, 칠십인 정원회의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는 이 책에서 특별히 선정된 그림 중

하나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집무실 벽에도 걸려 있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시각 자료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지를 설명했다. 몬슨 회장은 그 그림을 보면서

복음의 여러 국면들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들어 있다. 책 안에 들어 있는 그림 중에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아담과 이브, 사도들을 성임하는 그리스도, 기도하는 이노스, 첫번째 시현, 교회에서 말씀하는 어린 소녀, 신앙 개조, 솔트레이크 성전 및 후기의 선지자들 등이 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줄리 비 벡 자매는 이 책이 패킷보다 훨씬 향상된 자료라고 말했다. 기존 패킷이 무거워 운반하기 힘들고 낱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반면에 이 책은 운반하기 쉽고 가방에 넣어서 교회에 가지고 올 정도로 작으며 그림들이 한 데 묶여 있다.

벡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모든 교실에서 사용될 수 있어요. 초등회의 함께 나누는

“구주께서는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바라실까?”라고 스스로 묻곤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몬슨 회장은 이와 같이 생각을 구주께로 돌림으로써 자신의 많은 질문에 대한 영감과 응답을 받는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콘디 장로는 이야기한다.

렌트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그 책]이 모든 가정과 교실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과 간증을 키우며 다른 사람들을 들어올리고 우리 가족을 강화시키려 노력할 때 그 책은 우리의 가르침을 축복하고 우리의 삶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 그림책은 교회 배부 센터나 [gospelart.lds.org](http://gospelart.lds.org)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다. ■